현대불교

제 779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4월 14일 수요일 (음력 3월 1일 · 불기 2554년 · 주간)





기복신행 때문에 자비에서 멀어졌다

■ 불교계 모금문화 진단

1월 아이티 지진참사가 있은 후 불교계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는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월 15일~3월 31일 아름다운 동행에 모인 '지진참사 아이티를 돕기 위한 긴급구호기금'은 10억8706만1739원, 개인 455명을 비롯해 사찰 및 단체 339곳이 동참했다. 모금액이나 동참자 모두 적지 않은 숫자이다.

반면에 개신교의 모금액은 160여억원이다. 모금단체만도 월드비전(29억6000만원), 국제기아대책(15억원), 컴패션(15억원), 굿네이버스(5억원), 한국교회봉사단(32억원) 등이다.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성, 예성, 기감, 예장 백석, 예장 고신, 구세군대한본영, 대한성공회, 등 교단별 모금액만도 61억2000만원이 넘는다. 참여 교회 수만도 1만1000여에 이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1월 발표한 '2008 한국의 종교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불교신자는 3958만명, 개신교 1192만명, 가톨릭 487만명이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불교신자는 1072만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 불교계의 모금활동이 저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불교는 자비를 강조한다. 부처님은 연기(緣起)이므로 나와 남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자타불이(自他不二),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가르침이다.

불교에서의 이웃돕기는 자비사상에 근간한 자비의 실천이다. 일본 학자 모리나가 마츠노부는 "불교복지 이념의 기본 원리는 자비이고, 이것은 <화엄경> <대반야경> <무량수경> <법화경> 등 경전에서 정신적 구제에 한정된 것만이 아닌 빈곤 구제에 대해서도 통용되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법화경>은 인간 복지는 본래 사회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며, 복지실현을 성스러운 행을 전개하는 인간상으로 묘사한 불교 사회복지의 근간으로 꼽힌다. <반야경>도 보시를 포함한 육바라밀이 대승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했다. <화엄경>은 보살의 이타행을 강조했다.

경전에서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불자들의 이웃돕기가 부족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불자의 불교 인식이 기복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은 "법회에서 부처님 찬탄과 공양만 하고 이웃돕기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여전히 많은 사찰의 법회에서 보살 · 자비정신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복전사상, 인과사상, 자비 등 부처님 가르침에는 이미 나눔에 대한 큰 가르침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 이상언 기자

3면으로 계속



부처님오신날 봉축준비 한창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의 사찰은 본격적으로 봉축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사진은 4월 8일 한마음선원 청년회원이 연등축제 때 선보일 '문수보살의 꽃길등'에 마지막 채색을 하고 있는 모습. 박재완 기자

"안상수 원내대표 정계 물러나라"

대중결사 · 불교자주실천본부 사퇴 촉구… 지방선거 낙선운동 검토

불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정치계 퇴진을 요구하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조계종 승가 결사체인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와 불교계 재가단체인 불교자주실천본부는 각각 안상수 원내대표의 공식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계의 자주성 회복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청정승가를위한대중결사(의장 진오, 이하 대중결사)는 4월 9일 한나라당사를 방문하고 '안상수 원내대표의 공직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서를 전달했다. 대중결사는 6일부터 안상수 원내대표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면담을 거부당했다.

이날 대중결사는 기자회견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의 사과 및 정계 퇴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종교편향 재발방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대중결사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의 조치가 없을 경우 신문광고와 현수막 게시를 통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6 · 2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펼칠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선 8일 재가불자 171인은 장충동 만해NGO센터에서 불교 자주성 수호와 조계종단 개혁 정신 회복을 위해 불교자주실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대중결사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에는 서동석 발기인 대표, 김영국 前 조계종 특보(조계종불교문화사업단 대외협력위원), 김윤길 임시대변인(동국대 교직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운동본부는 선언문에서 "현 상황을 오만한 정치권력의 불교 능멸과 자주성 침탈사태로 규정한다"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정계 은퇴 △현 정권의 종교편향과 불교자주성 훼손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참회 △종단 개혁정신 회복을 위한 종단 차원의 실천 지침 제시 등을 촉구했다.

이상언 기자

50년 전 부처님 전상서 공개

법정 스님 추모 열기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오늘날 한국불교가 종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대와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없는 종교라면 그것은 일고의 존재가치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우리 강토에 들어온 지 1600년! 오늘처럼 이렇게 병든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물을 것도 없이 제자 된 저희들 전체가 못난 탓입니다."

법정 스님이 1964년 10월 11, 18, 25일 3주간 '대한불교' 신문에 게재했던 글이다. 50여 년 전 글이지만 요즘 불교계에 내려치는 죽비 같다. 법정 스님이 쓴 '부처님 前上書'가 최근 공개되며 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처님전상서는 젊은 비구 법정 스님에게 들켜버린 불교계의 치부였다. 개혁운동가였던 부처님처럼 법정 스님은 불교 현실을 통탄함과 동시에 불교계의 자기 반성을 당부했다.

법정 스님은 제1편 전상서 서장에서 "불모의 황무지에 밝은 씨앗이라도 뿌려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에서 주변을 샅샅이 뒤져 헤치는 작업이라도 해야겠다. 말하자면 내일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앓고 있는 자신의 질환에 대한 진단 같은 작업"이라며 전상서를 쓰는 사유를 밝혔다.

스님은 불교 인재양성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했다. 법정 스님은 "당신의 혜명을 이어 받을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껏 입으로만 축문처럼 외워지고 있을 뿐 실제로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며 "'교육'이라는 말조차 무색하리만큼 전근대적인 유물로서 박물관 진열장으로나 들어가야 할 쓸모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현대적인 방법론도 구체적인 계획성도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40여 년이 지난 불교계 인재부족에 대한 우려와 다름이 없었다.

전상서 제2편에서 스님은 출가자들의 세속적 욕망, 기복적인 종교행위 등을 지적했다. 법정 스님은 출가자의 권력욕을 '황색의자'로 비유했다. 스님은 "삼보의 정재를 함부로 탕진하고 나아가서는 승려로서의 본분을 이탈한 채 사회적으로 불미스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를 그동안 드물지 않게 보아오고 있다"며 "기본재산이 좀 여유 있거나 수림이 우거진 절은 서로가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날뛰는 꼴을 우리는 불행하게도 많이 보아왔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전상서2편 '극락여행권'에서는 <다라니>를 찍어 돈을 받고 파는 소행, 기복적 불사행위 등의 비판으로 불교 내부의 자정을 주장했다. 스님은 끝에서 "(전상서를 쓴 것은) 우리들이 당면한 오늘의 현실을 제시하라는 뜻에서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아픈 곳을 향해 자학적인 사격을 가한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4월 7일에는 법정 스님 4재가 서울 성북구 길상사(주지 덕현)에서 봉행됐다. 법정 스님의 4재에 동참하기 위해 경주 기림사 신도들이 대형버스 4대를 대절했다. 전국 온 · 오프라인 서점 집계 결과에 따르면 4주 연속 스님의 책은 베스트셀러 10위권 내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 말까지 법정 스님의 저서를 출판하기로 한 만큼 법정 스님의 유작은 쉽게 순위권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언 기자

▶14 선지식-묘각 스님 ▶4 인터뷰-김종규 ▶19 문화-사찰음식 ▶9 현장-친구야 밥먹자

알림

본사 이전… 4월 17일 수송동으로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선도하는 현대불교신문이 4월 17일 사무실을 서울 수송동으로 이전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주소: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대표 전화: (02)2004-8200
팩스: (02)737-0697



"부처님진신사리만다라는 부처님이 이룩하신 위대한 깨달음과 진리와 기쁨이 충만한 바라밀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송광사 천지암 조실 활안스님 極大同 活眼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



부처님의 세계를 형상화한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를 모시는 것은 불상이나 탱화와 같이 부처님의 큰 지혜와 복덕을 가정에 모시는 것입니다.

건강 · 합격 · 취업 · 스트레스해소 여러분을 소원성취의 세계로 안내해드립니다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성화(聖畵)가 만다라이고,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 사리입니다.

만다라와 사리를 함께 표현한 것이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 입니다

이 만다라에는 가운데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주변에 가섭불, 목련존자, 사리불, 용수보살, 라훌라존자의 사리를 최첨단기법으로 정밀 재현해 만다라에 모셔져 있습니다.

만다라는 불길한 기운을 막아주고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우주의 신비로운 생기가 걸어놓은 곳에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 이런곳에 꼭 필요합니다!
· 수행정진하는 스님들의 서재와 다실
· 건강을 기원하는 가정과 각종 고시를 앞둔 수험생의 공부방
· 계약과 입찰이 많은 건설회사 대표의 집무실
· 우울증과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바라는 분
· 개업 선물, 승진 선물, 집들이 선물, 불사회향 선물

제품규격

A형 60Cm X 60Cm, 4Kg	B형 80Cm X 80Cm, 6Kg
C형 95Cm X 95Cm, 10Kg	D형 105Cm X 105Cm,12Kg

※부처님진신사리 만다라의 모든제품은 여러 큰스님들을 모시고 점안의식을 봉행한 생명력을 얻은 성물(聖物)입니다

불 · 교 · 미 · 디 · 어 · 연 · 구 · 소 바라밀다院

종오합장

제품가격문의

121-872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1-92번지 가원 201호
대표전화 02-3275-0108 핸드폰 010-2022-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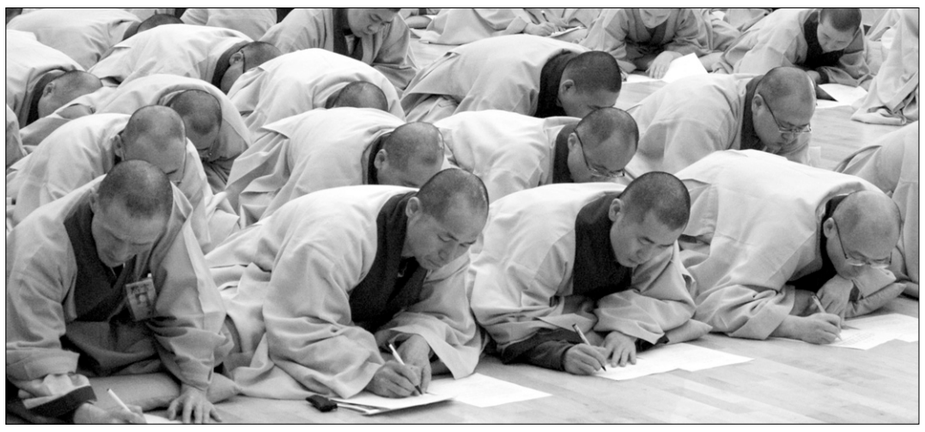
구족계 수계승 전원 '무소유' 서약

직지사 구족계 수계산림서 유언장 작성… 대가회 등 "종령 폐기하라"

조계종의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구족계 수계산림에 참여한 예비승 전원이 동참했다.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에서 3월 30일 입재한 조계종 제30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 참석한 예비승 276명(사미 155명, 식차마나니 121명)은 4월 8일 구족계 수지에 앞서 7일 '사유재산의 입적 후 종단 출연'을 서약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날 유언장 작성은 2007년 9월 개정된 승려법에 대한 시행령인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따라 이뤄졌다. 정식 승려가 되는 구족계 수계 전 예비승들의 유언장 작성은 무소유에 바탕한 승가공동체 정신을 계승 · 실천한다는 의미 외에 향후 종단 스님들의 참여를 확산시킬 계기가 될 전망이다.



4월 7일 김천 직지사에서 봉행된 조계종 제30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서 수계를 앞둔 예비승들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있다.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따르면, 종단 스님들은 △구족계 및 사미(니)계 수계 시 △각급 고시 응시와 법계 품수 시 △분한신고와 주지 품신 시 "입적할 경우 사유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의 유언장과 증여계약서 등을 총무원에 제출해야 한다.

유언장을 작성한 세광 스님(동화사)은 "출가수행자로서 부처님처럼 가볍고 청빈하게 살도록 종단이 제도를 마련해줘 고마웠다. 편안히 기쁜 마음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구족계 수계산림이 열린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도 4월 말까지인 분한신고 시한을 기점으로 5월 3일 제53회 1000일 기도 회향 · 입재법회에 60여 대중스님이 모여 승려 개인재산 종단 귀속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역 원로스님으로 구성된 대가회(회장 혜운 · 대구 여여선원장)와 대구 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 · 대구 대각사 주지)는 4월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언장을 제출하라는 종령은 율장과 청규를 위반한 것으로 부처님 정법이 아니다.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해당 종령은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interview

재산 종단 귀속은 당연한 일

구족계 수계산림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



"비구계는 정식 부처님 제자 되는 길입니다. 세속 욕망 버리고 불가에 몸 담은 스님으로서 그 재산을 불교 종단에 귀속시키겠다는 발원은 당연합니다."

조계종 제30회 구족계 수계산림 전계대화상 고산 스님(하동 쌍계사 조실 · 사진)은 4월 7일 김천 직지사 천불선원 동산당에서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죽어서 지고도 못가는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어디로 주겠냐"며 "스님이라면 염주 하나, 주장자 까지도 모두 절 집안에 남기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산 스님은 1975년 쌍계사 주지 때 시아버지가 창건한 절이 며느리에게 넘어간 일, 아들 · 딸에게 등기를 넘겨 종단이 아무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던 사례 등을 설명했다.

"스님이 가졌던 재산이면 불교 종단 상좌들이나 사제들에게 넘어가든지 불교종단에 계속 존속이 돼야지 왜 그것이 속가 아들딸이 있으면 숨겨 놓은 아들 · 딸에게로 넘어가고, 아니면 사돈 팔촌까지 나서서 친척이 달려들어서 다 뺏어가고 시아버지는 시주하는데 며느리가 와서 뺏어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스님은 "승려 개인명의 재산 종단 출연은 지관 前 총무원장 당시부터 추진됐다. 이를 뒤늦게 제33대 집행부에서 자승 총무원장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해서도 말했다. 이날 고산 스님은 비구계 수계를 앞둔 예비승들에게 "부처님 제자가 돼 시주 받은 것을 개인적으로 모아 집착하는 것은 지옥가겠다는 것과 같다.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성호 스님 '멸빈'

무단 사회법 제소 종무행정 거부 등 초심호계원, 1일 판결

총무원장 선거 당시 괴문서 관련 용의자로 의심 받은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관한 자격무효소송을 냈던 진안 금당사 성호 스님이 무단 사회법 제소와 종무행정 거부 등을 이유로 멸빈 됐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정념)은 4월 1일 제70차 초심호계원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심판부 개정에 앞서 성호 스님은 심리연기신청서를 접수시켰으나 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호 스님은 제33대 총무원장선거 당시 배포된 괴문서와 관련한 호법부의 방문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호법부 종무원 10여 명을 무단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종책특보단 구성

해외특별교구 · 불교연구소 설립 등 본격 추진

조계종이 중앙종회의원으로 구성된 해외특별 교구, 불교연구소 설립, 불교문화콘텐츠개발, 종단 전산화 담당 특보를 두고 이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은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해외특별교구담당에 무애 스님, 불교연구소설립 담당에 태연 스님, 불교문화콘텐츠개발 담당에 성효 스님, 종단 전산화 담당에 정범 스님을 종책특별보좌관(이하 종책특보)로 위촉했다. 또 건립중인 목동 국제선센터 주지에 현조 스님을 임명했다.



(왼쪽부터)종단 전산화 특보 정범 스님, 불교문화특보 성효 스님, 총무부장 영담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해외특별교구 특보 무애 스님, 불교연구소 설립 특보 태연 스님, 목동 국제선센터 주지 현조 스님.

총무원 관계자는 "이번 종책특보 위촉은 중앙종회의원 중 각각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스님들을 모신 것으로, 총무원장스님의 원활한 종무수행과 종책 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총무원이 중앙종회의원을 종책특보로 임명한 것과 관련 종무행정을 감시 · 비판 · 견제해야 할 중앙종회의원이 집행부 역할을 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펴낸 <종헌의 이해>에는 "중앙종회는 대의기관 · 입법기관 · 종정(宗政) 통제기관 ·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고 명시했다.

조동섭 기자

"묵언 수행한다는 안상수 상좌삼겠다"

명진 스님, 봉은사 특별법회서 총무원 측 공격 멈춰

불교단체 · 총무원 · 봉은사 토론회 준비 회의결과 '함구'

불교단체의 중재로 봉은사 관련 토론회가 준비 중인 가운데,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봉은사 직영법회 철회를 위한 네 번째 특별법회에서 천안함 침몰과 이에 따른 정치권 비판에 법문의 초점을 맞추고 총무원 측에 대한 공격성 발언은 멈췄다.

명진 스님은 "전우를 구하다 목숨을 잃은 故 한주호 준위 빈소에 찾아가 기념촬영을 한 것이 이 나라 정치인이고, 이 지역구 국회의원(공성진 의원)이다"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해 없도록 낱낱이 진실 밝히라' 고 했음에도 국방부 등이 이랬다저랬다, 오락가락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군대 안다녀온 군면제자라서 말 안 듣는 것이냐"며 꼬집었다.

명진 스님은 "지난번 내가 총무원장스님과 안상수 대표 회동 사실을 말했을 때 안상수 원내대표가 '그런 일 없다' '(명진 스님을) 본 일도 없다'고 거짓말해 일이 커진 것"이라며 "총무원도 나를 너무 만만히 봐 일이 이렇게 됐다. (안상수 의원이) '묵언수행한다'면서 말을 않는다던데 이러다 정말 불자가 될 것 같다. 묵언수행 잘해서 정말 정직한 사람돼서 돌아오면 내 상좌로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김영국 거사가 진실되게 기자회견까지 해 줬다. 용기 있는 행동, 양심에 거리낌 없는 행동하는 김영국 거사 같은 사람이 정치도 하고 해야 한다. 김영국 거사를 봉은사 식구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내가 무슨 봉은사를 지고 온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떠날 것이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신념을 위해 버티겠다. 한국 불교 새로운 희망의 꽃을 봉은사에서 피워야겠다는 원력이 회향되는 날까지 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님은 법회 후 다래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집안 일이라고 스님들 의견만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면서 "토론회에서 사부대중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가 봉은사 직영 전환이라면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불교단체가 제안한 봉은사 관련 토론회는 불교단체, 총무원, 봉은사 측 실무자 각 2인이 참석해 진행중이다. 실무자들은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수임기구 구성 등 토론회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으나, 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동화사 주지 선거

성문 · 선문 스님 출사표

4월 22일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성문 · 선문 스님의 각축이 예상된다.

동화사 한주 성문 스님은 9일 동화사 대웅전에서 고불식과 후보추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고송문도 스님들을 중심으로 봉행됐다.

같은 날, 중앙종회의원 선문 스님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리는 추대법회를 통해 주지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앞선 3월 10일 동화사 조실 진해 스님 등 원로급 스님 10여 명은 유시문을 통해 화계사 주지 법광 스님을 주지 후보로 추대했다.

한편, 주지 선거는 22일 산중총회에서 선거인단 투표로 치러진다.

조동섭 기자



귀의 삼보 하옵고,

경인년 새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정산 범어사는 1천 3백여년 전 의상스님께서 창건하신 이래 여러 대덕스님들이 주석하신 유서깊은 도량이자 전통적인 계법(戒法)을 전하는 계율 근본 도량이기도 합니다.

보살계란, 대승보살들이 받아 지니는 계율로써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를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보살이 그 현실사회에서 구현하여야 할 실천덕목이기도 합니다.

경전에 의하면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제110회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에 여러 불자님께서는 수희동참 하시어 무량한 복과 지혜를 닦고 생사해탈의 법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불기 2554년 좋은날

傳戒師 瑞海 興敎大和尙

입 재 : 불기 2554년 4월 26일 (음력 3월 13일)
회 향 : 불기 2554년 4월 28일 (음력 3월 15일)
] 3일간
장 소 : 범어사 금강계단 (보제루)

동 참 금 : 3만원 (₩ 30,000)
계좌번호 : 부산은행 241-01-001382-7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접 수 : 원 주 실 051) 508-3636, 3721
종 무 소 051) 508-3122~5 범어사 각 말사 (암)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 어 사** 주지 **정여** 합장

10억 VS 160억 차이는 전략의 유무

사건 발생 동시에 구호단 파견 · 모금 · 집행 병행하는 체계 갖춰야

1면에서 계속

#교계, 모금도 집행도 체계 無

불교계 모금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모금도 집행도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이티 구호기금에 160억원을 모은 개신교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 조직적인 모금 활동을 펼쳤다. 한국교회아이티연합이 그 예이다.

한국교회아이티연합은 개신교계가 아이티 지진 참사를 지원하기 위해 교단과 구호기관이 협력해 만든 조직체다. 용어부터 교회와 연합을 사용해 연대적 성격과 정서의 일치를 고려했다. 특히, 한국교회아이티연합은 사업체가 아닌 협의체로, 단일단체가 아닌 네트워크, 결의 기구가 아닌 논의기구, 상설기구가 아닌 한시기구라는 특징을 갖는다.

범개신교적 다자간 연대에 의한 협의체이지만 의사결정은 빨랐다. 모금만큼이나 집행도 빨랐다.

1 · 2월 모금된 금액을 갖고 2월 중순 월드비전 등 국제 구호단체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본부로 후원금을 보내 아이티 재건 사업에 쓰이게 했다. 각 교단들도 국내 구호단체에 후원금을 보내거나 교단별로 직접 현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시작했다. 연합단체들은 아이티 현지 교회협의회 등 교회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티를 도왔다.

특히, 한국교회연합봉사단이 아이티 지진 참사가 있은 1월 13일 구호팀을 즉시 파견하는 등 개신교계 단체들은 신속하게 행동해 왔다.

조계종은 2월 5~9일 아이티 의료구호봉사단을 현지에 파견한 것이 전부였고, 그나마 모금액에 대한 집행 내역은 없다.

'아름다운 동행' 박용희 팀장은 "기본 사업인 자비나눔에 집중하기 위해 아이티 구호기금 모금은 3월 31일로 종료했다. 아직 평가 및 계획 추진 단계일 뿐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팀장은 "기금사용과 관련해 아이티 현지의 사정을 지속적으로 파악 중이며 종단 내 NGO, 해외 구호활동 단체 등과 연계한 사업계획을 구상 중이다. 한꺼번에 지원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기획단계다.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과 동시에 구호단을 파견하고, 모금과 집행을 병행하는 개신교계와 '아름다운 동행'이 여실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모금 역시, 조계종의 '아름다운 동행'을 비롯해 태고종, 천태종이 각각 마련한 구호기금은 (아이티 구호 등) 사찰별로 목적을 갖고 모연한 금액이 아닌 시주함에 모아진 금액을 전용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름다운 동행'이 아이티 구호기금을 모연한 1~3월을 즈음해 총무원에서는 본 · 말사 주지 임명이 계속되면서, 전국 조계종 사찰의 '아름다운 동행' 후원이 종책 참여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있어 왔다.



3면으로 계속

조계종의 아이티 구호기금 마련 행사에서 한 불자가 기부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조계종의 '아름다운 동행', 태고종의 '나누우리', 천태종의 '나누며 하나되기' 등 각 종단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아이티 지진 참사 등 상황 발생 시에는 별도의 연합체를 구성해 범불교적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모금부터 집행까지 전략 필요

불교계 모금문화가 체계화되려면 후원 프로그램부터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조직된 이후 수해, 가뭄, 산불 등 국내외 재해 · 재난 지역에서 봉사 중이다.

이 단체는 SOS BANK, 생명의쌀 은행, 나눔마켓, 희망펀드, 염소은행 등을 운영해 기금을 마련 · 사용 중이다.

'생명의쌀 은행'은 추수감사절에 모인 1억원을 자본금으로 시작해 설립했다. 쌀이 없어 굶는 이들에게 쌀 대출 신청을 받는다. 특이한 점은 단순 대출에 그치지 않고 예금을 통해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예금 이자 및 원금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예금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라며 개인별 종교적 사명감에 바탕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이웃종교에서는 카드 등 마일리지 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개신교계에서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교리를 마케팅 기법에 적용시킨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불교계는 모금함 기부, 계좌 이체, ARS, 핸드폰 소액 결재 등 구태의연한 방식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름다운 동행'이 '비움으로 행복찾기'를 주제로 진행중인 자비연꽃 배지 달기, 1배 100원-108배 모금법회 등은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기념 배지와 저금통을 활용해 동참자의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절수행과 모금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호응이 크다.

교계에서는 모금 프로그램이 과거 기부함 보시, 계좌 이체 등과 같이 단방향에 머물러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소통의 개념을 모금 프로그램으로 확장시켜 모금단체와 후원인, 수혜자까지 소통시키는 쌍방향 프로그램을 계발 · 활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불교계 추산 4000만 불자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불자의 마인드 변화, 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새 프로그램 운영 등 불교계 모금문화에 새바람이 불어야 한다.

조동섭 · 이상언 기자

불교계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행사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은 2010년 '저소득 · 소외계층 희망더하기'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기금 조성 활동을 전개한다.

4월 14일 초하루 법회에는 전국 사찰에서 저소득 ? 소외계층 위한 1배 108배 모금법회가 봉행된다.

5월 1일 난치병어린이 돕기 1배-100원모금-3000배 정진기도가 조계사 등에서 개최된다. 이어 9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나눔 모금 생방송이 진행된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종회의원, 불자기업인, 정치인, 불자연예인 등이 참석한다.

한편, 아름다운 동행은 3월부터 자비연꽃 배지를 1개당 1000원에 배포하고 있다.

국민은행 02-3501-04-132682 / 농협 053-01-275564

ARS 1통당 2000원 060-700-0011

다양한 모금 프로그램 기획 · 활용하려면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는 모금전문가학교를 운영 중이다. 모금전문가학교는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이론과 기술, 현장모금 실습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모금의 가이드라인을 알려주고 있다.

모금전문가학교에서는 굿네이버스 온라인 등 다양한 모금 사례 분석을 시작으로 이미지 전략 커뮤니케이션, 모금 네트워크 활용, 미디어 전략, 기업의 사회적 공헌, 세법을 통한 모금 등 이론과 조별 기획서 및 제안서 작성 등 실습으로 구성된 강의를 진행 중이다. (02)2031-2113, www.makehope.org

---

죽비와 목탁

수화통역사 양성하자

최근 국립국어원과 한국농아인협회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용어의 수화(手話)를 표준화한 사전 3종을 발간했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종교활동에서 배제됐던 청각장애인을 비롯해 포교 · 선교에 진력해 온 종교단체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농아인협회 관계자는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를 표준화하지 않으면 이들은 끊임없이 정보습득 과정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화도 사투리가 있었다는 말이다. 세대 · 지역 · 교육수준별로 표현법이 달라 청각장애인 사이에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수화 사투리로 인해 법회 등 종교활동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불교수화사전> 편찬에 참여한 광림사 주지 해성 스님은 "기존 60여 개 뿐이었던 불교수화용어를 이번 사전 편찬을 계기로 1000여 개를 추가했다. 그동안 한정됐던 불교수화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불교수화사전>이 전국 사찰에 보급된다 할지라도 불교수화 표현들을 설명해줄 수화통역사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청각장애인이 한글을 배우는 것은 비장애인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김장경 前 원심회 회장도 "불교용어는 어려운 뜻이 많아 청각장애인도 사전을 보고 그대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이를 잘 전달할 수 화통역사가 필요한데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개신교, 가톨릭은 수화방송채널이 있을 정도로 수화포교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불교계는 어떠한가. 장애인포교를 위한 좋은 도구가 나왔는데도 이를 활용할 통역사가 부족해 고민하고 있다.

<불교수화사전>은 국립국어원이 편찬해 줬다. 손짓으로 부처님 법음을 전할 수화통역사 양성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설 때이다.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조계종 승가대 교과과정 개편

조계종 전국 승가대학의 교과과정이 동국대 선학과 · 중앙승가대 수준으로 한글화 · 현대화 · 표준화 된다. 또, 국내 · 외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스님들은 등록금 전액을 종비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 · 조계종 총무원장)은 4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검토했다. <표>

일각에서는 지방 승가대학에서 현대화된 교과목을 운영할 교수진 확보도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일선 승가대학에서는 전통강원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저항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4~6월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원 관계자는 "3월 30일 현재 승가교육 진흥기금은 약정 6억 4500만원, 모금액 3억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개편 이전	항 목	개편 이후
한문원전	교재형태	한글교재(학술 · 번역 · 개론서 등)
4개 과목	교과목수	8개 과목
서당식 교육	수업방식	현대적 교수법
사집 중심	교과내용	선종사, 선전 등 선학 관련 추가
실참 미반영	실참부분	이론 · 실참 병행하는 교과
응용 미반영	응용부분	현대적 연구성과 및 응용내용 추가
수업 참여	이수구분	학점제(성적 미달자 재수강)
25%(4년중 1년)	전체대비 수업비중	20%(졸업학점 120학점 경우)
사집반(2학년)에 집중	강의배치	난이도 따라 4년간 분산배치
불교계 현실적 수요와 무관한 교육진행	수요 민감도	불교계 현실적 수요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성



일주문



육군훈련소 법당건립기금 전달

한국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현성 스님은 3월 30일 열반재일을 맞아 조계종 군종교구에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건립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석종사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은 대전충청방문의해를 맞아 3월 8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사찰로 석종사를 지정받았다.



인드라망 정기법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4월 18일 서울 인드라망교육도량에서 보현행원10대품을 주제로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02)576-1886



원융화쟁회 정기총회 및 현판식

조계종 원융화쟁회 회장 만당 스님(조계종 기획국장)은 4월 16일 광주 무각사 불교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 (062)385-1336



세계불교태권도연맹 격파명인전

세계불교태권도연맹 총재 혜안 스님은 4월 24~25일 대전시청광장에서 '제1회 한국전통무예전국대회 격파명인전'을 개최한다. (031)964-5867



불교상담개발원 상담자 윤리 특강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담교 스님은 4월 17일 종로 통일빌딩 5층에서 상담자 윤리를 주제로 4월 월례 특강을 개최한다. (02)737-8803



불교상담 및 심리치료 포럼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4월 28일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에서 불교상담 및 심리치료 포럼을 개최한다. (02)719-2606



동국대 4·19 등산대회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4월 9일 북한산 일원에서 '4·19혁명 50주년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여성개발원 다문화 성지순례

이은영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4월 28일 다문화 가정 자녀 및 이주여성들이 함께하는 서울시티투어를 개최한다. (02)722-2110

■ 화촉

유철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홍보주임과 밀교신문 김보배 기자는 4월 17일 오후 1시 서울 강남 목화웨딩문화원 2층 르네상스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02)538-3300

interview

"불교포교, 문화지킴이 운동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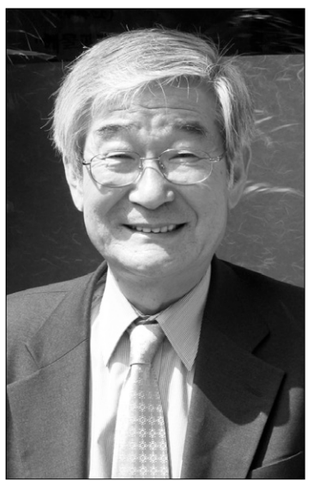
제2대 문화유산국민신탁 김종규 이사장

"지금 내 나이에 모든 걸 털어내지 못하고, 또 다시 이런 큰일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기만 합니다. 평생을 문화와 예술 속에서 살았는데, 남은 여생도 이 같은 일에 더욱 봉사하라는 뜻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2007년 출범했다. 유영구(KBO,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초대 이사장을 이어 김종규(사진) 삼성출판박물관 관장이 4월, 제2대 이사장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영어로 내셔널트러스트(National Trust)라는 뜻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국민에게 신탁한다'는 의미이다. 국민에게 신탁 받은 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사회운동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내셔널트러스운동이 1895년 시작돼, 100년이 넘는 동안 활발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한국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유영구 초대 이사장은 그런 면에서 기초적인 발판을 잘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런 활동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 이사장은 "우리문화재 중 80% 이상이 불교문화재이지만, 지키고 보존해야 할 불교문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한 것이 현실"이라며 "불교문화를 지키는 것이 바로 포교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문화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김종규 이사장은 독실한 불자이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불교계 문화유산의 허술한 관리와 실정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서울 부암동 현진건 생가도 무자비한 개발로 허무하게 헐려버린 사례입니다.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없어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현존하는 문화유산 중 후손들에게 필히 물려줘야 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재들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소유의 문화유산들은 재정적 문제 등으로 인해 관리가 부실하기 쉽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기부신탁문화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것이 김종규 이사장의 입장이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첫 사업으로 전남 보성여관의 복원을 진행했다. 보성여관은 한국에 드물게 남아있는 일본식 여관이다. 오랜 기간 동안 변화된 시대적 생활상과 문화를 가늠케 한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 근대사를 보여주는 가치있는 건축물이다. 이 외에도 문화유산국민신탁은 현재 울릉도 이영관 가옥, 경북 안동 번남 고택 관리 복원 등을 추진이다.

"독일에 가면 '괴테하우스'를 꼭 들려보듯이, 우리나라에도 지켜져야 될 문화유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정부차원에서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을 국민들 스스로가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곳입니다. 후손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돌려주기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종규 이사장은 "불교계에도 전통사찰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사찰이 꽤 있다"며 "대개 공찰이 아닌 사설사암이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이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문화유산국민신탁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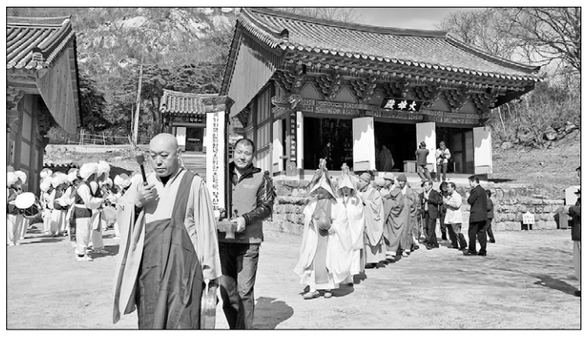
문화유산국민신탁(National Trust)은 전통계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래알처럼 흩어져 사라질 위기에 있는 개별문화유산을 우리 모두의 자산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운동이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민간, 기업, 단체 등이 소유한 문화유산에 대해 자발적인 보전 및 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지원한다.

보통 문화유산은 정부에서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하고 있지만, 개발과 함께 사라져가는 문화재들도 상당수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사라져 가는 문화유산은 물론, 100년 후의 문화적 가치를 내다보며 미래세대의 문화재를 만들고 가꾸어 나간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국민신탁(National Trust)을 기초로 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자발적인 보존관리 활동'이라는 점에서 시민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은 우리 세대가 다 써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자산'이다. 현 세대는 앞 세대에게 물려받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및 자산을 미래세대에게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영동 영국사, 은행나무 당산재



영국사 당산재는 1200년 수령의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온 지역민이 하나로 뭉치는 장이 됐다.

영동 영국사(주지 청원)는 4월 4일 제1회 은행나무 당산재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황룡사 종림 스님, 장인학 영동군 불교신도연합회장, 정구복 영동군수, 이용희 국회의원(자유선진당), 오병택 영동군의회 의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당산제는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은행목 당산재' 신위를 대웅전에서 모셔오는 의식으로 시작으로 소지법회, 살풀이굿이 이어졌다.

청원 스님은 "사라져가는 전통의식을 복원해 화합과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하고자 당산재를 지내게 됐다"고 말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대구경북 재가연대 회장 이·취임식



참여불교 대구경북 재가연대의 제2기 회장에 김주동(사진) 영진전문대 겸임교수가 취임했다.

참여불교 대구경북 재가연대는 4월 7일 대구 진각문화회관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을 비롯해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 유병선 조계종 대구시 신도회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김주동 신임회장은 취임사로 "교단과 사회의 청정한 변화와 봉사회향의 삶을 통해 참사람공동체의 창립 목적에 맞게 뿌려진 씨앗을 잘 가꾸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불교 대구경북 재가연대는 참여불교 재가연대의 지역 네트워크 조직으로 1997년 3월 창립해 박운식 초대회장이 이끌어 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구미 한마음수련원 개원

구미 한마음수련원(원장 지혜 법사)은 3월 28일 구미 선산마을에서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천안 만일사(주지 마가)와 '나누는 기쁨 공동체' 등 지역 불교계 사부대중 100여명이 동참했다. 한마음수련원은 경전공부, 수련, 수행 및 인생 상담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혜 법사는 "한국불교에 새로운 포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불교 신행의 꽃을 피우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054)482-0700

손법천 대구지사장

모바일 포교 모색 포교종책연찬회

스마트폰 100만 가입자 시대에 아이폰 등에서 모바일 포교를 모색하는 종책연찬회가 열린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정호)은 4월 1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모바일 포교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제37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송주실 포교연구실 주임이 '종단 모바일포교를 위한 기반과 지향'을, 박준규 SK솔루션사업팀 대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콘텐츠 전망'을, 김종민 이미지 홀딩스 대표가 '불교콘텐츠 Social Publishing(사회적 출판) 플랫폼'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문화부, 교육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 관계자가 참석해 모바일 포교 대안에 종단 실무자간 중지를 모으게 된다. 한편, 사회적 출판(Social Publishing)은 사회적·공익적으로 유익한 콘텐츠를 발굴·기획·출판하는 일련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조동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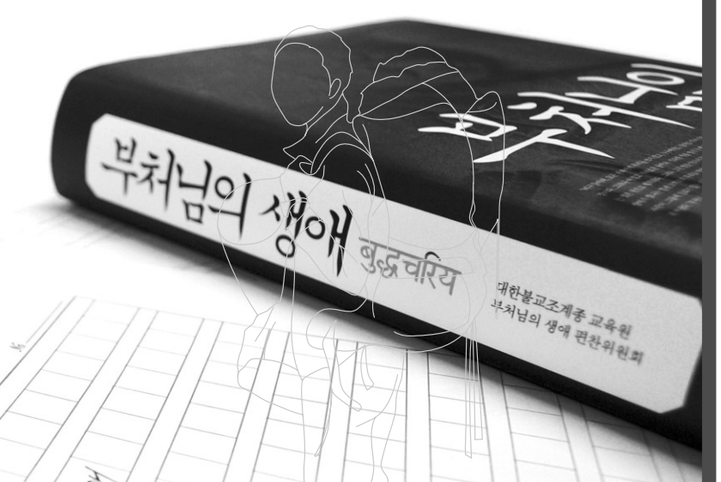
조계종출판사 TEL 02.733.6390 FAX 02.720.6019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독후감 대회

《부처님의 생애》 읽고 성지순례 떠나자!

응모요강

기간 2010년 3월 30일~5월 2일까지(마감당일 소인 유효)
대상 누구나 가능
요령 『부처님의 생애』를 읽고 독후감 제출, 분량은 원고지 15매 이상 30매 이하
보낼 곳 e-mail. inyeon@buddhism.or.kr
우편접수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전법회관 7층 조계종출판사
발표 2010년 5월 10일
조계종출판사 홈페이지 및 불교신문·법보신문 발표(시상식은 추후 공지)
부문 대상 1명 인도 불교성지순례 상품권
최우수상 1명 중국 불교성지순례 상품권
우수상 5명 템플스테이 상품권(1인 2매 국내) 20만원 상당
가작 10명 조계종출판사 도서 10만원 상당
단체상 조계종출판사 도서 100만원 상당



독후감,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이메일 접수 시 '제목란'에 이름을 밝혀 주십시오(예: 부처님의 생애 독후감 응모-홍길동). 가급적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고를 작성해주세요. • 응모 시 소속을 밝혀 주세요(재적사찰 및 학교) • 원고에는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 주세요. • 응모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접수는 등기로 발송해주시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봉투 겉에는 '부처님의 생애 독후감 응모'라고 써 주십시오.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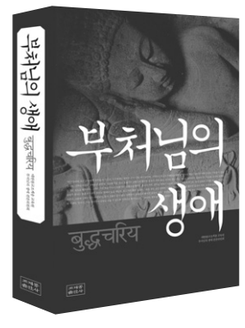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주관 조계종출판사 후원 불교신문·법보신문·불교방송·불교TV·중앙승가대학교·(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조계종출판사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크게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집대성하고 작게는 글자 한 자 한 자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인간적이면서 초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담아낸 《부처님의 생애》는 부처님의 삶을 바르게 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종단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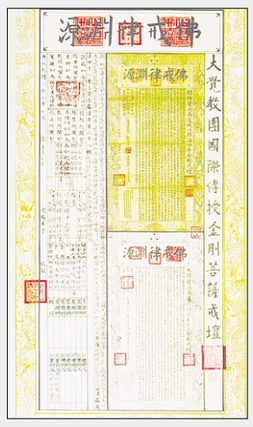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 집필
472쪽
24,000원
올컬러 양장본

2010년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

부처님의 생애

사천 불자 10선행 보살계 수계

대각교단, 용성 · 봉암 스님 유지 봉행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보살(菩薩)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많은 사찰에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3 · 1운동 33인 중 한 분인 용성 스님의 가르침을 기리는 대각교단(총재 석가산)은 6월 1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대연회장에서 '국제전수 금강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 수계법회의 특색은 중국, 대만, 스리랑카 등지의 고승들이 아사리(阿闍梨;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의 행위를 바르게 지도해 그 모범이 되는 스님)로 참석한다. 수계법회 봉행위원회(위원장 능인,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에 따르면, 오명 세계승가회 명예회장과 홍콩불교연합회장 각광 장로가 명예설계사, 前 해인사 주지 만웅 스님과 도성 스님이 설계사, 대만불교회 회장 정량 장로가 득도아사리를 맡는다.

이번 수계자들에게는 용성 스님이 율맥에 따라 '불계율연원첩(佛戒律淵源帖 · 사진)'을 수여한다. 이 계첩은 용성 스님이 1938년 부처님오신날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제자 봉암 대희(峯庵 大喜) 스님에게 친필로 전한 '불계율연원'을 재현한 것이다. 가로 72cm 세로 102cm 크기인 이 첩에는 한국불교의 율맥과 "보살 10중과 48계, 비구 250계를 전하니 받들어 지녀 끊이지 않게 하라"는 당부의 말이 쓰여 있다.

봉암대희 스님은 이번 법회의 전계사인 가산 스님의 은사로, 1928년 광주고보 4년 재학 중 항일동맹휴업을 이끌다 제적됐다. 이후 수행자의 길로 들어서 용성 스님의 법을 이었다. 정부는 2006년 봉암대희 스님의 독립정신을 기려 대통령 표창장을 추서했다.

가산 스님은 "이번 수계법회는 3 · 1운동 민족대표인 용성 스님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봉암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율맥를 잇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계는 위없는 보리의 근본이 되고, 부처님은 지혜의 등불이니 기쁜 마음으로 동참바란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번 법회에 대한 불교석가종, 임제선종, 운문종 등 14개 종단의 신도 4000여 명이 동참해 수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월 30일까지 수계신청을 받는다.(대구 접수처 053-325-5288, 325-0400, 부산 051-632-0108) **정성운 기자**

예토를 정토로 금강사에 주목

대중결사 아카데미… 창건 10년, 거제 종교 판도 바꾸다



4월 5일 거제 금강사에서 열린 대중결사 아카데미에서 금강사 주지 성원 스님이 발표하고 있다.

거제시는 경남 지역에서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불교세는 거창군 다음으로 약하다. 2005년 인구 통계에 의하면 거제시의 불교 인구는 6만1831명, 전체 인구의 31.97%로 가장 낮은 거창군(31.24%)과는 근소한 차이이다.

이런 가운데 창건 10여 년 만에 거제시 종교 지도를 바꿀 만한 변환를 이룬 사찰이 있어 눈길을 끈다.

거제 금강사(주지 성원)가 그 곳이다. 2001년 2월 창건한 금강사는 거제 불자들을 수준 높은 불자 교양인으로 변모시키며 교학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는 4월 5일 거제 금강사에서 '거제 금강사의 포교 활동과 경남지역 불교 현황'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주지 성원 스님은 주제발제 '거제 금강사의 포교 경험과 성과'에서 거제시의 불교세가 약했던 이유를 무속과 가까운 불교에 있다고 파악했다.

"2001년 처음 거제도에 왔을 때 지역불자의 80%가 불교를 무속과 결합된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불교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불교교양대학을 시작했고 이것이 주효했습니다."

스님은 불교 불모지인 거제에서 '교육포교'를 선언하고 2007년 불교교양대학 설립했다. 불교교양대학 강좌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쉬운 언어를 사용해 기초교리 강좌부터 차근히 시작했다. 알기 쉬운 불교 강좌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자 대중은 종교와 종단을 초월해 관심을 보였다. 3월 16일 개강한 제6기생까지 불교교양대학을 다녀간 학생만도 500여 명에 이른다.

성원 스님은 불교교양대학의 기초교리반 수강을 마친 불자들이 경전수행반으로 진학해 초기경전을 중심으로 교학 공부를 이어가도록 했다. 스님은 교학과 신행의 균형을 위해 일요가족법회를 월 1회 봉행, 온가족의 사찰 행사 참여로 소속감을 높이도록 했다.

성원 스님은 "교육중심 포교의 결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신도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신도들과 함께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의 어린이, 기초수급자 어린이 · 청소년들에게 원어민 영어, 문화체험,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사찰과 신도가 상생하는 교화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어린이 포교를 위해 거제 수월초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거제금강유치원 등에서 다도 · 만다라명상 · 바른먹거리 운동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부모의 불교 관심도도 높였다. 사회복지에도 힘썼다. 금강사는 창건 이래 지금까지 지역연계사업으로 경로당 무료급식, 다문화가정교실, 노인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성원 스님이 10여 년간 증명해 보인 불교교양대학 운영을 통해 확보된 젊은 신도들을 활용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봉사활동에 동참하는 선순환 구조의 포교 모델에 공감했다.

성원 스님은 "불자들이 '20~30년 동안 알아오던 불교보다 불교교양대학에서의 가르침과 실천에 더욱 뜻있다'고 말할 때 보람을 느꼈다"며 "거제를 불교세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6일 금강사는 거제시로부터 위탁받아 거제시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게 됐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충북 종교지도자도 4대강 '반대'

충북 종교인 사랑방, 17일 금강 순례

충북 종교지도자들이 정부의 4대강 개발을 반대하기로 결의했다.

충북 종교인 사랑방(방주 곽동철 신부)은 4월 6일 옥천 대성사에서 다섯 번째 모임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을 비롯해, 방주 곽동철 신부, 이근태 목사(보은 학림교회), 배영도 목사(보은 관기교회) 등 참가자들은 충북 4대강 시민감시단과 함께 4대강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충북 종교지도자들은 17일 금강발원지인 뜸봉샘과 금강유역의 보 설치 공사현장을 순례할 예정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용성 스님 다례재 "대각사상 선양"



장수 죽림정사(주지 법륜)는 4월 8일 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지도법사단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성 스님 70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주지 법륜 스님은 다례제에서 "용성 조사의 대각사상으로 빛나는 삶을 갖자"고 강조했다.

죽림정사는 이날 용성 스님의 포교 원력을 잇기 위해 조실 도문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저작 <변화 연기생활> 100만 권을 발간, 유포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100자 뉴스

조계종복지재단 다문화가족 후원금 전달식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4월 8일 종로 전법회관 복지재단 사무실에서 다문화가족 결연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다문화가족 30명이 참석한 이날 전달식에서는 총 20가구(80여 명)에 각 120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전달식에서 "이번 20가구 결연후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50가구로 지원으로 확대하겠다"며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해나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종평위 종교평화 블로거 양성 교육

사이버 공간의 정법 지킴이 종교평화 블로거를 양성하는 교육이 실시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공동위원장 혜경 · 손안식, 이하 종평위)는 4월 8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1인 미디어 시대 종교평화를 지키는 '종교평화 블로거 양성교육'을 5월 8일~7월 16일 12주간 매주 금요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종교평화 블로거 양성교육은 종교차별 근절과 종교평화 수호를 위한 불교계 내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블로그 운영에 필요한 글쓰기 △사진 편집 및 동영상 제작 △블로그 관리 방법 △이웃종교의 이해 △종교와 인권의 역사 △한국사회의 종교지형의 변화 등이 강의된다.

교육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메일(kirf@kirf.or.kr) 또는 팩스 ·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교육참가비는 10만원이나 성실히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전액 환급된다. (02)2011-1928

진각종 포항 이송정 등 사성지 성역화 사업

진각종이 종단 정체성 강화를 위한 사성지 성역화 사업에 본격 나선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은 4월 2일 회당 진각종조 최초설법지인 포항 이송정에서 초전법륜지 기념정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헌공불사에는 진각종 도흔 종인을 비롯해 성조 종의회 의장, 통리원장 혜정 정사, 교육원장 경정 정사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도흔 종인은 헌공불사에서 법어로 "이 곳은 심인법을 전하기 위해 최초로 설법을 하셨던 초발심의 땅"이라며 "진언행자들은 회당종조의 뜻을 이어받아 심인정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용맹정진하라"고 말했다.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오늘은 회당종조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기 위해 서원을 세우는 날"이라며 "참된 초전법륜의 가르침을 담는다면 모두가 삼라만상을 담는 넓은 심인의 그릇이 되자"고 말했다.

표충사 호국대성 사명성사 춘계향사 봉행

밀양 표충사(주지 재경)는 4월 17일 표충사당에서 호국대성 사명성사 춘계향사를 봉행한다. 올해로 제533회를 맞는 사명대사 향사는 불교와 유교의례가 공존하는 추모다례의식으로 밀양 민관이 270년 동안 함께 개최해 온 전통문화유산이다.

1부 추도식과 2부 불교 · 유교 향사, 3부 400주기 기념학술세미나 등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영남지역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조계종 주요스님들이 대거 참석한다. 또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해 불교계의 구국정신을 기릴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호국선양 및 독도지킴이 100만인 동참 서명운동도 선포된다.

주지 재경 스님은 "불살생계의 백척간두에서 나라의 명운과 더 많은 생명, 평화의 가치를 위해 한걸음 내딛은 스님들의 용기는 이 시대의 표상"이라며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의 현실 앞에 사명 대사 400주기를 맞아 우리는 그 업적과 정신을 잇기 위한 학술 구축과 다양한 문화 · 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전을 보고 듣고 배운다.
새로운 **휴대용 경전학습기 아이센스** 출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

그동안 불법을 공부하고 경전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예불 경전은 어려운 학문이나 뜻 모를 낱말로 되어있어 행자들이나 불자님들이 경전을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어려움은 간편한 휴대용 **아이센스 T-108학습기**가 출시되면서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학습방법인 책을 본다든지 녹음된 테이프를 듣는 방식을 벗어나 누구나 쉽게 조작하여 화면을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의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불경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에게 인기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들어온 불경에 '백천만겁난조우'라는 경구가 있다.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부처님 뵙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경전의 어려운 낱말과 뜻은 아이센스 학습기만 있으면 누구에게도 물어 볼 필요가 없다. 휴대가 간편하고 화면식별이 뚜렷해 많은 불자들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학습기에는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보현행원품, 화엄경약찬게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의 염송경이 수록되어 있고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49재편 염송의범도 수록되어 있다.

이제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가 출시되어 경전과 의식을 배우는 행자나 불자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불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연아카데미 02)701-5161~2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 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가야할 길 아직 많은 노인복지”

연꽃마을 설립 20주년 맞아
백일장 · 예술제 · 노인복지 심포지엄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이 파라밀병원에서 요양중인 한 스님을 위로하고 있다. 연꽃마을은 1월부터 스님들의 간병비를 후원금을 통해 전액 지원하고 있다.

불교계 대표 사회복지 법인중 하나인 연꽃마을이 8월 19일 설립 20주년을 맞는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효의 사회화’ 실천을 위해 무료노인요양원, 실비노인요양원, 전문노인요양원 등을 설립 ·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각종 복지관, 재가노인복지사업소 등을 위탁 경영해왔다.

연꽃마을의 20주년 기념행사는 6월 10일 ‘전국 노인 백일장’, 14일 ‘연꽃마을 예술제’, 9월 7일 ‘국제사회복지 심포지엄’, 10월 중 ‘20년사 반포식’ 등이 계획 돼있다.

지난 2000년 설립 10주년 때 “조촐한 기념행사라도 하자”는 직원들의 건의가 있었지만 각현 스님은 마다했다.

스님은 “그때는 한일이 없어 그냥 넘겼는데, 이제는 책임감 때문에서라도 몇 가지 기념행사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김재숙 연꽃마을 홍보담당은 “20주년 기념행사들은 지금까지 연꽃마을에 후원과 자원봉사를 통해 도움을 주신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시할 기회와 노인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9월에 열리는 국제 사회복지 심포지엄은 미국, 스웨덴, 러시아, 일본 등 복지전문가를 초청해 한국 노인복지의 현주소를 대내외적으로 조명하는 자리이다.

현재 연꽃마을은 40여 산하기관을 운영 중이다. 그중 파라밀요양원은 2009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99.61점(전국평균 76.91)을 받아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2009년부터 위탁운영중인 방배노인복지관도 시민평가에서 최우수 시설로 뽑혔다.

용인노인전문요양원 박왕호 관장은 “연꽃마을은 복지관 시설이나 이용자 인권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왔다. 20년간 역동적으로 도전한 결과 연꽃마을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계에서 우뚝 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 연꽃마을은 2010년부터 스님 간병비를 전액 지원하고 스님 가족들의 간병비를 50% 지원하는 등 승가 의료복지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저촉받기 때문에 현재 스님과 불자 200여 명의 정기후원금을 받아 파라밀병원과 파라밀요양원에서 요양중인 스님 다섯 명과 스님 가족 일곱 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각현 스님은 “평생 수행정진에 매진한 스님들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출가했지만 오히려 속가 가족들이 노스님들의 간병비를 부담하는 것을 보고 스님 간병비 부담을 줄여주고 싶었다”며 “미진하지만 연꽃마을이 마련한 의료복지 지원에 스님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갖고 수행에 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온 길보다는 가야할 길이 많은 것이 불교계 노인복지의 현실이다. 타 종교에 비해 후발 주자인 만큼 더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며 “아름다운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불교라는 테마가 좀 더 따뜻하게 지역 사회에 복지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이웃종교

“사랑은 상대의 공간이 돼주는 것”

성공회대 강연 지월 스님



기독교계 대학의 채플시간에 스님이 강단에 올라 화제가 됐다.

지월 스님(북한산 심곡암 부주지 · 사진)은 4월 7일 성공회대 성미카엘 예배당에서 220여 학생들에게 불교에 대해 강연했다.

지월 스님은 학생에게 눈을 감고 심장에 손을 대라고 말했다.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자유와 평화, 진실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스님의 발원과 함께 강연이 시작됐다.

지월 스님은 “불교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란 질문으로 시작하는 종교다”며 “2500년 전 부처님은 건강, 가족과의 갈등, 공허함, 외로움 등의 문제에 고민이 많았다. 여러분도 여러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나또한 출가 전 많은 고민을 했다. 부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코자 출가했고 깨달음을 이뤘다.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스님은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설명 한 후 학생들에게 명상의 맛도 보여줬다. 10분 정도의 명상이었지만 학생들의 눈망울이 맑아졌다.

스님은 욕심 · 화냄 · 집착 등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친구를 사귈 때 집착을 버리면 감정도 기쁨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해 왔다.

이에 스님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 안의 물질과 빈 공간이 나를 맞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들어서는 공간이 돼주는 것이다. 연애할 때 집착하면 상대방의 앞을 가로막게 된다”며 처방을 내렸다.

성공회대 이정구 교목실장은 “지월 스님의 강연에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젊을 때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접하는 것이 편견을 깨고 폭넓은 사고를 가능케 한다”며 “기독교 학교이지만 학생들의 종교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터키 이슬람 교인을 초청했고, 이번에는 스님을 모셨다. 다종교사회에서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선주 기자

“준고령자 사회기능 재창출”

종로노인복지관
어르신 창업아카데미
자격증반 · 실버밴드



조계종복지재단이 수탁운영하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준 고령자(만 55세 이상)의 사회 기능 재창출 지원 사업에 주력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 사진)은 4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0년 복지관 운영계획과 주요 사업 등을 발표했다.

복지관은 2010년 운영 목표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신노인문화 기반마련’로 삼았다. 이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인재마루 △실버밴드 △어르신 온라인창업아카데미 △죽음 준비 · 우울증 예방 상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매진한다.

인재마루는 준 고령자의 사회적 기능 재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자 · 일본어, 워드프로세서반 등의 자격증반과 PC수리 등의 전문 기술반, 미술, 동화연구, 손뜨개 등의 전문 봉사반으로 나눠 5월부터 순차적 교육을 진행한다.

관장 정관 스님은 “신노인문화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문화”라며 “어르신들의 교육이 복지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토대로 사회로 돌아가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정규교육을 받은 준 고령자(베이비붐세대)에게는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며 “복지관의 교육서비스를 통해 준 고령자가 전문 인력으로 거듭나 사회 환원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부터 실시중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 ‘효사랑’ 사업은 종로구청이 4억여 원을 지원한 복지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복지관 김해숙 부장은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 되고 안마서비스를 제공받는 많은 어르신들(하루 평균 120명)이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관은 실버밴드 단원 모집과 공연을 준비 중이다. 종로구청이 7700만원을 지원한 실버밴드사업을 통해 노인들은 활동비와 연습공간을 제공받는다. 실버밴드는 연말에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봉사 등을 진행한다.

5월 12일에는 2009년 화재로 몸살을 앓았던 낙산에 어린이들과 함께 들꽃 심기 체험학습과 대학교 축제와 연계한 바자회(5월 10일~14일)를, 21일에는 경북 상주 관음정사에서 도시 농촌 교류 프로그램 ‘징검다리’를 개최한다.

관음정사에서 열리는 징검다리는 복지관 어르신들의 공연, 안마 봉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예본안과 의료진의 의료봉사가 진행된다.

한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5400여 어르신이 복지관 회원으로 등록돼 하루 500여 명이 치매 · 건강 · 교육 · 취미 · 여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박선주 기자

어르신 봉제기업 운영

은평노인복지관, 스트레스 강좌

은평노인종합복지관(관장 고재용)은 어르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3월 26일 ‘스트레스 해소 수(手)교실’을 개강했다.

수(手)교실은 복지관 이용 20여 어르신이 3~12월 매달 넷째 주 금요일 북한산공원에서 스트레스 지수 검사, 손 체조, 자연재료를 이용한 만들기를 통해 진행된다.

은평노인복지관 백미영 홍보팀장은 “노인들이 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어르신들의 유연한 여가생활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관은 올해 보건복지가족부 · 서울시 · 은평구의 공동 지원으로 어르신 10명을 모집해 ‘시장형 봉제 사회적 기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봉제 사회적 기업은 봉제나 미싱 관련 업종에 종사했거나 봉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공동사업단을 꾸려 앞치마, 장갑, 시장바구니 등을 직접 만들고, 이를 판매해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참여 어르신은 매달 기본급 10만원과 사업 수익을 배분한 금액을 더해 급여를 받게 된다.

은평노인복지관은 이를 위해 만 65세 이상의 은평구 거주 어르신 가운데 봉제 기술자를 4월 중순까지 모집한다. (02)385-1351

박선주 기자

다문화 대안학교 최초 설립

한국사회 부적응으로 학교를 이탈하거나 재혼을 한 부모를 따라 중간에 입국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가 최초로 설립된다.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보선 · 김의정)는 4월 9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 사단법인 4월회(회장 유세희), 국회다문화포럼(대표 진영)과 협약식을 맺고, “중간 입국 자녀와 학교 이탈 자녀를 위한 ‘다문화 대안학교 (Rainbow Pre School)’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레인보우 프리 스쿨(Rainbow Pre School)은 부모님의 재혼 등으로 중간에 입국한 다문화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해 한국사회에 적응을 돕는 교육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들어서는 다문화 대안학교는 2011년 학생과 교사를 선발해 2012년 상반기에 개교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009)에 따르면 중간입국 자녀의 취학률은 초 · 중 · 고를 통틀어 52.9%에 불과한 형편이다.

하지만 중간 입국자들은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고, 다니더라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기결석을 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한국다문화센터는 레인보우 합창단 연습 공간이었던 명락사 ‘다문화 교육관’을 개조해 다문화 자녀의 학습지원과 중간입국 자녀를 위한 교육기능을 담당할 ‘다문화 공부방’을 5월에 개소한다.

다문화 공부방을 통해 서초동의 다문화대안학교가 개교하기 이전에 다문화 자녀의 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선주 기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卍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백파사상연구소 개소

선운사 부설, 백파 · 석전 · 학명 · 해안 스님 문집 발간

근현대 선지식인 백파 스님의 사상을 연구 · 선양할 고창 선운사 부설 백파사상연구소가 공식출범했다.

백파사상연구소(소장 선일 · 인천 법명사 주지)는 4월 5일 서울 종로구 현대 뜨레비앙 922호에서 개소식을 봉행했다.

연구소는 설파 · 백파 스님을 비롯해 그 문손인 석전 박한영 스님, 봉선사 운허 스님, 도선사 청담 스님, 대흥사 청우 스님 등 제자들의 업적과 사상 연구를 통해 한국불교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출범한 연구단체이다.

前 도선사 주지 현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선운사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모임을 마련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무슨 모임이든지 참석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좋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서로 돕고 문중끼리 하나가 되면 살아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은 축사에서 "물은 근원을 잘 보호하면 지류가 멀고 나무는 뿌리가 깊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다"며 "백파 문도가 더욱 발전해서 서로 노력하고 협력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백파 스님뿐만 아니라 석전 스님 등 훌륭한 선사들의 이념과 사상을 열심히 펼쳐 앞으로 연구소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4월 5일 백파사상연구소가 개소식 후 스님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행사에는 앞줄부터 현성 스님(가운데), 혜남 스님(오른쪽에서 두 번째), 일면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과 법만 스님(뒷줄 가운데), 선일 스님(혜남 스님 뒤) 등 문도 스님 20여 명이 참석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인사말에서 "2008년부터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오면서 선운사뿐만 아니라 백파 스님 문중 모두가 체계적으로 선양사업에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연구소를 마련됐다"며 "백파 문도가 일심으로 노력해 연구소가 확고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구소는 1차 사업으로 백파 · 석전 · 학명 · 해안 스님 문집 발간을, 2차 사업으로 선운사 · 내장사 · 내소사 · 구암사 사지 발간 및 자료수집을 진행한다. 현재 백파 스님 무집은 작업 완ㄹ 단계이며, 석전 스님 문집은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다. 또 단기사업으로 석전 스님의 행장과 사료와 논 · 소 · 초 발간 등을 통한 사상 정리를, 연중 사업으로 백파 스님 및 백파 문중 관련 내용을 비롯해 불교음악, 차문화, 선사상 등 불교사상과 문화 전반을 주제로 학술상 시상 및 학술회의, 학술세미나, 월례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석전 스님의 강맥을 운기 · 운허 · 고봉 · 태수 스님 등을 이은 월운 · 지관 · 종범 · 혜남 스님을 비롯해 다시 이를 전수받은 지안 · 법장 · 법인 · 효탄 스님 등과 불교학자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초대 연구소장 선일 스님은 "해방 후 백파 스님 계열의 한영 · 만암 · 청담 스님 등이 종정을 역임하면서 죽어가는 한국불교의 선과 교를 부흥시켰다"며 "백파 스님 등 선대조사의 수행과 사상을 연구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상반기 불교학계 교리에서 '치유'까지

다양한 분야서 연구결과 발표… '심리' 관련 세미나 많아 눈길

불교학계는 2010년 상반기 교리 · 역사 · 수행 · 미술 · 심리 등 다양한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학회가 4월 10~11일 전국불교학술대회와 세계석학들을 모시고 '순례'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보조사상연구원, 불교학연구회, 한국선학회 등 20여 단체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오른쪽 표]

불교교리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는 물론 심리학 · 명상 · 미술 등 응용불교 관련 주제로 한 학술대회도 다양하다.

한국명상치료학회가 4월 30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개최하는 '명상과 아동 · 청소년 교육'과 대한불교진흥원, 법보신문사가 4월 28일 공동주최하는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미학적 · 심리적 접근',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가 5월 29일 개최하는 '마음챙김, 수용 그리고 심신 치유' 세미나 등이 눈길을 끈다.

또한 불교미술사학회가 5월 7~8일 '문화센터 불교미술'을 주제로 불교문화 향유 현장의 상황을 조명한다.

이나은 기자

주 최	일 시	장 소	주 제	연락처
일본불교사연구소	4월 17일	동국대	〈스님과 그 제자〉(구라타 햐쿠조 지음)를 읽는다	(02)2260-3123
인도철학회	4월 23일	중앙승가대 본관	불전번역의 전통과 현대적 가치	(010)7377-4278
대원불교사상연구원	4월 26일	대원정사	정기학술대회	(02)754-1613
보조사상연구원	4월 17일	동국대 다향관	고승전의 선정과 삼매용어 분석	(02)733-5311
	5월 29일	동국대 다향관	진지염지와 이장이애설	
	6월 19일	동국대 다향관	조선시대 불교사(미확정)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4월 21일	금강대	제13차 콜로키움	(041)731-3610
	5월 19일	금강대	제14차 콜로키움	
	6월 19일	금강대	제15차 콜로키움	
대한불교진흥원	4월 28일	불교진흥원 법당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미학적 · 심리적 접근	(02)719-1855
한국동방학회	4월 30일	동방대학원대	미래 예측학의 과거와 현재	(02)3668-9800
불교교단사연구소	4월 30일	대구	불광사 승가의 지도자상과 한국불교 전통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5월 1일	세종대	정기발표학술대회	
불교학연구회 · 금강대	5월 7~8일	역사문화기념관	아뢰야식 개념의 형성과 변용	(031)985-1627
고려대장경연구소	5월 중	미정	고려초조대장경 조사완료 국내보고회	(02)923-7994
불교미술사학회	5월 7~8일	통도사	문화센터 불교미술	(02)3673-3426
동악미술사학회	5월 15일	동국대	불교미술	(02)2260-3722
한국종교교육학회	5월 28일	성공회대	대화방법과 종교교육	(02)2260-3835
한국불교심리치료학회	5월 29일	역사문화기념관	마음챙김, 수용 그리고 심신치유	(02)3442-6600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5월 27일	동국대	간화선과 철학과의 만남	(02)2260-8507
원각불교사상연구원	5월 29일	서울 관문사	천태수행과 관음신앙	(043)423-710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5월 29일	부산 안국불교대학	21세기 불교의 진로와 과제	(010)9166-2539
한국선학회	6월 11일	동국대	선과 현대사회	(010)2607-3373
한국교수불자연합회	6월 28~30일	영월 법흥사	조화로운 국토이용과 한국불교 명상의 세계화 전략	(02)720-6618
한국정토학회	7월 7일	부산 흥법사	제불(諸佛)정토	(02)581-3138

'대각사상' 12집

파주 보광사 조명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이 최근 〈대각사상(大覺思想)〉 제12집을 발간했다.

이번 호는 2009년 부처님 오신날 특집으로 용성 스님이 최초의 깨달음을 얻었던 보광사 도솔암에서 발표한 학술세미나 논문들로 구성됐다.

'백용성 스님과 보광사, 도솔암의 사적 재조명'을 주제로 황인규 교수(동국대)의 '파주 보광사의 역사와 위상', 보광 스님의 '백용성 스님의 초기 수행과 보광사, 도솔암의 인연', 김영덕 교수(위덕대)의 '육자대명왕진언 · 천수다라니 수행과 깨달음' 등 5편의 특집논문과 3편의 기고논문이 수록됐다.

이나은 기자

'법화경' 문헌 고증 · 현지 답사로 정리

쯔까모또 게이쇼 교수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번역본 출간

〈법화경〉은 부처님 직설이 아닌 대승논사가 픽션으로 쓴 비불설(非佛說) 창작 대승경전이다. 그래서 〈법화경〉의 여러 이야기들은 실재가 아닌 소설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법화경〉에는 대승불교의 주요한 사상적 토대가 담겨 있기에 〈법화경〉을 수지, 독송, 사경을 하는 불자들이 많다.

〈법화경〉은 산스크리트 원전이 현존하고 있으며, 한역도 3본이 전해진다. 한국에서는 신라 원효 스님이 〈법화경종요〉를 저술한 것을 비롯해,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도 〈법화경〉은 한문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언해본과 함께 가장 많이 간행됐다.

이런 가운데 〈법화경〉 성립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 문화적 상황을 문헌적 고증과 현지답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술서가 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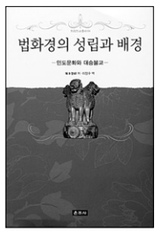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운주사刊)은 고고학 · 역사학 · 서지학(書誌學) 등 다방면에 특출한 쯔까모또 게이쇼 일본 동북대 명예교수가 그동안의 연구업적과 해박한 지식을 응축한 것을 이정수 동국대 외래교수가 번역한 것이다.

책은 〈법화경〉의 성립과 관련해 대승불교 뿐 아니라 인도고대문화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 학자 쯔까모또 게이쇼 교수는 이 문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에 걸친 방대한 문헌적 고증과 현지답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현재 28품으로 구성된 〈법화경〉이 성립하는 과정을 치밀한 논증과 추리력으로 구성했다.

쯔까모또 교수는 "〈법화경〉의 핵심사상은 '개회(開會)'다. 원효 스님의 화쟁(和諍)과 유사한 개념이다"며 "〈법화경〉 성립 당시 인도사회의 모든 종교와 문화까지 융합하고 통일하고 지향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쯔까모또 교수는 "현존 〈법화경〉은 여러 가지 형성 과정을 거쳐 성립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법화경 성립에 대한 역사를 다양한 문헌자료를 통해 제시하기도 했다.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쯔까모또 교수가 직접 답사한 사진과 문헌 연구, 비문 등 다양한 고증자료가 첨부됐다.

책은 12장으로 구성됐으며 △법화경 고찰의 새로운 시각 △불탑숭배의 법화경 △법화경의 담당자 △법화경의 창도와 전승 등이 수록됐다.

이나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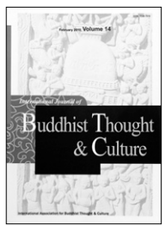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 한국불교' 등 11편 수록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Buddhist Thought & Culture' 발간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회장 송석구)가 2002년 창간한 국내 첫 영문불교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제14집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이에몬 아담스 교수(목포 가톨릭대)의 '일제 강점기 한국 불교의 복합적 진실(Korean Buddhism During the Colonial Period: A Complex Reality)', 타비밧 푼타리그비밧의 '경제 윤리학에 대한 불교도의 관점(Economic Ehics: A Buddhist Perspective)' 등 11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한편, 학회 영문학술지는 현재 세계의 주요 대학 도서관 150여 곳과 학술 기관, 국내 도서관과 주요 연구소 등에 보내지고 있다. 해외 유수대학의 도서관 20여 곳에서는 학술지를 정기구독하고 있다. 학술지에는 인도 미국 태국 대만 호주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스리랑카 등 11개국 학자가 편집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학회는 매년 2회 발간하고 있으며, 불교사상과 문화, 불교의 학제간 연구에 관련된 논문을 수록해 왔다. (02)2260-3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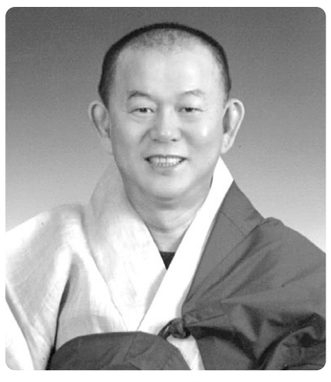


이나은 기자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종헌(정흥교) 큰스님 직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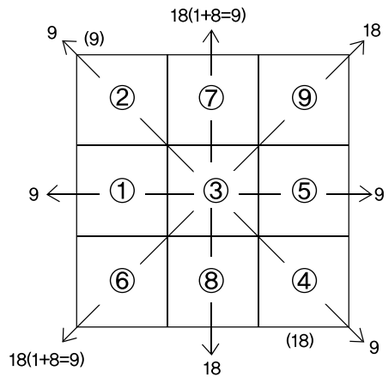


· 녹야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저자

강 의
월 · 수 · 금 : 오후 2시 – 5시
토 · 일 : 오후 1시 – 5시
직접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 · 포교당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 승려증소지자 특별장학금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방문시 교재판매. 홈페이지 참조 [구단구궁법] 41-2010-0004261
– www.psa.or.kr



구단구궁 원리도

학 과	기간 / 요일 / 시간	강 의 과 목	비 고
불 교 학 과	[기간 – 2년]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유식사상 · 화엄학 · 대승기신론 · 답사학	대학원과정 (학사이상)
불교교리학과	[기간 – 1년] 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사찰예절 · 근본교리 · 부처님생애 · 반야심경 · 포교방법론 · 초발심자경 · 천수경 · 금강경	포교사 법 사
장례지도학과	[기간 – 6개월] 월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관혼상제 · 장례식장경영론 · 장묘제도(법규) · 공중보건학 · 상담학 · 장례학 개론 · 불교상장례이해 · 실습	장례지도사 1,2급 불교장례지도사
다도예절학과	[기간 – 1년] 월요일 : 저녁 7시 – 9시	· 제다학(1,2,3,4) · 다구학 · 사찰다도법 · 차와선 · 차 문화사 · 차성분학	다도예절포교사
불교의식학과	[기간 – 6개월] 목요일 : 오전 14시 – 17시	· 기초 – 중급 – 고급 – 속성(실전) · 범음, 범패, 작법(바라 나비춤) · 종사이운 종사영만 점안의식 시달림 예수제	
풍 수 학 과	[기간 – 1년] 수요일 : 오전 10시 – 12시 저녁 7시 – 9시	· 생활풍수 · 음택/양택 · 풍수학 개론 · 패철 · 방위학 · 부동산풍수 · 풍수인테리어 · 지리오결	풍수지리사
명 리 학 과	[기간 – 6개월] 화, 목요일 오전 10시 – 12시 / 저녁 7시 – 9시	· 생활역학 · 작명 · 사주명리학 · 관상학 · 궁합 · 택일 · 실전명리	명리심리상담사
이수명리학과	[기간 – 8주] 일요일 : 오후 14시 – 19시	· 이수명리학 · 명리36금수 · 적천수 · 12운수 · 간파명문 · 오자술	이수명리학회 회원증
타 로 학 과	[기간 – 4주] 금요일 : 저녁 7시 – 9시	· 메이저아르카나–22장 · 마이너아르카나–56장 · 실전타로학	타로카드 마스터사(1급)
구단구궁학과	[기간 – 5일] 월,수,금 : 14시–17시 / 토,일 : 13시–17시	· 구단구궁학교재 · 비법교재	한국구단구궁학회회원증

14년전통 부산불교전법대학 – 구단구궁연구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12-23번지 ☎(051)467-4665 010-7725-1024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저는 중학생입니다. 음란사이트를 자주 들어가서 그런지 여자와 섹스를 하는 상상을 계속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음란사이트를 보면서도 그것을 부모님에게 들킬까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어쩌죠. 죽을까요?

A 심각하게 고민이 되겠지만, 성장의 한 과정입니다. 여자와 섹스 하는 상상도, 청소년기의 소년이 갖는 당연한 호기심이고 건강한 성장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음란사이트에서 보이는 섹스는 어떠신가요. 전혀 아름답지 않고 이상하지요? 대개의 음란물에 나타난 영상은 동물적인 암수의 교미만을 클로즈업 해줬거든요.

일반 청소년이 음란사이트를 접하고 나면 당연히 섹스와 관련된 생각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이해하고 나면 망상을 떨칠 수 있답니다.

섹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정신적인 교감의 일부로써 행해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황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답니다. 정제되고 아름다운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면의 성숙부터 완성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오는 미숙한 사랑은 건강하게 오래 지속되기가 힘들답니다.

인간의 결점 중 하나는 정신세계의 성숙보다 육체가 먼저 성숙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어른들의 우려도 바로 그런 점 때문입니다. 아직 사고력이나 판단력 등 정신은 물론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자극적이고 조작된 음란물로 인해 그릇된 사고와 가치관을 갖게 되고, 나아가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비하해 버리면 안되기 때문이지요.

내면이 충분히 갖추어진 후에 그런 것을 본다면 "아! 인간이 충분히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채 동물적인 욕망으로만 산다면, 이렇게 혐오스러울 수도 있겠구나!"하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자극적이던 장면도 그저 시큰둥하게 여겨지실 것입니다. 스스로 옳고 그름과 아름답고 추함의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정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사랑이 가득하고 인간의 향기가 물씬 넘치는 멋지고 훌륭한 사나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Q 불혹의 나이에 불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법사가 되려 했지만 학교에 와서 스님들도 보고 공부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출가생활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수행 하기 좋은 환경은 조계종에 갖춰져 있기에 그 쪽으로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 처자식과 주위 사람들께 씻지 못할 상처를 주고 이 나이에 조계종에 들어가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A 만학도시군요. 늦은 나이에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동기들과의 관계, 학업 및 가정에서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 경제를 비롯한 사회적 위치도 고민이 되겠습니다.

출가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무슨 이유로 출가를 하고 싶으신지 그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가에는 몸 출가, 마음 출가, 호심 출가(몸, 마음을 다하는 출가)가 있습니다. 세속에 살면서도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는 출가가 있고, 스님이 되어서도 세속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둘 다를 하는 출가가 있습니다. 출가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걸음을 어떻게 떼는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활시위가 팽팽할 때 화살이 과녁에 적중하는 것처럼, 출가를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때 성불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됩니다.

몸과 마음이 다 출가하기 위해서는 분명 내담자님의 동기 및 선택도 중요하지만, 가족들과 진솔한 대화를 충분히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동기를 충분히 고민해 보십시오. 이후 가족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 대화를 시도하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중학생인데 음란사이트에서 못 벗어나겠어요

성장의 한 과정이나 내면부터 성숙시켜야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환자들 돌보면 저절로 기도 돼

자비법당 탐방

경찰병원 법당 한마음봉사회



경찰병원 법당의 한마음봉사회는 매주 월 · 수 · 금요일에 봉사를 하고 있다. 수요일은 도서 대여 봉사가 있는 날이다. 한마음봉사회 회원들과 혜광 스님이 입원 중인 전 · 의경을 찾아가 책을 빌려주고 있다. 혜광 스님은 준비한 단주를 건네며 환자를 위로했다.

1993년 창립 한마음봉사회 불서 대여 등 법보시 봉사

혜광 · 무관 스님 20년 째 경찰병원 법당서 포교 진력

백의(白衣)를 곱게 차려입은 목련이 아름답다. 부처님 오신날을 한 달여 앞둔 4월 7일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국립경찰병원 법당을 찾았다.

국립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혜광 스님(서울 참나선원장)과 무관 스님은 한마음봉사회(회장 변윤연)와 1991년부터 20여 년간 기적과 절망 사이에서 숨 죽인 채 삶의 벼랑 끝에 선 환자들에게 자비의 손을 내밀고 있다.

매주 월 · 수 · 금요일은 한마음봉사회의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다. 한마음봉사회는 병원 곳곳에서 불교 정기간행물 및 도서 관리, 도서대여, 신행상담, 금요 정기법회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7일 오전도 여느 봉사일과 마찬가지로 혜광 스님과 봉사자들이 경찰병원 5층에 들어섰다. 입원실에는 많은 전 · 의경 환자들이 있었다.

577호 병실에서는 서울 제1기동단 15중대 소속 강형욱(21) 의경이 한마음봉사회가 준비한 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강 의경은 <차마고도>를 살펴보며 "불자 집안은 아니지만 불교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라'는 가르침이 참 와 닿더라고요"라고 말했다. 불교의 가르침을 흠모하는 강형욱 의경의 팔목에는 단주가 채워 있었다.

혜광 스님은 "기특하네. 불교 법당에도 자주 오렴. 어서 낫길 기원할게"라며 강 의경의 등을 쓰다 듬었다.

무관 스님은 "병원 생활이 무료한 환자들에게 불교 서적 등을 대여해 주면서 환자들을 포교하고 있다. 불교계 출판사의 책 보시가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말했다. 경찰병원 법당에서는 불교신행연구원의 법보시와 한마음봉사회 회원들의 회비로 책을 구입하고 있다.

1993년 창립된 한마음봉사회는 2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회원들은 작은 힘이지만 사회에 보태 큰 희망을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운 이들이다.

20여 년째 한마음봉사회를 이끌고 있는 변윤연 회장은 처음부터 불자는 아니었다. 송파구의 한 동사무소 봉사회에서 일하던 변 회장은 경찰병원으로 봉사 활동을 하러왔다가 불연(佛緣)을 맺었다. 혜광 스님의 가르침이 컸다. 1년 남짓 동사무소 봉사회 활동을 하던 변윤연 회장은 아예 경찰병원 법당에 한마음봉사회를 꾸리고 지금까지 활동 중이다.

변 회장 만큼이나 송현수, 신진자, 이영순, 임분순, 정진옥 보살 등 한마음봉사회원의 신심도 크다. 회원들은 "무엇을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부처님 법에 다가서면서 스님들을 뵙고, 내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며 "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마음봉사회의 뒤에는 병원 포교에 진력 중인 혜광 · 무관 스님의 든든한 후광이 있었다. 스님들은 봉사회 조직 · 운영을 도우며 포교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병원직원 불자회도 이끄는 무관 스님은 일과 신행의 일치를 언제나 강조한다. 2009년부터 매주 금요일 <법화경> 등을 강의하고 있다. 병원직원 불자회 법회에는 10여 병원직원 불자가 참여하고 있다.

무관 스님은 "가끔 시내에 나가면 아는 체를 하는 전 · 의경들이 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라며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병원 법당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처'이다. 아픈 환자들을 보면 일부러 마음먹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가 된다"고 말했다.

혜광 · 무관 스님, 한마음봉사회의 가장 큰 보람은 아픈 환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때라고 한다.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이뤘던 한 환자가 스님의 방문에 "덕분에 마음이 편해 졌어요"라며 단잠에 드는 경우도 있었다. 한 할머니 환자는 혜광 스님만 오면 못 떠나게 하려고 자신의 침대 옆에 꼭 있으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혜광 스님은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편하게 눈을 감는다"며 "아픈 사람, 고통 받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간절한 기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02)430-2555



4월 7일 아침 한마음봉사회 회원들이 환자들에게 대여해 줄 책을 정리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상 • 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친구야, 내가 차린 밥상 받아줘"



① JTS의 2010년 첫 번째 대북지원 '친구야, 밥 먹자~' 선적식이 4월 6일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법륜 스님,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화장, 배우 한지민을 비롯한 70여 명이 동참했다.

② 배우 한지민은 이날 "정말 가슴이 벅차고, 기쁜 날"이라고 행사소감을 밝혔다.

③ 동그라미유치원 원생들은 북한동포들과 함께 밥을 나눠 먹자는 의미로, 자신들이 직접 포장한 선물과 그림, 편지들을 '밥상 차리기' 퍼포먼스로 선보였다.

④ 원생들이 '밥상 차리기'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날 원생들은 "여우야~여우야~뭐하니~"라는 노래반주에 맞춰 깜찍한 율동도 선보였다.







JTS 2010 대북지원 행사 '친구야, 밥 먹자'

1만2000명에게 식량·생필품·교육기자재 지원

"종교 초월해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돕자"

배우 한지민 "북한동포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

"얘들아~밥 먹자~."

JTS(이사장 법륜)의 2010년 첫 번째 대북지원 행사인 '친구야, 밥 먹자~' 선적식이 있던 4월 6일, 북한 동포들과 함께 밥을 먹자는 염원의 합성소리가 인천항 부두에 울려 퍼졌다. 설레면서도, 감격이 묻어나오는 합성소리는 푸른 하늘빛과 더불어 희망을 쏘아 올리는 목소리였다.

방송인 김병조 씨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법륜 스님,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배우 한지민, 드라마작가 노희경, 방송인 모임 길벗과 동그라미 유치원 원생 및 협력업체와 후원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아직은 쌀쌀하게 느껴지는 바닷바람에도 아랑곳 않고, 이들의 얼굴에는 모두 자비의 미소가 번져있었다.

국제구호단체 JTS는 1997년부터 북한의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 특수학교에 식량, 생필품 등을 꾸준하게 지원을 해왔다. 그동안의 이 같은 노력은 평양시와 자강도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고아원, 양로원, 특수학교에 식량, 생필품, 교육기자재 등을 정기적 지원을 하기로 북한과 3월에 합의를 통해 결정됐다.

이날 법륜 스님은 "10여 년간 인도적 지원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결과, 북측과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성공했다"며 "현재 북한은 지난 몇 년 간 자연재해와 국제관계 악화, 최근 일어난 화폐개혁 등으로 인해 식량상황이 극도로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JTS는 "이번 '친구야 밥 먹자~' 행사에서, 1만2000여 명에게 정기적으로 식량, 생필품, 교육기자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물품은 3개월 분량의 식량과 생필품, 교육 기자재로 컨테이너 60개 분량이다. 컨테이너에는 밀가루 두유 이유식 전지부유 설탕 콩기름 소금 라면 초코파이 등 식량과 이불 빨래비누 세수비누 고무장갑 수건 양말 등 생필품, 신장계 체중계 공책 연필 스케치북 줄넘기 인형 등 교육기자재가 실렸다.

스님은 "JTS가 이번에 지원하는 50개 시설은,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며 "주로 지원대상이 아동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와 지원계획은 식량난으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북한 아동의 발육 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인도주의적 지원 규모와 방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명혁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은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고, 불교는 자비를 말한다. 종교를 초월해 우리 모두가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 같이 북한 동포를 돕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정치이데올로기를 벗어나 자비의 운동, 사랑의 운동이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행사소감을 밝혔다.

영남제부 배비룡 사장은 "앞으로 북한 어린이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JTS가 구원 활동을 하는데 적극지원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JTS홍보대사로 활동중인 배우 한지민은 "오늘은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찡한 날이다. 북한어린이 돕기 백만인 서명운동을 할 당시에만 해도, 이런 순간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며 "막상 현실이 되고보니, 너무 기쁘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한 동포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북한 어린이들에게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감격해 했다. 이런 행사에 흥을 북돋아 주기 위해 동그라미 유치원 원생들은 '친구야, 밥 먹자' 선물전달 퍼포먼스 축하공연을 선보였다. 동그라미 유치원은 그동안 꾸준히 북한동포돕기 모금활동을 이어왔다. 원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편지들을 '밥상 차리기' 퍼포먼스로 연출했다. 이어 "여우야~여우야~뭐하니~"라는 반주에, 북한 친구들과 함께 밥을 나눠먹자는 내용의 가사를 담아 깜찍한 율동을 함께 선보였다.

행사의 마지막은 북한동포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희망의 박터트리기가 진행됐다. 박터뜨리기는 '신명나눔'의 풍물공연과 모든 이들의 염원을 담은 함성소리로 인천항을 뜨겁게 달구웠다.

법륜 스님은 "이번 JTS의 구호활동을 계기로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러한 일이 많이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 관계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정부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대형 장엄등 카퍼레이드로 시선 집중

부산연등축제기획단 5월 7일 점등식 등 봉축 일정 확정… 13일 설명회

201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지역 봉축 점등식이 5월 7일 오후 6시 부산역 광장에서 봉행된다. 12일에는 부산시 일원에서 '대형 장엄등 카퍼레이드'가, 14~15일 광복동 일대에서는 '봉축 문화의 거리'가 운영된다.

2010년 부산연등축제기획단(단장 정각, 부산시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은 4월 6일 양정 불교연합회 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봉축 일정을 확정한 뒤, 13일 부산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부산연등축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정각 축제기획단장, 자인 부산시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및 각 사찰 봉축 실무자, 신행단체장 등 축제기획단 100여 명이 참석했다.

5월 7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봉축점등식'에는 용, 탑, 오색연등 및 각 사찰 출품 장엄등이 축제기간 동안 상설 전시된다. 이날 점등식에서는 소망성취를 기원하는 풍등 날리기와 탑돌이도 함께 열린다.

특히 올해는 '대형 장엄등 카퍼레이드'가 열려 불자는 물론 일반 대중들의 눈길도 사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카퍼레이드에는 대형 장엄물을 탑재한 차량 수십여 대가 부산시립의료원 앞 아시아로를 출발해 연산로터리→시청 앞→서면로터리→범냇골로터리→부산역→광복로→부산대학교병원→구덕운동장→남포로→롯데백화점 중앙점→부산역→문현로터리→KBS 부산홀→수영로터리→벡스코까지 퍼레이드를 펼친다.



기획단장 정각 스님과 기획단 소속 사찰 및 신행단체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여, 2010년 부산연등축제 세부일정을 최종 조율했다.

이어 14~15일 광복로 일방통행길 일대에서는 봉축 문화의 거리가 운영된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천막 설치를 자제해 인접상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대신 선서화전, 사진전, 거리예술가 즉석 무대 등을 설치·운영해 부산시민의 축제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봉축의 열기는 16일 오후 2시 부산 구덕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리는 어울림한마당으로 정점에 다다를 전망이다. 행사에는 염주만들기와 호국무예 마장마술 공연, 줄타기 공연팀 권원태의 줄타기 및 남사당 공연과 부산경제발전 및 불교중흥 발원 108배 참회기도 등 다채로운 신설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어 오후 5시 30분부터는 '봉축연합대법회' '풍등 날리기' '제등행진' 등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며 대중에게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툰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 예정이다.

제등행진 끝 지점인 부산역광장 특설무대에서는 오후 8시부터 '대동회향한마당'이 성대하게 치러진다. '국악 난타' '경기민요' '강강수월래' 등 신명나는 놀이마당이 꽃가루와 불꽃쇼, 분수쇼 등 현대적 특수효과와 만나 역대 최고의 부산연등축제를 선보인다.

정각 기획단장은 "이번 축제의 성패가 기획단의 손에 달려있는 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 867-0501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가치·가르침·실천' 사업계획 발표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단합법회 통해 친목 다져

부산지역 재가불자들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회장 설동근, 이하 본회)는 부산불교신도 단합법회를 봉행하고 친목을 다졌다.

행사는 4월 5일 부산 코모도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2010년 정기총회와 창립 3주년 기념법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창립 3주년 기념법회에 왼쪽부터 미룡사 회주 정각 스님,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해 주요 사업보고와 결산, 부의안건심의 중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감사 선출 논의 및 승인 절차가 이뤄졌다.

본회는 올 한해 사업계획을, 가치를 일컫는 '불', 가르침인 '법', 실천하는 '승'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재가불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행할 것을 강조했다. '불'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2010년 신년하례회, 사명대사 열반 400주년 기념사업, 연등축제와 팔관회의 활성화, 부산불교연합신문 창간, 명사초청강연 등 6개 사업을 선정했다. 또 바른 '법'을 배우기 위해 제2차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 연구비 지원 및 연합세미나 개최, 부산-아시아 불교국가 결연 사업, 회원 수첩 발간 등 4개 사업을 마련키로 했다. 바르게 실천하는 '승'으로 장애인과 하나 되는 부산불교, 제2회 명상 따라 걷는 부산불교, 바라밀클럽의 운영, 아시아 국가 지원, 나눔과 자비의 송년회 등 5개 사업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어, 창립 3주년 특별 부산불교신도연합대법회에는 정여 부산시불교연합회장(범어사 주지), 화산 부산시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삼광사 주지), 정각 부산시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미룡사 회주) 및 허남식 부산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이강덕 부산경찰청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치러졌다.

이번 법회에서 본회는 부산불교사회복지청소년기관협의회에 불교포교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설동근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장은 "앞으로 연합신도회는 세미나, 걷기대회 등을 통해 재가불자가 함께 하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 화합과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 861-8800

박지원 기자

천 번 명호 부르고 천 번 절하니…

공덕원 효선 스님 "천불천배 예참기도는 아상을 깨기 위해 마련"

부산 용호동의 한 작은 사찰에서 매일 1000번의 절과 1000번의 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올리는 간절한 참회기도가 확산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주지 효선, 동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 회장)은 4월 5일 20여 불자들이 천불천배 예참기도에 들어갔다.

3월 첫째주 월요일 과거겁 천불천배 예참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행한 이번 기도에는 현재겁 천명의 부처님 명호를 외며 천배 기도를 올렸다.

천불천배 예참기도는 과거겁 천불, 현재겁 천불, 미래겁 천불 등으로 나눠 천배씩 절을 하는 기도방법이다.

이번 기도는 절 기도를 통해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나아가 자신을 비우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 하심(下心)하는 자세를 배우기 위해 주지스님이 직접 제안했다.



공덕원 주지 효선 스님과 천불천배 예참기도에 동참한 신도들 모습.

주지 효선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절에 오래 다녀 알음알이는 늘었지만, 그와 함께 아상(我相) 역시 많아져 안타까웠다. 이번 천불천배 예참기도는 불자의 아상을 깨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절하는 주위 도반과의 협동심이다. 저마다의 염원을 세우고 기도를 올리지만, 절을 할 때는 부처님 명호에 맞춰 절을 하고 대중과 함께 앉고 일어는 동작과 숨소리까지 한마음이 돼야 신심이 더욱 돈독해진다. 절하는 순간만큼은 오직 기도에만 집중하되 일체의 생각을 비워야 한다.

스님은 "기도를 할 때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일어설 때 들이쉬고, 내려갈 때 숨을 내쉬며 부처님 명호를 외면 자연스레 건강에도 좋은 복식호흡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기도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저녁 7시 40분부터 공덕원 대법당에서 열리며, 처음 15분간 명상에 이어 2시간 20분간 천배기도를 올리게 된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051) 625-2253

박지원 기자

"진리의 등불 켜고 전법을 화두로"

부산불교신도회 2010 포교전진대법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4월 6일 부산불교신도회관에서 2010 포교 전진대법회의 4번째 법사로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이 법석에 올라 감로법문을 펼쳤다.

법사 목종 스님은 도심포교의 발원으로 전법도량을 비롯해 불교교양대학 및 경전 강좌, 문탠로드 테마명상법회, 신도자체봉사모임 사무량심회 등 다양한 신행프로그램으로 부산불교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1000여 명의 불자들이 법계정사 법당을 가득 메웠다.

특히 법문에 앞서 전 참가자들이 설문지를 통해 평소 궁금한 점이나 고민, 신행상담 등에 관한 질문을 응모한 뒤 목종 스님이 즉문즉답으로 명쾌한 해법을 들려줘 큰 호응을 얻었다.

목종 스님은 "모든 이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와 행복을 원한다. 이때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욕망이고 집착이다. 행복은 굳이 얻기 위해 노력하고 집착하지 않아도 태양이 온 세상을 두루 비추듯 진여의 불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욕망의 대상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설했다.

이에 앞서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처님께서는 대자대비의 설법과 함께 길에서 태어나 살고 깨달아, 45년간 맨발로 다니며 치열한 전법의 삶을 살았다"며 "200만 부산 불자 모두가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원력보살로 발심해, 전 사바세계가 불국정토가 되는 그 날까지 진리의 등불을 켜고 전법을 화두로 삼자"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부산여성불자회 16주년

13명에 장학금 전달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는 창립 16주년을 맞아 4월 7일 양정불교회관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13명의 불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현익채 금정중 교장은 "오늘의 장학금을 훗날 어떻게 사회에 회향할지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로 성장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 Shop
봄맞이 Sale 사은품 증정

죽육기 145,000
☎ 02)2004-8216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삼베훼이셜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사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항균·항독 삼베수세미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부처님 제자 자긍심 북돋을 '문패'

불교문패 달기 30만 개 보급 나서

"집에 불교문패 하나 다는 것이 그리 대수로운 일은 아니지만, 이 작은 문패라도 불자들의 집마다 달아, 이제는 우리가 부처님 제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의 불자들 집마다 불교문패를 달기 위한 30만개 보급 사업에 나선 불자가 있어 화제다. 일명 '에밀레 불자문패'로 알려진 문패보급 사업은 우리문화연구소 '보리울' 대표 이금지(법명 승만행)씨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





불교문패 보급 운동을 펼치는 이금지 우리문화연구소 대표(왼쪽). 새롭게 디자인 된 '에밀레 불자문패'는 조선대학교 고현 교수가 디자인했다. 전국 30여 불자가정에 보급될 불자문패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끈다.

이웃 종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문패를 만들어 사용해 오고 있으나 불교계는 그렇지 못해왔다. 조형틀로 만들어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한 불교문패 보급 사업은 반가운 소식이다. '맑고 향기롭게' 운영위원이기도 한 이 대표는 2008년 범불교도대회 참가 후, 불교인들이 하나가 돼 "우리의 것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대표는 "개발된 문패는 최고의 불교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해 혁신적인 불교디자인이 됨과 동시에 전통 한국불교를 알리고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패의 디자인은 맑고향기롭게 로고를 만든 고현(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가 했다.

고 교수는 "불자문패를 시작으로 디자인포교의 활성화와 진보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패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가장 쉽고 짧게 번역한 '진리를 따르며, 세상과 더불어'를 실천 주제로 문패에 새겨 넣고, 성덕대왕신종의 '공양비천상'을 이미지로 넣었다. 또 전체 문패 분위기를 고요하고 품위 있으면서 따뜻한 불교 이미지를 살리는데 주력했다.

불자문패는 각 사찰에 유통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가로 제공이 되며, 사찰이름 등을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돼있어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www.boriool.com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부처님 오신날 전북 봉축일정

전북지역 봉축행사가 4월 24일 기원탑 점등을 시작으로 5월 30일까지 다양한 봉축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봉축행사는 4월 24일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기원탑을 점등으로 시작된다. 이어 26일 35사단 세병호 일원에서는 군 불자들의 연등제가 봉행되고, 30일부터 5월 14일에는 전북 학생종합회관에서 전북의 불교문화유산 사진전이 개최된다. 5월 9, 12일에는 전주 덕진공원과 학생회관에서 각각 어린이 큰 잔치를 연다. 5월 15일에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전북불자 대규모 연등축제를 기점으로 봉축행사가 무르익는다. 5월 30일 금산사에서 청소년 모악축제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봉축행사 기간에는 양로원, 갱생원, 교도소등의 복지시설방문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전라북도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는 4월 3일 전북불교회관에서 봉축위원회를 열고 봉축위원장에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선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전북불교회관 재무과장 이영배

하심하며 신도들 돕는게 가장 큰 기쁨

전북불교회관은 전북불교의 일번지다.

전북의 도청소재지인 중심지에서 시외버스 · 고속버스 터미널의 중간에 위치해 기도와 수행을 하려는 불자들의 발길이 쉽게 닿는 곳이다. 지역적 위치만이 전북불교회관을 전북불교 수행 일번지로 만든 것은 아니다. 재무과장 이영배 거사(법명 보광 · 사진)의 남다른 신심이 일궈낸 숨은 불사였다.

전북불교회관 재무과장으로 집안 안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회관 곳곳에는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영배 전북불교회관 재무과장

전북불교회관 무료경로식당에 쓰일 보시 물품을 푸드뱅크를 통해 챙기는 일도, 자원봉사자들과 운전불자회를 중심으로 하루 도시락 100여 개로 100여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전북불교회관는 법회를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다. 늘 지역의 세대별, 계층별, 신행단체들의 크고 작은 법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매주 일요법회는 물론 어린이 법회, 청년회 법회, 대불련 법회, 운전 불자들의 법회, 군장병들을 위한 법회 등 각급 신행단체들의 법회를 위해 우편물 발송, 메일발송,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발송 등 법회 준비도 빼놓을 수 없는 일과 중 하나다. 스님과 신도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중하나다. 때문에 작년 1년 동안은 쉬는 날이 2~3일에 불과할 정도라고.

누구보다 바쁘기로 소문난 이 거사는 바쁘다고 찡그리거나 성내지 않는다. 편안한 미소로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돕는 전북을 대표하는 유마거사다. 그 비법이라도 있을까?

"하심으로 불자들을 대하다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내 부모님 모시듯 대하고 나를 낮추는 자세는 종무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자세를 낮추어 신도들이 신행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허허 웃으며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하심의 마음이 활짝 꽃피었다.

이영배 거사는 집안 대대로 김제 금산사와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다. 이 거사의 고모님은 전북불교회관 부지를 보시할 정도로 신심이 깊었고, 이러한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제자로 성장했다. 그 속에서 배운 하심의 자세는 가족 간의 화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08년부터 전북불교회관에 상근하기 시작한 이영배 거사는 2002년 화엄불교대학의 학생처장 소임을 맡아 불자들의 교리공부를 도우면서 화엄불교대학 동문들 관리까지 하고 있다. 경허 · 만공 · 한영 · 용성 스님 등 근 · 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을 배출한 전북지역에서 전북불교회관은 불교의 명성을 살리고 이어가기 위한 곳이다. 하지만 이영배 거사는 명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불자들의 신행활동 지도, 교육, 복지활동, 포교활동을 도와 21세기 선지식 배출도 꿈꾸고 있다. 그가 맡은 소임의 끝은 없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심하며 묵묵히 일하는 이영배 거사는 부처님 빛을 따르는 그림자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3회 보문복지회 후원의 밤 행사

입장 수입금과 행사비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음악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여수지역 최대의 복지단체를 이끌고 있는 보문복지회는 4월 8일 20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보문복지회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가수 장윤정, 박현빈, 장미화, 연기자 강부자가 출연했다. 장애우와 어린이와 노인 등 모두가 한 자리에 하기 위해 각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지원을 하고, 무료차 등을 제공해 행사 취지가 빛을 발하기도 했다.

진옥 스님은 인사말에서 "나눔이란 서로를 부자로 만드는 일이며, 행복을 만드는 일이다. 여러분의 보시는 따스한 마음과 함께 이웃에게 전달돼 행복의 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출연한 강부자씨는 "남을 돕는 일에 불자들이 나서서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새만금 성공 및 무사고 기원대재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천안함 침몰 천도재 함께 치뤄

세상에서 가장 긴 33km 새만금 방조제 개통을 앞두고 공사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생명의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재가 봉행됐다.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종무원(원장 일허)은 4월 4일 새만금 방조제 시작점인 부안 새만금 가력배수갑문에서 '새만금 사업 성공 및 일만 점등 무사고 안전 대기원재'를 개최했다.

이날 기원대재에는 서해 백령도 천안함 침몰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해군장병들의 빠른 회복과 실종 장병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구조작업 도중 순직한 故 한주호 준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을 비롯해 승정원장 남파 스님, 봉행위원장 향산 스님,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 유윤순 태고종 전국 신도회장 등 3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태고종 전북특별교구 종무원은 4월 4일 새만금 가력배수갑문에서 새만금 사업의 원만한 회향을 위한 기원대재를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인드라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판소리, 경기민요, 사물놀이, 살풀이, 회심곡 등 식전행사에 이어 법요식, 기원대재가 진행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새만금 사업이 국가 경제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뜻 깊은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태고종 전북특별교구종무원장 일허 스님은 "과학문명의 발달은 소중한 생명의 위협을 불러왔다. 천도재를 통해 죽어간 무수한 미물의 환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승정원장 남파 스님은 법어에서 "성스러운 바다가 육지로 변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터전으로 친환경 도시의 불국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송광사 고문헌 디지털 작업 완료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불경 서적 등 디지털 자료화를 마친 고문헌 321종 422책이 전남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lib.jnu.ac.kr)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전남대학교 도서관(관장 이정애 교수)은 송광사 소장 고문헌 798종 1531책 가운데 1254년 분사도감(分司都監)에서 간행한 '천태은사한산습득시집(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 목판본)', 1411년 고창현 문수사(文殊寺)에서 간행한 대전화상주심경(大顚和尙注心經, 목판본) 등 문화, 학술적 가치가 높은 귀중본 321종 422책의 원문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마쳤다고 4월 8일 밝혔다.

전남대학교 도서관 심명섭 과장은 "1차 DB 작업에 7000여 만원의 예산이 들었지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자료가 많았다"며 "6월경 송광사박물관, 영광불갑사 소장 고문서 등의 DB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미륵을 기다리다 미륵이 되고

소설 '장길산'의 대단원
❽ 화순 운주사(雲住寺)

"미륵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있어야지. 어찌 알고 새긴단 말인가."

"여보게, 미륵님을 못 보았다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미륵님이란 자네 아닌가. 자네 모양과 똑같은 이가 미륵님일세." 유민들은 다시 정신없이 돌을 쪼아 미륵상을 세웠다.

운주사는 황석영(黃晳暎 · 1943~)의 소설 '장길산'에서 대단원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이다. 소설은 천민 장길산을 비롯한 민중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리고 있다. 천불산 계곡에 자리한 운주사는 도선국사가 미륵불의 도래를 이루기 위해 천불천탑을 세운 뒤 창건했다고 전해오는 절인데, 소설 속에서는 세상 끝으로 밀려난 백성들이 미륵의 시대를 꿈꾸며 역시 천불천탑을 세우고 만든 절이다.

일주문 옆길로 개나리가 피어있다. 일주문을 버리고 개나리를 따라 걸었다. 도선국사의 운주사를 버리고 '장길산'의 운주사로 들어갔다.

때는 조선 숙종. 천민 장길산을 비롯한 힘없는 백성들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세상 밖으로 밀려난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것은 신앙이었고, 그 신앙은 고단한 입에서 고단한 입으로 전해오던 '미륵'이었다. 이제 그 신앙은 더 이상 고단한 입을 찾아 떠도는 미완의 신앙이 아니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협곡 속에 숨어 살면서 미륵님의 계시를 들었다. 이 골짜기 안에 천불천탑을 하룻밤 사이에 세우면 수도가 이곳으로 옮겨온다는 것이었다. 도읍지가 바뀌는 세상, 그들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곳에 서울을 세우리라는 미륵님께 서원합니다. 여기가 염부제(閻浮提)가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천민이여 모여라. 모여서 천불천탑을 만들자." 그들은 황토뿐인 야산에서 바위를 찾으려고 산등성이를 넘어가고 들판을 달리고 강을 건넜다. 그들이 세운 절의 이름은 '운주사(運舟寺)'였다. 젊은 유민이 물었다. "할아버지, 절 이름이 어째서 운주사요?" "배를 부린다는 뜻이란다. 새로운 우리 세상이 바로 배가 되는 게야. 미륵님 세상이 배가 된다. 우리 중생이 물이 되어 고이면 배가 떠서 나아가게 되는 게야."

도량에는 봄에 피어야 할 꽃들이 모두 피어있었다. 벚꽃까지 머리를 내밀었고, 바위틈엔 듬성듬성 진달래까지 붙어있었다. 도량엔 꽃들이 가득했지만 아쉽게도 천불천탑은 모두 다 남아있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선이 닿는 곳마다 불상이 있었고, 발길 머무는 곳마다 석탑이 있었다. 불상들의 얼굴엔 못 다한 이야기가 가득했고, 길어진 석탑들의 그림자 끝엔 돌을 쪼던 백성들의 손길이 묻어있었다. 불사바위로 오르는 길에 작은 불상이 숨은 그림처럼 붙어있었다. 아이의 모습이다. 아이는 미륵의 세상을 보지 못했다. 어린 미륵불은 멀리 와불이 누워있는 산마루를 바라보고 있었다.

"닭이 울었다!" 거짓말이었다. 누워있던 마지막 미륵을 밀어 올리려던 사람들도 힘없이 주저앉아버렸다. 미륵상은 비탈 저 밑에 처박혀서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서로 미륵상이 되기 위해 우뚝우뚝 새까맣게 몰려오던 사방의 바위들도 소문을 듣고는 그 자리에 넘어져버렸다. 그렇지만 넘어지면서도 머리는 계곡 쪽을 향하였으니 먼 훗날에라도 와불이 바로 일어서면 다시 미륵이 되기 위해서였다. 바위들은 민병의 쓰러진 시체처럼 들판과 야산의 곳곳에 넘어져서 오랜 비바람에 씻겼다. 그 뒤부터 운주사의 대문을 닫을 적마다 서울 장안에서 우지끈대는 우렛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서울이 옮겨지지 않은 것을 한하여 그런 소리가 들린 것이다. 그래서 대문을 떼어 영산강으로 떠나보냈다. 운주사는 그 뒤로부터 운주사(雲住寺)가 되었으며, 이는 물이 차오르지 않아 세상이 머물러버렸던 까닭이라 하였다.

장길산은 역사 속에서도 소설 속에서도 더 이상 찾을 수 없이 실종되고 만다. 어디로 갔을까. 끝없이 고단하기만 했던 그 날의 백성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그랬다. 모두 그곳에 있었다. 미륵을 기다리다 모두 미륵이 되었다. 먼 훗날 산마루에 누워있는 와불이 일어서고 사방에 넘어졌던 바위들이 다시 일어나 천불천탑을 세우는 날, 운주사(雲住寺)는 다시 운주사(運舟寺)가 될 것이다.

오늘도 산마루의 와불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운주사를 찾는다면 미륵의 마음으로 갈 일이다. 그 곳엔 미륵만이 있기 때문이다.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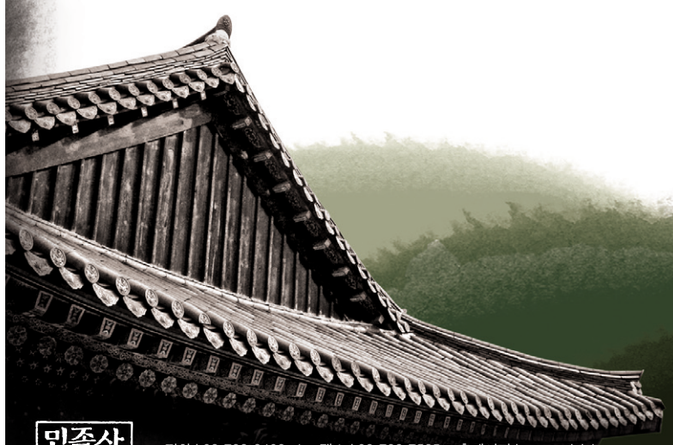


도선국사의 운주사든 장길산의 운주사든 그 곳은 이미 미륵의 세상이다.

운주사 가는 길

광주에서 너릿재터널을 지나 화순읍까지 온 후 화순중앙병원에서 능주까지 간 다음 822번 지방도로를 따라 도곡 효산리를 거쳐 평리사거리에서 장마을, 도암면소재지에 이르고, 도암 삼거리에서 월전마을, 용강저수지를 지나 우회전하면 운주사다.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 기도 백팔번뇌, 옴 마니 반메 훔,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판 양장 / 352쪽 / 값9,500원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불교의 기초에서 깨달음까지! 쉽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28쪽 / 값9,500원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04쪽 / 값9,500원



왕초보, 禪박사 되다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어떻게 참구하는가? 화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판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판 양장 / 278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민족사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1>

도는 세상사의 근원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도(道)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어딜 감히, 감히…"

問 如何是道 師云 不敢不敢

도에 대해 묻는가, 역대로 도의 본질에 대해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도는 깊고 은밀하기 때문이다. 은밀하게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만사(萬事)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萬物)에 들어있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도는 세상사의 근원인 것이다.

도는 이렇게 만사에 나타나지 않아 볼 수 없고, 인위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도 없다. 도는 붙들려하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도를 어떻게 말로 설명할 것인가. 도를 알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다. 그것은 깨달음이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세상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듯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오면 세상사가 한 눈에 들어온다. 그때서야 비로소 도가 보인다.

한 스님이 물었다.
"현중의 현(玄中玄)은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얼마나 오래 현(玄)하였는가?"
그 스님이 답했다.
"오래 되었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을 만난 것이 다행이지, 현(玄)이 이 못난이를 죽일 뻔했구나."

問 如何是玄中玄 師云 玄來多少時也 學云玄來久矣 師云 賴遇老僧泊合 玄殺這屢生

현중의 현은 깊은 경계 중에서도 깊은 경계를 말한다. 도를 닦는 사람들은 항상 깊은 경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질문한 학승도 오랫동안 깊은 경계에 들어간 사람이다. 예를 들어, 오매일여(寤寐一如)나 숙면일여(熟眠一如)까지 들어가 꿈속에서도 자신의 의지가 살아있다면 상당 부분 무의식을 극복한 경계이다.

이렇게 깊이 들어간 사람은 '이 보다 더 깊은 경지는 없는가?' 하고 궁금해 한다. 그런데 조주 스님은 현의 경계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여기서도 깊은 경계에 들어간 학인을 못난이(屢生)라고 비웃고 있다. 현에 빠지면 현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주 스님은 이외에도 <조주록>에서 여러 번 현(玄)을 추구하는 자들을 비판했다.

조주는 왜 현을 부정하는가? 현의 경계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상사가 도이다. 여기서 유혹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높은 경계이다.

그것을 모르고 평생 현에 빠져있다면 현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학인의 자기(自己)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뜰 앞의 잣나무를 보아라."

問 如何是學人自己 師云 還見庭前柏樹子

학인의 '자기'는 학인의 '주인공'을 말한다. 흔히 자성, 본성 등으로 표현한다. 학인이 자기의 주인공을 묻자 조주 스님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뜰 앞의 잣나무를 보아라" 라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주인공을 알게 해주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도 화두 같지만 화두가 아니다. 그러나 화두처럼 곰곰이 생각해보면 곧 알 수 있다. 힌트를 준다면 잣나무에 절대 뜻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잣나무가 등장한 것은 조주 스님이 기거하는 방의 뜰 앞에 잣나무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거기에 단풍나무가 있었다면 "저 단풍나무를 보아라"고 말했을 것이다. 독자들이 생각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해설하지 않겠다. 독자들이 한번 풀어보기 바란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화두가 아니다.

현에 빠지면 현이 사람을 죽인다

땅 위에 스승과 제자는 반드시 존재

조주 스님이 상당해 설법했다.
"오래 참선해 온 납자라면 진실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고금을 통달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 신참자라면 반드시 이치를 궁구해 얻어야 한다. 그대들은 300, 500 혹은 1000명의 대중을 쫓아가거나, 비구 · 비구니에 치우치지 말라. 총림의 주지라고 자칭하면서 막상 불법에 대해 물으면 마치 모래를 삶아 밥을 짓는 것처럼 한마디 말도 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도리어 남은 그르고 나는 옳다고 말하면서 얼굴에 열을 올리니 세간 사람들이 점잖지 못한 막말을 하는 것이다. 진실로 불법의 진수를 밝히려는 뜻이 있다면 노승이 당부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지 말라."

師上堂云 若是久參底人 莫非眞實 莫非亘古亘今 若是新入衆底人也 須究理始得 莫卻者邊三百五百一千 傍邊二衆 叢林稱道好箇住持 泊乎問著佛法恰似炒沙作飯相似 無可施爲 無可下口 卻言他非我是 面赫赤地 良由世間出非法語 眞實欲明者意 莫辜負老僧

예나 지금이나 올바른 수행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수행자라는 허울만 뒤집어 쓴 채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조주 선사의 이 당부는 수행자라면 깊이 되새겨보아야 할 문구이다.

오늘날 불교대학을 졸업한 스님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불법의 진수를 얻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초발심이 곧 정각이라고 했다. 초심자 때에 깨달아야 한다. 일단 깨닫고 수행해간다면 일상사가 곧 수행이 될 것이므로 결코 남에게 욕먹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주지가 되려고 출가한 자들은 중이 되면 깨달음은 얻기 위한 수행에는 도무지 관심없이 오로지 주지가 되기 위해 온갖 치사한 짓을 무릅쓴다. 절의 위세에 눌려 신도가 많아지면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으스대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망할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 스님이 물었다.
"참다운 교화는 흔적이 없다고 했는데 스승도 제자도 없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다시 물었다.
"누가 너에게 와서 물으라(問) 했는가?"
스님이 답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조주 스님은 문득 한 대 때렸다.

問 眞化無跡無師弟子時如何 師云 誰教你來問學云 更不是別人 師便打之

조주 스님은 이 땅 위에 사는 이상 스승과 제자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스승과 제자가 없다니, 어떻게 없을 수 있는가. 조주 스님은 학인에게 "누가 너에게 와서 물으라 했는가?"하고 물은 것은 너에게 묻도록 한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다. "그 자가 있다면 스승이 있는 것 아닌가. 너에게 가서 묻도록 지시하는 자가 있으니 그자가 스승이야" 라고 대답한 것이다.

학인은 못 알아듣고 누가 특별히 가라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네 말은 틀렸다. 분명 네가 와서 질문할 때는 누군가 질문하도록 시킨 자가 있어. 모르겠는가? 자, 내가 한번 그 자를 보일 테니 똑바로 알아라" 하고 때렸다.

조주 스님의 이 일방은 자비가 넘치는 일방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16

등불을 밝히다

또 장명등(밤낮으로 항상 밝히는 등불)은 바르게 깨닫는 마음이니라. 이는 확실한 깨달음을 등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탈을 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몸을 등 받침으로 삼고, 마음을 등잔으로 삼고, 믿음을 심지로 삼고, 계향(계율을 지키는 것과 그 공덕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향에 비유한 말)을 기름으로 삼고, 지혜가 밝아지는 것을 등불로 삼아야 하느리라. 항상 이와 같은 깨달음의 등을 켜서 온갖 무명과 어리석음과 어두움을 없애버려야 하느니라. 이 법으로 차례대로 깨달으면 곧 하나의 등으로 백천등을 켜되 등과 등이 차례대로 밝아져 끊어짐이 없으므로 장명등이라 하느니라.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명호가 연등이셨느니라.

이치가 이러하거늘 어리석은 중생들은 여래가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로지 허망한 짓만 하고 유위에 집착하기 때문에 세간의 소유등을 켜서 빈방을 비추는 것으로 가르침대로 행한다하니 어찌 잘못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부처님이 눈썹사이의 한 터럭으로 광명을 놓으셔도 일만 팔천 세계를 비추셨으며 몸의 광명이 모두 나타나면 시방세계를 두루 다 비추시니 어찌 이 같은 세속의 등으로 이익이 되겠느냐. 이런 이치를 자세히 살피면 당연히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으리라.



동성 스님 作

[원문]

又長明燈者 正覺心也 覺知明了 喩之爲燈 是故一切求解脫者 常以身爲燈臺 心爲燈盞 信爲燈炷 增諸戒行 以爲添油 智慧明達 喩如燈光 常燃如是覺燈 炤破一切無明癡暗 能以此法 轉明開悟 卽是一燈 燃百千燈 以燈續明 終無盡故 故號長明 過去有佛 名曰燃燈 義亦如是 愚癡衆生 不會如來方便之說 專行虛妄 執着有爲 遂燃世間蘇油之燈 以炤空室 乃稱依教 豈不謬乎 所以者何 佛放眉間一毫之光 尙照十萬八千世界 若身光盡現卽普照十方 豈假如是世俗之燈 以爲利益 審察斯理 應不然乎.

[해설]

불이 어둠을 물리치듯이 장명등은 지혜의 등을 말하며 번뇌를 물리칩니다. 불성을 깨달으면 우주를 비춰 볼 수 있는 지혜의 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위를 밝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장명등이란 우리가 본래 갖춘 불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깨닫고자 한다면 몸을 등 받침으로 삼고, 마음을 등잔으로 삼고, 가장 중요한 믿음을 심지로 삼아야 합니다. 확실히 믿고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마음을 깨달아야만 다른 사람들도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남을 바르게 안내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깨닫지 못한 이가 법을 설하는 것은 맹인이 맹인에게 길을 일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길을 모르면서 안내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이 필요하듯 계향을 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계향이란 우주를 하나로 보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보고 행하면 우리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본래 마음이 활짝 열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바른길로 이끌어서 무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집착하는 것을 무명과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실상을 바로 보고 집착하지 않는 삶이 지혜의 삶입니다.

장명등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혜명을 끊어지지 않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불자님들도 하나의 도리를 깨달아 법을 전해 불을 밝혀야 합니다.

내가 깨달아서 주위사람들에게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그대로 비출 수 있는 마음의 등불을 갖고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깨달아 지혜의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법을 전하는 것이 장명등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성불하신 분이 연등부처님입니다. 연등 부처님도 장명등 같이 깨달아서 우주를 비춰 볼 수 있는 지혜의 등입니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장명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등이나 법당 앞에 등을 켜 놓으면 복이 온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유위법은 육신뿐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현상세계를 말합니다. 사실 아닌 것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베푼 것이 분명 돌아오기는 해도 행한 만큼 받을 뿐 언젠가는 없어지게 됩니다.

부처님이 눈썹의 한 터럭으로 광명을 비춘다는 것은 우주를 하나로 쓰고 보고 행하는 사람은 한 생각을 일으키더라도 우주를 다 비춰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능력은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을 쓰지 못하는 것은 불성이 가려져 능력은 있으되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방을 비추는 등불만큼의 마음만을 쓰면서 어찌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크게 써야 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4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5월 26일까지 접수
◆ 개강일시 : 2010년 5월 27일 매주 (목) 오후 5시 ~ 8시 (3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창업을 위한 전문자격증 교육생 및 지부모집

제 7 기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표정관리 및 웃음치료, 최면요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건강식품업소탐방,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월요일 반

수시교육 / 매월 상시 모집 중

중앙교육원 - 홈페이지 www.ki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02)393-5111

지부교육원
영남본부교육원 055-543-3155 부산해운대지부 051-757-9990 지리산연수원 063-635-5112
대구교육원 053-566-1116 호남본부교육원 063-254-5500 경남서부교육원 055-932-5877
부산교육원 051-636-2972 광주교육원 062-672-5432 울산교육원 052-260-1037

-지부모집-
현재 9개 운영 중 아래 9개 지부를 상시 모집합니다.
강원남부 / 강원북부 경기남부 / 경기북부 충청남부 / 충청북부 대전 / 인천 / 수원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는 것이 부처의 삶



묘현사 주지 묘각 스님

"제법실상의 우주적 기묘한 모습은 본래부터 스스로 갖추어져 있어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묘법연화경>의 본불본법(本佛本法)은 모든 중생 몸과 마음에 갈무리 돼 본디 깨끗하여 더럽고 속됨이 없으며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럽거나 깨끗하지도 않은 것이며 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어서 크고도 원만함이니 시작이 없는 아득한 옛적에 스스로 깨달은 부처님이로다."

젊은 수행자가 지리산 법계사에서 목숨을 건 수행을 하다가 홀연히 발적현본(發迹顯本; 근본을 드러냄)으로 견처(見處)를 얻으며 '마음 거울'에 비친 일구를 토해냈다. '맨발스님'으로 알려졌던 묘련 스님(1924~1998). 일생을 <법화경> 연구에 매진했던 스님은 자나 깨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실상묘법연화경>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생전에 "불자들이 <법화경>만 알고 <무량의경> <관보현보살행법경>은 생소하니 법화사상의 완전한 이해를 위해 삼부경을 편역해야 한다"고 원력을 세웠다. 그 원력은 입적 2년 후인 2000년에 간행된 <법화삼부경> 편역본으로 회향됐다.

그때 묘련 스님의 원고 교정과 <법화삼부경> 편집 제작을 맡았던 묘각(妙覺 · 74) 스님. <법화삼부경>을 편집하면서 앞부분에 한반도를 중심에 둔 세계지도와 만국기를 역동적인 그림으로 디자인 해 실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 인류와 만국이 하나(一佛)임을 드러내는 그림이었다. '진리도 하나 세계도 하나 중생도 하나'라는 묘련 스님의 가르침도 "조국통일 열매 맺어 세계평화 나타나니 일불국토 묘하구나 만국중생 법이로세 삼독망상 진흙연꽃 삼학으로 피어나니 영산정토 경이로세"라는 게송으로 정리해 실었다. 뒷부분에는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 <법화경>을 연구하고 수행한 스님들을 진영과 함께 소개했다.

묘각 스님은 묘련 스님의 속가 동생이지만, <법화경> 대의를 직접 배운 후학이기도 하다. 전남 장성 축령산 묘현사는 묘련 스님이 '맨발'로 평생 일군 복밭이다. <석가여래행적송>을 지은 고려 충숙왕 때의 운묵무기(雲默無寄) 스님이 수행했던 곳이다. 취서사 관불암 등의 이름으로 도량이 이어져 오다가 한국전쟁 때 완전 소실됐다. 그 폐허에 묘련 스님이 인연 있는 불자들과 도량을 일구어 <법화경> 가르침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다진 것이다.

묘각 스님을 뵈러 가는 길에서는 냉이 향기가 나고 있었다. 길가에도 밭둑에도 파란 싹들이 얼굴을 내미는 봄 날, 모자를 눌러쓴 아낙들이 봄나물을 캐는 장면은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다. '저 그림에 이름을 붙인다면?' 객창감에 사로잡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실상춘경연화도(實相春景蓮花圖)'라고 자답했다. 묘현사 스님들에 대한 자료를 본 후유증(?)이 그렇게 드러난 것인가?

얼었던 땅이 질척질척 풀려 있었다. 포크레인 한 대가 차도 사람도 다니기에 불편한 가파른 길을 고치고 있었다. 토굴 가는 길은 좁은 토끼길이어야 어울린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일 것이다. 도량 입구에 묘련 스님의 부도가 뽀얀 얼굴로 서 있고 새로 법당을 지을 터에는 주춧돌만 놓여 있다.

"스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전 10시. 묘현사 공양간은 깨끗했다. 공양주 보살님 한분이 차분하게 공양을 차리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스님 나오실 겁니다. 아침 안 드셨지요?"

"먹고 왔습니다. 안 차리셔도 됩니다."

"기자님 때문에 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절은 하루 두 끼 먹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5시."

자비희사 윤리도덕 등 일등국 서원 정진

'법화사상' 홍포 위해 다양한 도서 간행

머쓱해졌다. 사시마지를 올리고 공양하려는 절의 일상을 모르고 '김칫국' 먼저 마신 꼴이었다. 얼른 생각해 보니, 하루 공양을 두 끼로 정했다는 절은 처음인 것 같았다. 사시 예불이 끝나고 간소한 공양이 소리 없이 시작돼 소리 없이 끝났다.

"얼마만이야? 10년 넘었지?"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보는 대로야. 서울의 국청사와 간경도감은 힘에 부쳐서 손을 뗀 거나 다름없고 여기서 큰스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공부하고 불사하며 지내고 있어."

"묘련 큰스님 유지를 받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스님, 묘각 스님의 공부 자리는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허허. 첨부터 어려운 질문일세."

잠시 침묵. 묘각 스님은 도서출판 간경도감을 통해 다양한 포교활동을 했었다. 간경도감이 펴낸 책에는 묘련 스님의 <법화경> 해설서도 있지만 묘각 스님이 지은 이차돈 · 자장 율사 · 진묵 대사 등 고승전과 <알기 쉬운 법화경> <법화경과 원자물리학>등 법화경 관련 서적이 대부분이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내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진리의 원음을 있는 그대로 듣고 느끼고 자기화 하는 것이 수행이니까. 다만, 내가 공부하면서 세운 서원이 있기는 해. 그 서원은 다섯 가지인데, 법화교리일등국, 도인다생일등국, 자비희사일등국, 윤리도덕일등국, 타국교수일등국 등이야."

"일등국이라 하면 우리나라가 그 다섯 가지 덕목으로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되길 서원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있나? 우리나라로 한정 지으면 <법화경>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지. 당장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야 하고, 그 힘으로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서원하고 있지."

묘각 스님의 다섯 가지 서원은 간절했다.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푸념하는 개그맨이 있지만, 스님의 일등국에 대한 서원은 누구 한 사람 어느 한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우선 법화교리일등국을 서원한 것은, 일체중생이 모두 부처이고 실상 그대로가 다 부처라는 가르침이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것이지. 경의 이름을 <실상묘법연화경>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 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온 중생이 이미 그대로 일불승이라는데 있기 때문이야. 도인다생일등국은 말 그대로 제대로 도를 닦아 성취한 선지식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야. 요즘은 말로만 도인 행세하는 가짜도인이 지나치게 많아. 수행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인류에게 불행이지."

스님은 이 대목에서 우리 시대의 유명인사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문화계나 학계는 물론 고등학생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 인사가 "불교는 형이상학의 종교다. 형이하학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모를 리 없을 그 인사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지한 말을 했으니 불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왜곡은 얼마나 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느 큰스님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법화삼부경>을 소개했는데 신문기사에 <무량의경>이 <무량수경>으로 잘못 나왔다. 스님은 신문사로 찾아가 자초지종을 알아봤다. 어이없게도 큰스님이 말실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신문사는 기사정정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결국 '독자투고' 형식으로 <무량의경>이 옳다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스님은 이런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불교계 지도자들이나 학자 언론인 등이 말 한마디에도 신중을 기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

묘각 스님은 ...

서울에서 태어난(1937년) 스님은 서경보 스님을 은사로 불국사에서 출가했으며 묘련 스님에게 <법화경>을 배우고 연구했다. 동국대 대학원을 수료했다. 도서출판 간경도감이라는 출판사를 열어 <법화경> 관련 서적들을 다수 출판했다. 저서로는 <실상묘법연화경 요품> <알기 쉬운 법화경> 등 다수가 있다. 현재 전남 장성 묘현사에서 불사와 법화사상 홍포를 위한 저술에 매진하고 있다.

초기 선종의 가르침과 행법의 전모를
온전히 전해주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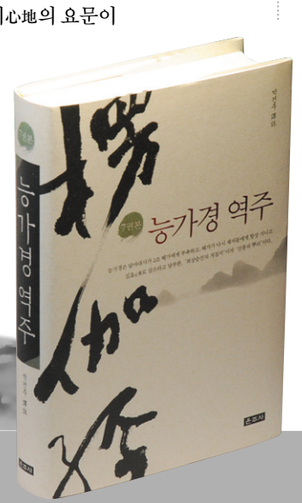
7권본 능가경 역주

'선종의 뿌리' 이자 '최상승선의 지침서'

"이 『능가경』 4권을 너에게 부촉한다. 이 경은 여래심지心地의 요문이며, 모든 중생을 개시오입開示悟入하게 할 것이니라."
_달마대사가 혜가에게

"내가 보건대 중국에 오직 이 경이 있을 뿐이다. 인자仁者가 이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스스로 증득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_달마대사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밀하고 난해하여
그동안 외면 받아 온 『능가경』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역주!



박건주 역주 | 신국판양장 | 640쪽 | 값 27,000원

근현대 한국불교가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를 대중적 눈높이에 맞춰 풀어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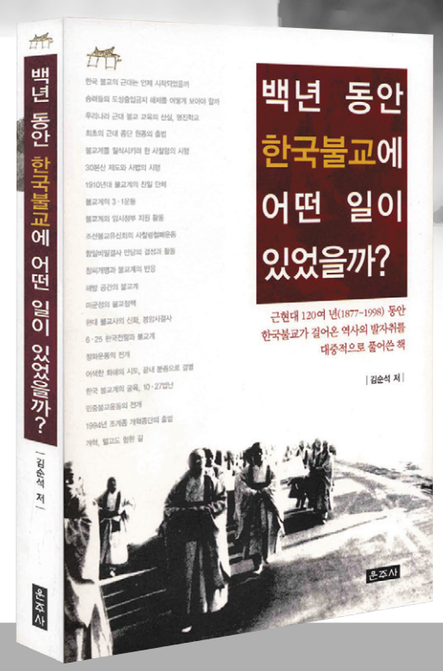
백년 동안 한국불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길라잡이

1870년대 개항으로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정화, 그리고 1990년대 개혁까지, 120여 년 동안 우리 불교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가려내, 각각의 배경과 전개과정, 그리고 불교사적 의미를 성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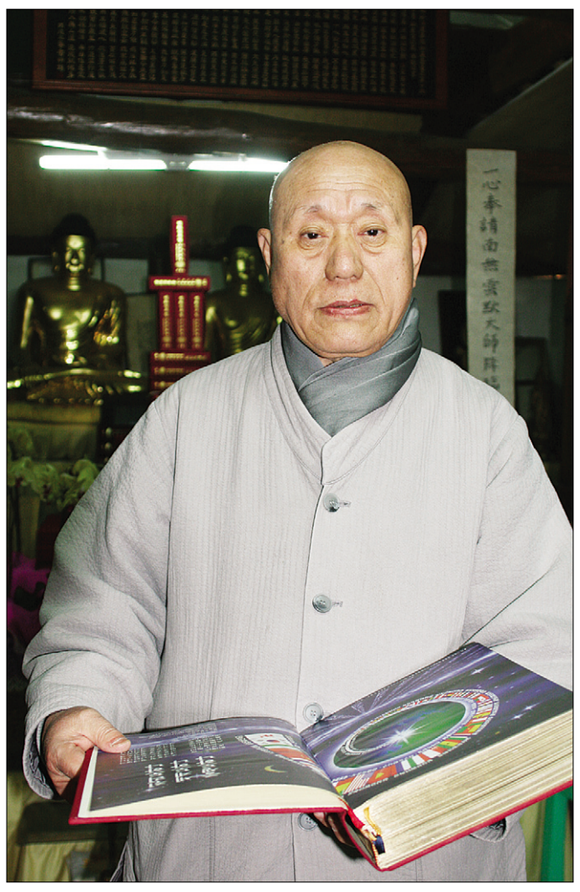
근현대 한국불교를 관통하는 사건, 단체,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주는 역사적 교훈은 무엇인가?



김순석 저 | 신국판 | 368쪽 | 값 13,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6가 25-1 청송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붓다북 www.buddhabook.co.kr

거짓말 많은 사회는 발전 못해





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다음, 지비희사일등국이라는 것은 베푸는 불교가 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윤리도덕일등국이라는 의미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 마지막 타국교수일등국은 우리 한국불교가 보다 빠르게 보다 내용적으로 풍부하게 세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에서조차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선과 교를 두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분별상에 지나치게 경도돼 있거든. 말 없이 마음을 드러낼 수 없고 마음이라는 바탕이 없으면 말로써 드러낼 것이 없는데 그 둘을 굳이 말이다 마음이다 분별하고 달리 본단 말이야.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보아야지. 하나라는 분별마저 초월해야지. <법화경>에서도 색심(色心)을 둘이 아니게 가르치고 있거든. 그래도 <법화경>의 가르침이 가장 폭넓고 깊게 연구되고 법화행자가 많은 한국불교가 이 귀한 정신을 세계에 퍼트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내 서원이야.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지만 통일만 이루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거든. 아무튼, 이 다섯 가지 서원은 한국불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해탈을 위해 이 지구촌이 그대로 일등국이 돼야 한다는 것이지."

묘각 스님이 도서출판 간경도감을 운영한 이유도 이 서원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 춘원 이광수 선생이 <법화경>에 매료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춘원이 <법화경>을 번역하려고 했을 때 당시 큰스님들이 말렸다. 불교의 깊은 교리와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고 본 것이다.

"나는 그게 늘 안타깝게 생각돼. 춘원의 그 좋은 문장으로 번역하게 하고 당시의 큰스님들이 교정을 좀 봐줘서 책을 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법화경>을 접했겠는가 말이야. 춘원의 시대에 춘원의 글은 가장 큰 전파력이 있었잖아.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니까 세상은 점점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거든. 잘 생각해 보면 우주 만물이 다 하나야. 땅을 흐르는 강은 여러 줄기를 이루지만 다 한 바다로 모여 한 물이 되거든. 진리의 합일이란 그와 같은 거야. 지금은 형편이 좋지 않아 중단하고 있지만, 나는 원효 대사 · 세종대왕 · 세조 등과 <법화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더 연구해서 출판을 하고 싶어. 할 일은 많고 세월은 빨리 흐르니 무슨 일이든 마음만 간절하지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묘각 스님은 '실상(實相)'이라는 이치를 알면 깨달음의 삶도 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실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속임수가 없는' '진실 그 자체'의 의미다. <법화경>을 <실상묘법연화경>이라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부처라는 것이기에 어렵게 생각할 것은 없다.

"다만, 중생의 삶은 착하고 진실하게 이어지기가 어려울 뿐이지. 순간순간의 유혹과 탐욕이 본래의 불성을 가리니까. 거짓말을 하고 뭔가를 위장하는 사회는 절대 부유해질 수 없어.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거짓말하고 부정한 짓을 하는 걸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사회가 발전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잖아? 거짓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실상이지 다른 게 아니야."

묘각 스님은 우리나라가 세계의 문화중심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실상의 삶을 가르치는 <법화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전이란 하늘과 땅을 밝히는 거울이다.

법정 스님의 입적으로 세상이 불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죽음이 가장 절절한 법문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거든. 사대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루어지면 허물어지고 허물어진 것은 다시 인연을 모아 생성되니, 있다고 하여 영원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없는 것도 아닌 도리를 알아야지."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순간 되새김질해야 할 가장 요긴한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일까?

"<법화경> '여래신력품'에 필경주일승(畢竟住一乘)이란 말이 나와. 실상을 바로 보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일승에 머물게 한다는 거야. 참됨, 정직 앞에서는 어떤 운명론도 발을 붙일 수 없어.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돼야 해. 그 이상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 없어. 참된 길이라면 성큼성큼 걸어가야 하고 참답지 못한 것은 따르지 않으면 되거든.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면 반드시 일승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때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어."

맑은 날은 멀리 무등산이 보인다는데 희뿌연 봄바람이 무등산을 가리고 있었다. 보이는 만큼만 보고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진짜 무등(無等)이라는 설법이다. 실상을 실상으로 보는 지혜다.

글 · 사진=임연태(시인 · 본지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8. 미산 홍정식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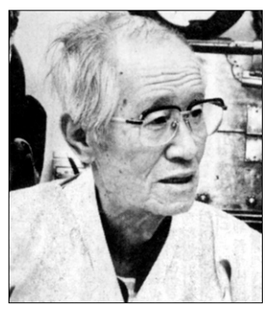
충남 공주 출신인 미산(米山) 홍정식 박사(1918~1995)는 태어날 때 이미 불자였다. 부모 모두 독실한 불자인 까닭에 세상에 나오자마자 스스럼없이 불교를 접했던 것이다. 양친을 따라 자주 절에 다닌 그에게 사찰 마당은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그런 그가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중앙불교전문학교(동국대 전신)에 입학하면서부터다.

홍정식 박사는 무명과 탐욕을 버리고 지혜를 찾기 위해 경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불교학자의 길을 걸으며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모든 정열을 쏟았던 홍정식 박사는 후학들에게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이자 불교학자라고 생각한다면 잠도 안자고 수행하다 눈이 먼 아나율 존자처럼 온몸을 바쳐 공부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화불교의 연구'로 1974년 동국대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홍 박사는 학자인 동시에 실천가이기도 했다. 책 읽고, 강의하고, 원고 쓰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오전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서재에 봉안한 부처님에게 향을 올리고, 예불을 올렸다.

유독 지월 스님(1911~1973)의 행선축원(行禪祝願, 조석예불 때 산하대지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다. 한국불교학회를 창립한 것도 이 무렵이다. 1973년 7월, 학회가 활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초대회장을 맡은 뒤 10여 년간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교학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미산은 부처님을 신비화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이란 측면에서 일생과 그 가르침에 대해 설명했다. 대중들에게 불법을 전할 때에도 부처님을 신격화하는 태도를 경계했다.

홍 박사는 율(律)을 중요히 여겼다. 수행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청정한 삶을 가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지만, 지키지 못할 계율을 그대로 고수해야 하는가에 대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홍 박사는 "계는 지키기 위한 것이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지키지 못할 계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와 사회에 대한 기만"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할 계율과 계율의 정신도 존중해야 하지만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계율의 새로운 해석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화경'에서 화합 발견… "못 지킬 계를 갖는 것은 기만"

1958년 경기대로 자리를 옮긴 홍정식 박사는 천태학과 대승불교사상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이런 실력을 인정받아 1961년 동국대에 발탁됐다. 이후 1983년까지 22년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겼다. 그는 특히 <법화경> 연구에 매진했다.

홍정식 박사는 정화개혁이 시작되고 비구 · 대처승 간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정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지만, 양측의 대립을 이념적으로 통합해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다. 그러다 <법화경>을 읽고 눈이 번쩍 뜨였다. <법화경>의 중심사상이 성문(聲聞) · 연각(緣覺) · 보살승(菩薩乘)이 일불승(一佛乘)으로 돌아간다는 '회삼귀일(會三歸一)'을 깨달은 후부터 그는 <법화경>에 관한 연구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부처님께 기원하는 발원문)을 좋아했던 홍정식 박사는 방학 때면 며칠씩 합천 해인사에 내려갔다.

홍 박사는 "'조석향등헌불전(朝夕香燈獻佛前)'으로 시작하는 지월 스님의 행선축원을 처음 들었을 때 무척 감동받았다. 이른 새벽 가만히 축원을 듣고 있으니 삼계가 조용해진 느낌이었다. 그 때부터 스님의 행선축원을 들으려고 일부러 해인사를 찾아간 게 부지기수다"라고 말했다.

1964년 동국역경원이 개원하자 역경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전 한글화 작업에 동참하며, 불교대중화에 기여했다. 1970년대에 미산은 대중포교에 눈을 돌렸다.

홍 박사는 "한국불교가 산중불교를 탈피해 대중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불련 지도법사를 비롯해 1975년 1월 개설된 삼보불교교양대학의 초대학장을 맡아 현대적인 교육으로 불자들을 가르쳤다.

슬픔이 북받치고 나서야 비로소 배움이 있었다

<55> 지나내학원(支那內學院)의 구양경무(歐陽竟無)거사

양문회(楊文會) 거사 입적 이후, 금릉각경처(金陵刻經處)의 사업을 계승한 이는 근대 유식학의 대가인 구양경무(歐陽竟無; 1871~1943) 거사이다. 거사는 본명이 구양점(歐陽漸)이고, '경무'는 50세 이후 개명한 것이다. 강서(江西) 의황(宜黃) 사람으로 흔히 '의황대사(宜黃大師)'라고 칭했다. 당대 구양순(歐陽詢)과 송대 구양수(歐陽修) 등이 거사의 선조로 역대로 문장으로 이름을 떨친 집안 출신이다. 증조부와 조부 등도 뛰어난 학문을 지녀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몸담았다. 그의 부친인 구양휘(歐陽暉)는 어려서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올랐지만, 전쟁에 나가 매번 패배해 중년에 관직의 뜻을 접고 농사에 전념했다. 하지만 문장으로 유명해 '의황' 지역에 명문가로 자리잡았다.

본래 거사는 가문의 전통을 따라 '이학(理學)'의 '경세지학(經世之學)'에 전념하다가 청일전쟁(1894~1895) 이후 시모노세키 조약(馬關條約)을 목도하고 유학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느껴 '양명학(陽明學)'으로 전향했다. 당시 20세의 거사는 남창(南昌)의 유명한 경훈서원(經訓書院)에서 수학했다. 그 곳에서 그는 불교학 대가인 계백화(桂伯華) 거사와 만났다. 거사는 계백화로부터 <대승기신론>과 <능엄경> 등을 깊이 이해하게 됐고, 점차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04년 거사는 북경으로 가서 과거에 참가하지만, 불행히도 장원을 놓치고 차석으로 급제했다. 당시 청조(淸朝)의 규정에 의하면 장원은 국자감에서 수학하는 기회를 얻지만, 차석은 벼슬을 받았다. 거사는 광창현(廣昌縣)의 '교유(敎諭)'라는 관직이 임명됐다. '교유'는 정팔품(正八品)에 해당하는 '한직'으로 '의황'의 명문가 출신인 거사가 만족할 직책은 아니었다. 거사는 벼슬에 좌절을 느끼고 남행하던 중에 남경의 '금릉각경처'를 방문했다. 당시 거사는 그곳에서 계백화 거사를 재회했고, 그를 통해 양문회 거사를 만났다. 구양경무 거사는 양문회로부터 깊은 감명을 받고, <기신론>과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 <인명대소(因明大疏)> 등 유식학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 그 후, 거사는 고향으로 돌아가 성지학당(誠志學堂)을 개설해 후학을 지도했다. 1906년에는 광창의 교유에 임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의 중병으로 사임했다. 모친 병사 후부터 거사는 육식과 색욕을 끊었다. 관직에도 미련을 두지 않았던 그는 불교에 거사로서 귀의할 것을 맹서하고, 구봉산(九峰山)에 은둔해 수묘(守墓)하며 돈각(頓覺)을 구했다. 그로부터 1년 후 구양 거사는 남경으로 가 '기원정사'에서 양문회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했다.

1907년 거사는 양문회의 명으로 일본에 가서 불전을 수집했다. 이 시기에 거사는 장태염(章太炎) 유사배(劉師培) 등과 함께 불법에 대한 깊은 논의를 했다. 이듬해 거사는 귀국하여 생계를 위해 광주 우급사범학당(優級師範學堂)에서 강의를 맡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의 구봉산에서 친구인 이증강(李證剛)과 농장을 경영했다. 이 또한 병이 더욱 깊어져 어려웠다. 거사의 나이 40이었다. 거사는 다시는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불법을 위해 몸을 바칠 것을 결심했다. 다시 금릉각경처로 돌아간 구양 거사는 경전의 교정을 전담했다. 1911년 양문회 거사가 입적하면서 각경처(刻經處)의 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치암(陳稚庵)에게는 출판 분야를, 진의보(陳宜甫)에게는 대외사업을, 구양 거사에게는 경전의 정리와 교정에 관한 일을 나누어 유촉했다. 실제적으로는 거사가 각경처와 관련된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했다.

근대 중국불교에 있어서 구양 거사는 그의 스승인 양문회 거사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거사는 스승으로부터 불교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배움을 얻었으나, 스스로 더욱 정진해 특히 법상유식학(法相唯識學)을 다시금 부흥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유작집인 <구양경무내외학(歐陽竟無內外學)>에는 각 종의 교학(敎學)에 대한 연구논술이 보이는데, 그의 수제자인 여징(呂澂) 거사가 저술한 <친교사구양선생사략(親敎師歐陽先生事略)>에 따르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사의 업적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지나내학원(支那內學院)'의 설립과 그 운영이었다. 연구와 교육이 완전하게 결합됐을 때, 비로소 연구 · 교육의 양쪽 분야에 모두 더욱 커다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지나내학원은 중국 근대불교학의 산실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학자들을 배출했다. 그들을 통해 양성된 후학들이 오늘날 중국불교학을 이끌고 있다. 지나내학원이야말로 근대 중국불교학 부흥의 근원지라 해도 무방하다.

거사가 '지나내학원'을 설립한 직접적인 원인은 스승인 양문회 거사가 설립한 '기원정사(祇園精舍)'의 계승이었다. 본래 양문회 거사가 입적할 때, 각경처와 관련한 모든 재산은 금릉각경처에 귀속되도록 유언을 남겼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자식들과 손자들이 계속 각경처에 머물면서 재산권을 행사했다. 당시 금릉각경처는 5000평에 이르는 대지에 200여 칸에 달하는 방이 있을 정도로 방대했다는 기록을 보면 그 재산의 규모가 짐작된다. 실제적으로 양 거사의 후손들은 1936년에 이르러서야 재산권을 금릉각경처에 넘겼다. 이는 양 거사가 입적한 지 25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금릉각경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를 세울 비용은 거사가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당시 거사는 강연과 다양한 학술행사의 개최 등을 통해 꾸준히 모금활동을 했다. 거사의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1921년 말에는 어느 정도 기금이 형성돼 마침내 지나내학원의 이사회를 결성하게 됐다. 이사회에는 당시 북경의 유명한 정치가인 엽공작(葉恭綽), 웅희령(熊希齡)를 비롯해 유명한 학계의 거두 양계초(梁啟超), 채원배(蔡元培), 심증식(沈曾植), 장태염(章太炎), 진삼립(陳三立) 등이 이사로 참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계 학계의 노력으로 북경 정부의 재정부 · 교육부가 협상해 강소성 정부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받은 강소성 재정청은 지나내학원의 건립기금으로 '10만원'을 출자하게 됐고, 또한 매월 국세(國稅) 가운데 '1000원'을 운영기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로써 '지나내학원'의 건립기금으로 설정한 '30만원'이 넘게 모였다. 1922년 7월 7일, 남경 공원로에 교육부 · 내무부 인가를 얻은 중국 최초 국가공인의 불교대학(학제: 중학부 4년, 대학의 예과 2년, 본과 2년, 전문연구부)인 지나내학원이 탄생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해 일본군이 남경으로 진공하자, 지나내학원은 겨울에 사천성(四川省) 강진(江津)으로 이주하고, 그 명칭을 '지나내학원강진촉원(支那內學院江津蜀院)'으로 개명했다. 사천성에서는 '각경처' 업무까지 담당해 30부, 50여 권을 판각 · 출판했다. 1943년 2월 23일 구양 거사는 폐렴으로 73세 나이로 촉원(蜀院)의 후원에서 입적했다. 거사는 부모, 두 아들과 지극히 사랑했던 딸, 세 누이와 형 등 주변 가족들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남은 손자 넷도 외국에 유학중이었기 때문에 거사의 임종은 여징(呂澂) 등 제자만이 지켰다. 구양 거사 입적 후, 4월 27일 교육부에서는 거사에게 '교육부정청행정원전정국부포휼구양대사(敎育部呈請行政院轉呈國府褒恤歐陽大師)'라고 포상했다. 그 해 6월, 지나내학원에 원우회(院友會)가 결성됐고, 여징을 원장으로 추대했다. 1949년 지나내학원을 다시 '중국내학원'으로 개명했지만, 원장은 여징 거사가 계속 맡았다. 1953년, 중국내학원의 원우회는 당시 여러 가지 정치상의 원인으로 '폐원(閉院)'을 결의했다. 1922년에 창립해 1953년에 이르는 30여 년간 근대 중국불교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했던 지나내학원은 비록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영향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대 중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의 중화권 불교에서 활약하고 있는 승려와 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나내학원과 직 ·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구양 거사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 6세에 부친을 여읜 것을 비롯해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 거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거사가 자주 "슬픔이 북받치고 나서야 비로소 배움이 있었다(悲憤而後有學)"고 자술한 것과 같이 그는 슬픔을 겪을 때마다 칩거해 불법을 연구해 뛰어난 저술을 남겼다. 거사가 이룩한 유식학의 부흥은 근대 중국사상에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만년에 거사는 유식학으로부터 반야학을 통섭하고자 노력했고, 또한 유가와 불교를 회통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거사의 유작집인 <구양경무내외학>(30책)에는 모두 26종의 귀중한 저작이 실려 현재에도 금릉각경처에서 출판돼 유통 중이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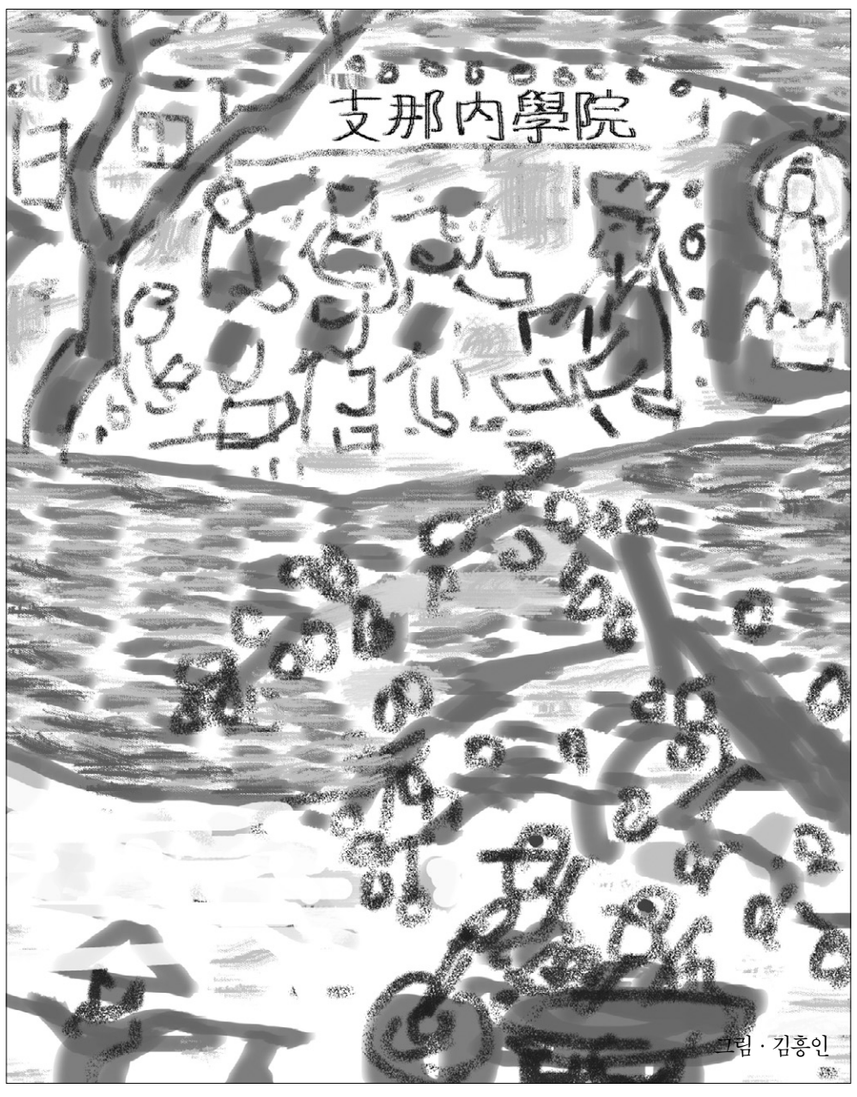


그림 · 김홍인

거사는 근대 중국불교에 중요한 역학을 담당

지나내학원은 중국불교학 부흥의 근원지

중화권 불교 승려 · 학자 상당수 직 · 간접적 관계

석가세존진신 치아사리 봉안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2010년 경인년 봄 금강산 산신대재

소통과 화합의 봄은 금강산에서….
국내최초의 금강산 산신대재를 통해 금강산 산신님의 위신력에 흠뻑 취해봅시다.
〈사업번창, 가내길상, 건강증진, 우환극복, 부자되는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금강산 산신대재의 봉행은 범음 · 범패와 전통의식을 통한 여법 한 행사로 진행됩니다.

■일 시 : **2010년 4월 24일 오전 10시**
■장 소 :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동참금 : 3만원
■문 의 : 1) 서울, 경기지역 ⇒ **건봉사 서울포교원 벽운사**
www.bwjisan.com 02-979-0108, 971-1544
2) 통합전지역 ⇒ 건봉사 종무소(033-682-8100~3)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공고 제2010-1호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공고

2009. 9. 18에 게재된 본위원회 공고 제2009-4호의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공고」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추가연장 공고합니다.

2010. 3. 18.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간
2010. 3. 18. ~ 2011. 12. 31.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 10 · 27법난의 정의
"10 · 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 · 수사하고,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나.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 · 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3. 신청인의 자격
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나. **명예회복 신청 : 피해자, 유족(사망시), 조계종 및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4. 신청서 접수처
가.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또는 우편제출
1) 직접(방문)제출 : 일과 시간내(09 : 00 ~ 18 : 00)
2) 우편제출 : 신청기간내 도달
나. **주소** : 우)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사업회내 439호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및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및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 각 1부 (명예회복신청서와 의료지원금신청서 서식이 구별됨을 유의)
나. 피해경위서 1부(신분증 사본 포함)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각 1부
※ **대리인에 의한 신청 경우** : 아래와 같은 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위임장 1부, 가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①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② 입원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
③ 수용자인 경우에는 그 수용기관의 장 ④ 그밖의 경우에는 주소지 읍, 면, 동장

6.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구 구입비 등 산정

7. 심의 · 결정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 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T. 02 - 748 - 5555)에 문의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10 · 27법난피해자 신청접수안내」**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알림판 「10 · 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신청공고 바로가기」** 등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010. 4. 19 이후는 **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 www.beopnan.go.kr / 주요사이트에서 검색어 : '1027 법난')

10 · 27법난관련 자료를 찾습니다

○ **자료범위** : 10 · 27관련 신문기사, 영상물, 사진, 일기문, 기고문, 서신, 증언록 등
○ **방 법** : 전화, 방문수집, 우편제출
○ **기 간** : 2010.3.18 ~ 2011.12.31(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우)140-12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쟁기념사업회내 439호 02)748-5555
○ **활 용** : 기념관 · 전시관내 전시, 자료발간 등
○ **기 타** : 기증서 전달 및 제공자 명명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지원단장

요절복통 여래네 집

#7. 여래의 우정



스튜디오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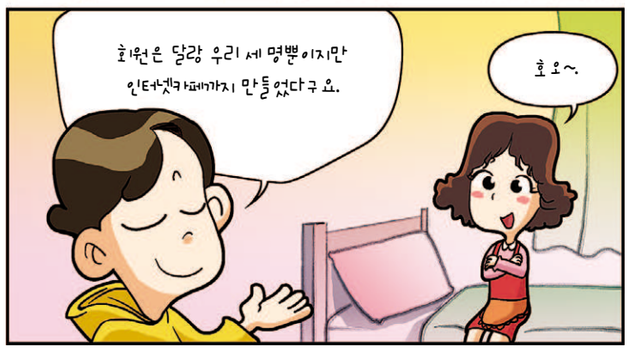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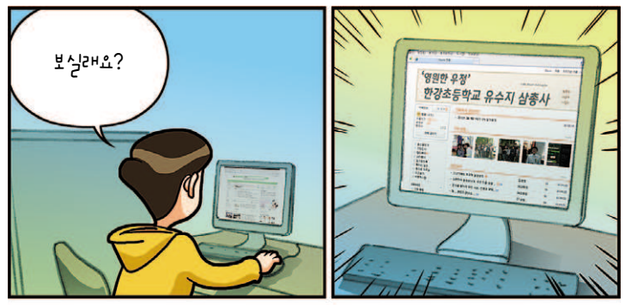


















이주일의 화두

사람에게는 네 가지 고독함이 있다.
태어날 때에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에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유희의 길도 혼자서 간다.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

· 노동부 지원 · 사회적기업(예비) · 초의신다 최고금상 수상
· 청와대 사랑채 납품 · 김포공항 4F 입점
T:061-285-0301~2

햇차 선금주문할인 | 제다 실습

단 한 번의 기회

노동부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햇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품질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세계가 인증한(최고금상)
"다성 초의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착순 선금 주문을 받으니,
착오 없이 기간 내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만통(1통 100g) 주문 받습니다.
우전은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세작 50,000원→20,000원(4월20일까지)
중작 30,000원→10,000원(4월30일까지)
배송 : 4월25일~5월30일
※ 행사기간 이후에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 됩니다.

차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 제다실습
· 차잎따기
· 차의 종류와 제다법 특강
· 제다실습 및 심사평가

● 실습 茶 종류
2010 햇차(녹차) · 청차 · 황차
보이차 · 떡차 제다실습

※ 단체 · 개인 모두 접수 가능하며 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제다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 실습비 : 1인 1만원, 차잎 1kg당 1만원~2만원 (5월 부터)

초의전통차문화발전사업단
(사)초의학술문화원 · 일지암영농조합법인 공동주최
입금 : 농협 635070-51-049724 일지암 국민은행 796201-01-376888 (사)초의학술문화원
전화 : 061-285-0301,2 팩스 : 061-285-0304 choyeetea.co.kr
후원 : 무안군


▲초의선사 동상


▲초의선원


▲제다체험


▲다도체험


▲특허증


▲최고금상 상패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 · 향 · 장작 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의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시 초기 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포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 입니다.

◆ 유 의 사 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실사(실측) 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4-1호
전화 010-7344-1881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이 세상에 당신과 함께 있어 기쁩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이제는 정말 물러간 것 같다. 차가운 바람 사이를 비추는 햇살도 따스하기 그지없고, 앙상한 나무 사이로 연분홍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때가 되면 새싹이 돋고 꽃은 피는데 왜 빨리 봄이 오지 않느냐고 조바심 내던 날들이 많았다. 봄을 온통 빼어가 버린 것 같아서 꽃샘추위가 너무 밉고 싫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쉽게 단정하지 말고 쉽게 속단하지도 말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짧은 글을 읽는 순간 맥이 탁 풀렸다. 때가 되면 어련히 올 봄을, 내 삶이 힘들다고 봄이 오는 것 하나도 참지 못하고 서둘렀다는 느낌! 아마도 내 마음이 참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이 책은 우리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우며 눈부신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잠언이다. 쉽게 읽히면서도 대자연과 생명에 대한 오묘한 진리를 성전스님만의 서정적인 문체로 그려내고 있다. 쉽게 읽히기 때문에 한번쯤은 들어본 듯도 하고, 다 알고 있는 듯도 하지만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묘한 마력이 느껴지는 글들이다.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교방송 '행복한 미소'를 진행하며 성전스님은 청취자들을 위해 새벽마다 글을 써서 읽었다. 모두 1800여 편. 그 중에서 성전스님이 가장 아끼고 편편히 그 에너지가 살아있는 글과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 평화를 주는 글 108편을 뽑아 책으로 펴냈다.

"기도는 간절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줍니다. 새벽마다 쓴 이 글을 읽어 보면 때로 제가 썼다기보다 어떤 거대한 손길 하나가 제 마음에 와서 써놓고 간 글 같기도 합니다"라고 말하는 성전스님. 그처럼 글을 읽다보면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로 가야할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스님의 독백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행복해지길! 마음이 평화로워지길!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알 수 있게 되길! 성전스님의 바람처럼 글을 읽다보면 겨울의 묵은 때가 씻겨 내려가듯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는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거든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볼 것을, 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질 것을, 그리고 결국은 모든 세상사가 내 마음에 달렸음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 마음의 상처가 덧나지 않고 아물게 한다.

이 세상에 당신과 함께 있어 기쁩니다 | 성전 지음 | 마음의숲 | 1만 800원

강지숙

사람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흑산도 아이들 이야기 '섬마을 소년들'

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한 교도관이 몸은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던 유년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섬마을 소년들>은 2002년 출간됐지만,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던 책이다. 2003년부터 8년째 중학교 3학년 국어교과서에 일부 내용이 실렸지만, 무명작가인 관계로 교과서에 이름 석 자 조차 제대로 실리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이 책은 1960년대 흑산도에서 나고 자란 저자가 가난의 질곡 속에서도 해맑은 섬마을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냈다.

책을 읽다보면 정지간(부엌), 꽃가(화단) 등 생소하지만 정감 있는 전라도 사투리와 1960년대 초근목피 하던 시절, 정부에서 배급되는 가루우유를 먹고 배탈난 모습 등 아련한 듯 정겨운 이야기들을 수필 형식으로 만날 수 있다.

섬마을 소년들 | 황용희 지음 | 멘토프레스 펴냄 | 1만원

이나은 기자

용어 풀이 No! 부처님 마음 되기 Yes!

초심자를 위한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 … 선배불자 목경찬이 들려주는 불교 알기

운 좋게 불법을 만나 부처님 가르침에 감화돼 이 경전, 저 경전 들춰보고 참선도 해보고 절도 해보고 사경도 해보고 염불도 해본다. 경전을 읽으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것 같지만 어렴풋할 뿐 확실히 눈에 들어오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불교를 처음 접한 사람들, 불교를 알고 싶은 사람들은 궁금하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까?"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초보불자에게는 어리둥절하고 아리송하기만 하다.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이제 막 불교에 입문했지만 방황하는 초보불자를 위한 책이다. 기존의 신행입문서들이 난해하고 어려운 불교용어를 풀이·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책은 부처님 제자로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미래의 부처님으로서 평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에 노력을 기울였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는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면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다.

초보불자라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상징적인 의미로 치부해 버릴지 모른다. 저자 목경찬은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지금 관세음보살을 생각하면서 촛불에 손가락을 넣으면 분명히 뜨거운데, 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 라고요…"하면서 "세 가지 마음 자세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대신심(大信心), 대분심(大粉心), 대의심(大疑心)입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책에서 '믿음, 하심, 발보리심, 기도의 힘, 참회, 발원, 신통, 선지식, 역경, 도량, 연기법, 불성' 등 불교에 입문하면 가장 많이 듣고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경전, 영화 이야기 등을 예로 들어 소상하게 설명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족의 건강, 경제적 안정 등 물질·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을 얻고 부처님에게 복을 구하고자 절을 찾는다. 또 초보불자들 중에는 '불교=기복신앙'처럼 불교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단지 기복이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며 "마음 저변에는 이렇게 하면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순수한 마음, 간절한 마음,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저자는 "기복이라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너는 누구를 위해 한 번이라도 간절한 기도를 하였느냐"며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를 각색해 재밌는 시도 들려준다.

책 제목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어떠한 수식어도 없어 다소 투박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목 그대로 눈뜬 장님마냥 떠듬떠듬 불교를 알아가고 있는 초심자에게 선배불자가 어떻게 마음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들려주고 있어 이보다 더 알맞은 제목도 없다. 저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평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부처님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을 설명한 책이다. 책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한다.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 | 목경찬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원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생태기행

'산사의 숲' 시리즈 여섯 번째 '봄빛에 취하다'



빌딩숲 사이로 핀 꽃들이 반갑다. 봄이다. 도시에서 만나는 봄꽃이라고 해 봐야 개나리, 목련, 진달래, 벚꽃 등 몇 종 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마저도 이름을 몰라 빨간 꽃, 노란 꽃, 흰 꽃이라고 부른다. 어찌 꽃뿐이랴.

그러면서도 빌딩 이름은 잘도 왼다. 빌딩숲이 아름답고 예쁜 것도 아니건만 사람들은 건물이 자리한 땅 값, 임대료, 아파트 관리비, 주차장 높이, 호텔 구조는 살살이 뒤져 꿰뚫고 있어야 속이라도 든든한 것 같이 행복해 한다. 헛헛한 중생들이 사는 방식이다.

<산사의 숲, 봄빛에 취하다>는 저자가 7년 동안 108사찰에 생태기행을 다니며 맺은 인연을 풀어 놓은 책이다. '산사의 숲'을 주제로 기획된 10권의 기획 시리즈 중 6번째 책이다. 책은 단순한 사찰 소개서가 아니라 "먼 훗날 이 땅에 살 사람들에게 오늘의 산사의 숲을 보여주고 싶다"는 작가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사찰 주변 생태도감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자의 발원이 팍 다가오지는 않는다. 저자가 권하는 생태기행 방식대로 전체에서 세부로 책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원대한 저자의 발원과 그 묘미가 느껴진다.

책 겉표지부터 한번 가볍게 훑는다. 가봤던 사찰이 소개된 곳에서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사진을 살핀다. '이건 뭐지? 산이네, 새네, 나무네, 숲이네, 나비네, 절이네'라며. 그리고 다시 책장을 펼쳐 작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쉬리야? 외눈이지옥사촌나비? 까막딱다구리? 따비싸리?' 하며 흡족한 미소가 흘러나온다.

가봤던 사찰에서 쉽게 볼 수 없었던 것들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저자가 들인 공이 느껴진다. 그것은 작은 관심과 애정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을 것을 사진에 담고 보존하기 위해 쉼 없는 발길을 내딛은 선명한 흔적이다.

다시 보자. 곳곳에 숨은 저자의 깊은 의도가 보이기 시작한다. 저자는 산사의 숲에서 일어나는 개발 사업과 불교 내부의 자해로 밖에 보이지 않는 대형 불사, 굴착기가 강바닥의 모래와 자갈을 긁어 실어내는 눈 시린 장면 등을 고발하고 있다. 이것은 저자의 사명이었다. 저자는 "더 이상의 사찰 숲 환경 파괴는 막아야 한다. 우리에게도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숲을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저자가 말하는 생태기행은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으면서,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정'과 '관심'이다. 질 들뢰즈는 "사랑은 그 사람 자신에게 고유한 모습을 찾아내준다. 그러나 그 고유함은 언제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본인 자신도 식별하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 내부의 다양성을 발견하는 것, 그 사람의 다양성을 나의 다양성과 결합시키는 것, 그리하여 서로의 다양성이 마주치는 가운데 서로의 뚜렷한 고유성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고 말했다. 저자에게 사랑의 대상은 자연이었다. 그것은 스님들의 수행공간을 넘어 아름다운 숲속의 모든 생명이었다.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멋들어진 사찰의 숲, 봄빛에 취한 사찰은 커녕 내 주변의 소중한 것도 놓치고 말 것이라는 경고다. 우리는 어디에 취해 있었던가?

산사의 숲, 봄빛에 취하다 | 김재일 지음 | 지성사 펴냄 | 1만 7000원

이상언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2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3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문학의 숲
4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5	인연이야기	법정	문학의 숲
6	오두막 편지	법정	이레
7	진리의 말씀	법정	이레
8	텅빈 충만	법정	샘터
9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법정	샘터
10	맑고 향기롭게	법정	조화로운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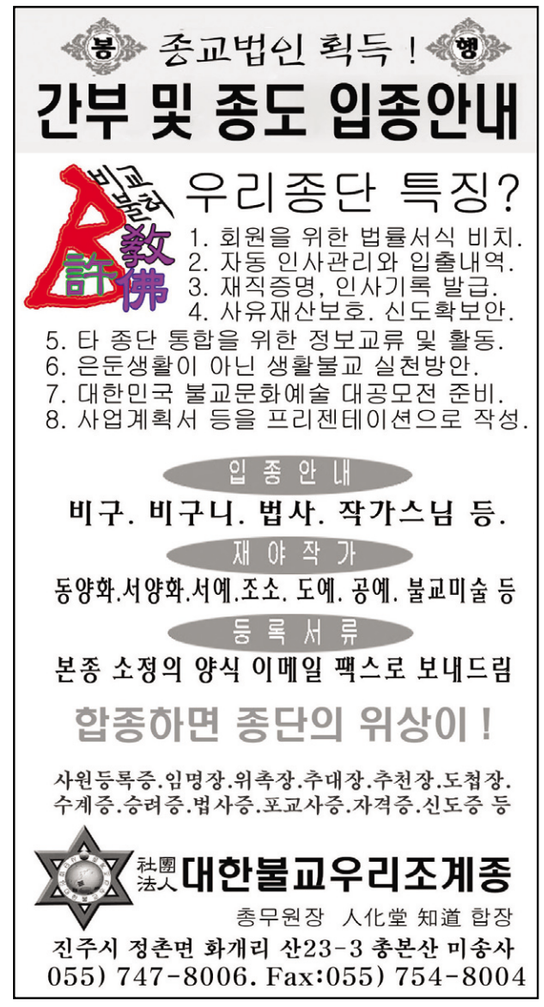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동산불교대학 사찰음식 문화학과 학과장 정산 스님의 봄 사찰음식.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머위 냉이 톳 다래 순으로 만든 봄나물 사찰음식이다.

향긋한 봄 버무려 한입, 춘곤증 안녕

오신채가 봄나물 특유의 맛 없애

봄나물, 성인병 예방 효과 탁월

몸은 나른해져 가고, 피로만 쌓여가는 것 같은 봄이다. 봄이 되면 많은 사람이 음식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뭔가 허한 것 같은 느낌이 들뿐 입맛도 돌지 않는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인데, 이상하게 내 몸만은 '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움추린 몸을 활짝 펴게 해줄 방법은 없을까.

'봄' 하면 떠오르는 것은 단연 파릇파릇 돋아난 봄나물이다. 항상 봄 식탁 위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봄나물들은 냉이, 씀바귀, 두릅, 쑥, 원추리, 돌나물, 봄동, 취나물 등 종류도 다양하다. 담백하면서도 어딘가 쌉싸래한 듯한 봄나물은 입맛 없어지는 봄에만 느껴볼 수 있는 특식이다.

사찰음식전문가들도 봄에는 단연 봄나물을 활용한 음식을 추천음식으로 꼽았다. 봄나물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고추장, 된장 또는 참기름 등에 버무려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적문 스님은 "두릅 같은 경우, 밑동을 떼어 내고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 데쳐먹으면 특별한 조리법 없이도, 나물 특유의 색감과 향을 즐길 수 있어 봄에는 안성맞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나물을 먹을 때에는 된장과 고추장으로 버무리던가, 참기름 한두 방울만 넣어서 먹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한 양념은 나물 본연의 성질을 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재사찰음식연구소의 선재 스님은 "사람들이 사찰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맛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서 먹으면 사찰에서 먹었던 담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이는 나물을 무칠 때 파, 마늘 등 향이 강한 양념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 양념이 봄나물 특유의 성질을 없애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봄나물은 겨우내 쌓였던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정화시켜주고, 혈관을 맑게 해준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에는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 지면서 각종 영양소의 소모가 많아진다. 비타민을 비롯한 각종 영양소 공급의 부족은 춘곤증과 피로를 부추긴다.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봄나물은 기본적으로 비타민, 칼슘, 철분,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특히 쌉싸래한 맛을 지닌 봄나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성인병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 미용, 신진대사 촉진, 노화 방지 등의 효과가 탁월하다.

선재 스님은 이런 봄나물 중에서 머위를 추천했다. 머위는 봄이 되면 스님들이 빠뜨리지 않고 먹는 나물 중 하나이다. 봄에 상좌스님이 이 나물을 챙겨주지 않으면 내쫓는다는 속어가 나올 정도로, 필수로 챙겨먹는 나물이다. 사찰에서는 머위를 많이 길러 섭취하고 있다.

머위는 싹에 따라서 먹는 방법도 다르다. 머위는 꽃이 먼저 피는데, 꽃은 삶아서 먹기도 하며, 튀김을 해서 먹기도 한다. 머위 이파리를 겉저리로 먹기도 한다.

머위의 쓴맛이 강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삶아서 두부와 된장, 고추장, 통깨, 참기름으로 양념해 같이 먹으면 두부의 단맛과 머위의 쓴맛이 적절히 섞여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봄나물들이 무조건 데쳐서 먹기만 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선재 스님은 "원추리에는 설사하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주의해서 먹어야 될 나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린 원추리 같은 경우는 덜하지만, 어느 정도 자란 원추리는 데친 후, 찬물에 30분~1시간 정도 담가놨다가 조리해서 먹어야 설사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선재 스님의 경우 봄에는 항상 나물을 응용한 밥이나, 봄나물 잡채를 해서 드신다고 한다. 특히 스님은 "냉이만두를 꼭 해서 먹는데, 생 냉이와 표고버섯, 호박, 갖은 야채와 풋고추 등을 총총 썰어 만두 속에 넉넉하게 담아 먹으면 봄에 입맛을 살리는데 탁월하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사찰음식은

사찰음식은 일반적으로 몸과 정신을 맑게 성장시켜주는 선식(禪食)을 말한다. <열반경>등 대승경전에서는 어렵게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난 도리로써,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생각하고 육신을 잘 돌보라는 의미에서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음식의 맛은 식품 그 자체가 주는 맛이다. 음식으로 인해 마음이 기뻐지는 것으로, 음식은 좋은 약이 된다. 특히 사찰음식은 '기'의 맛을 갖는 음식으로 정적인 음식이다. 먹으면 밖으로 표출되는 힘이 아닌, 내면이 충실해지는 음식이다.(선재 스님) 사찰음식은 '맛있다', '맛없다'를 따지지 말고, 그저 음식 고유의 특성을 음미하며 잡생각 없이 먹는 음식을 말한다.(대안 스님) 또한 온 우주와 자연에 대한 존중함을 생각하며 먹는 것이 사찰음식이다.(적문 스님) 하찮게 여겼던 풀 한포기의 생명도 존중할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사찰음식은 단순한 채식, 건강식이 아닌 수행식이다.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먹는 음식이 사찰음식이다.



불교·명상·전통음악 만나면

작곡가 윤소희의 '소리♬향'

불교와 명상, 한국전통음악을 접목한 뮤지션 윤소희씨가 '소리♬향' 음반을 출시했다. 윤소희 작곡가는 전통과 현대, 동서양을 조화롭게 아우르며, 현대인들의 감성을 자극해 왔다. 윤 작곡가의 이번 음반은 현재 재판이 진행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신나라 레코드 홍보실 관계자는 "음반을 구입한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앨범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앨범을 구입한 사람들은 윤소희 작곡가의 다양한 음악구성과 한국 최고의 연주자들이 연주했다는 점을 이번 앨범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고 말했다.

윤소희씨의 곡은 음색과, 악풍이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동서양 악기를 퓨전식으로 접목해 같은 악곡이 음색이 달라지면서 변해가는 재미를 느껴볼 수 있게 했다. 또한 소금, 대금, 가야금, 거문고 등 전통 악기를 다양하게 구성해 음색의 대비를 섬세하게 표현해 냈다.

앨범에는 9곡의 곡들이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시대를 뛰어 넘는 감흥과 세련미를 선보이고 있다. 자칫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음악의 흐름이 절묘하게 배치돼, 매끄러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로 대비되는 악상과 템포의 변화를 적절하게 배치한 윤소희 작곡가만의 뚜렷한 색깔이다.

일찍이 평론계에서 윤소희 작곡가는 "상상계의 폭이 넓은 작곡가"라고 불릴 만큼, 그의 곡들은 풍성함 그 자체이다. 이는 작곡가가 클래식, 현대음악, 한국전통음악 등을 두루 섭렵하고, 음악인류학을 전공하며 세계음악에 대한 폭 넓은 연구가 이러한 음악적 세계를 낳은 것으로 보여진다.

윤소희씨는 "이번 앨범에서 영문으로 악기와 악상을 설명해 불교와 명상이라는 동양정신을 세계 널리 알리고 싶었다"며 "한승구 화백의 연꽃을 앨범 자켓에 넣어 그러한 분위기를 더욱 살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기자



패각공예 관음보살 이탈리아 나들이

로마 국립민속박물관서 '한국의 나전과 옻 공예 특별전'

한국 고유의 옻(漆) 문화와 한국의 나전(螺鈿) 공예품이 이탈리아 로마에 소개된다. (사)근대황실공예문화협회(회장 이칠용)가 주관하고 문화재청 · 주이탈리아한국대사관 등이 후원하는 '한국의 나전과 옻 공예 특별전'은 로마의 국립민속박물관에서 4월 8일을 시작으로 5월 12일까지 열린다.

전시에는 중요무형문화재 나전장(匠) 송방웅 · 이형만, 칠장 정수화, 전용복 일본 이와야마(岩山) 칠예미술관장 등 최고 명장 28명의 작품 55점이 전시된다.

전시에는 목심칠기(나무에 옻칠), 금태칠기(금속), 칠피공예(가죽), 지승공예(꼰 한지), 와태칠기(옹기), 패세공(조개껍질) 등 11개의 칠기분야가 선보인다. 또한 피아노 건반 뚜껑에 달걀껍질을 활용한 난각칠기 등 현대적으로 응용한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각 종교의 상징을 나타내는 작품들이 한국의 옻과 나전공예로 표현돼 관심이 주목된다. 김관중 명장의 '관음보살'은 두꺼운 원패를 세공해 관음의 우아한 자태를 빚어내 패각공예의 화려함을 보여준다.

또 전시장이 천주교의 근거지인 바티칸과 가깝다는 점을 감안해 나전칠기 십자가, 그리스도상 등도 함께 전시된다.

이밖에도 칠 그림의 바탕이 되는 도안, 칠을 입히기 전의 목기인 '백골', 옻나무 샘플, 채취한 옷이 전시된다.

이칠용 회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국 나전칠기가 전 세계 천주교회의 전례용품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1통, 갑근세 증명1통, 전세 계약서 사본1통)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 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 담 010-9955-9093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준비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불자 보살님들 여러분이 인도하여 주시며, 형제같이 지낼 분
2. 본인이 여러남자 선을 보고 자유로 선택하여 결정함.
3. 3개월까지 무료 침식제공
4. 일본은 불교국가라 불자 우대
5. 우리도 넓은 세상을 바라봅시다.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한함 , 재혼자 남·여
(가족 사항 자세히 기입 할 것)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유무

자비회에서는 궁합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 해 합장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쟈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 도 모 집

세계 불교를 주도하고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전통불교종단입니다.



총 무 원 : 대구시 북구 읍내동 1122번지 대승사
☎ : 053) 325-5288 , 053) 325-0400
팩 스 : 053) 325-4848 , 010-6306-0082
E-mail : sambo111@hanmail.net

부산 자원암 011-586-4648 경남 불광사 010-3581-8246
대구 무량사 010-2532-7769 경북 부도사 010-3007-5611
충북 천수사 010-4923-4927 대전 청인사 010-5457-3344

종정 예하 태화 석가산 대선사
총무원장 적묵 석능인 화남 중앙종회의장 적운 석묘각 화남

최연의 산 이야기 <7> 북한산 6

궁궐의 좌향이 〈坐向〉 조선의 운명을 갈랐구나



북대문인 숙정문과 주산인 북악 사이에 쌓은 도성. 멀리 인왕산이 보인다.

한양(漢陽)이 조선의 도읍으로 선정된 것은 북한산이 조종적(祖宗的) 위치를 차지하는 명산으로서의 위용을 갖추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산줄기들이 필요한 곳에 봉우리들로 솟아올라 한양 도성을 이루는 역할을 충분히 해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산에서 흘러 내려온 봉우리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도읍을 건설하였는지 풍수지리적인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였으니, 궁궐(宮闕)의 좌향(坐向)과 도성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다. 궁궐의 좌향이 정해져야만 그것을 기준으로 좌청룡 우백호가 정해지고 궁궐과 도읍의 기반시설들의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역성혁명으로 개국한 조선은 새로운 사상인 주자학(朱子學)을 신봉하는 신진사림(新進士林)들이 개국공신들이었기에 불교를 배척하고 주자학의 이념에 맞게 궁궐의 좌향을 정했다. 임금이 남향하고 신하가 북쪽을 향해 예를 갖추는 형식에 따라 좌향이 남향(南向)이 되었다.

좌향이 남향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내사산(內四山) 중에서 주산(主山)은 당연히 북쪽에 위치한 북악(北岳)이 되고, 좌청룡(左靑龍)은 낙산(駱山), 우백호(右白虎)는 인왕산(仁王山), 안산(案山)은 목멱산(木覓山)이 되었다. 이 내사산 사이를 도성으로 둘러쌓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그 사이사이에 남대문인 숭례문(崇禮門), 동대문인 흥인지문(興仁之門), 서대문인 돈의문(敦義門), 북대문인 숙정문(肅靖門)의 4대문을 냈다. 또 대문과 대문 사이에는 소문을 배치했다. 남소문인 광희문(光熙門), 동소문인 혜화문(惠化門), 북소문인 창의문(彰義門), 서소문인 소의문(昭義門)이 4소문이다.

그리고 멀리 외곽을 둘러싼 외사산(外四山)으로 북쪽과 남쪽에 조산(朝山)인 북한산과 관악산(冠岳山)이, 동쪽으로는 삼국시대의 쟁패지역이었던 아차산(峨嵯山), 서쪽으로는 행주산성이 있는 덕양산(德陽山)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남향으로 하는 좌향이 풍수지리적으로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주산인 북악이 바위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울어져 있고, 바위가 인수봉이나 인왕산과 같이 매끈하게 단정하지 않고 깨진 푸석 바위라는 것이다.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이 의지하는 주산이 비뚤어지고 단정하지 않다면, 올바른 임금이 나오지 않고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못난 임금이 배출되며, 간혹 성군이 나왔다고 해도 그 뜻을 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선조에 스물일곱 명의 왕이 나왔는데 현군이라 불리는 이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둘째는 우백호인 인왕산(338m)이 좌청룡인 낙산(120m)보다 너무 높아 세력이 크다는 것이다. 풍수학에서는 좌청룡은 장손(長孫), 우백호는 지손(支孫)과 여손(女孫)으로 본다. 조선은 장자(長子)가 세습하는 사회였다. 그런데 장손에 해당되는 좌청룡이 약하고 지손에 해당하는 우백호가 강하니, 장손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고 지손이 장손을 몰아내는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조에서 장손으로 왕 위에 올랐던 이들은 거의가 단명했거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그중에서 왕 노릇을 제대로 한 임금은 선조(宣祖)와 정조(正祖)인데, 선조 때는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크게 위태로웠고 정조는 단명했다.

셋째는 손님에 해당되는 안산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주산인 북악이 주인이고 우리나라의 임금이라면, 안산인 목멱산은 손님이고 다른 나라이며 신하가 된다. 안산이 너무 높아 위압감을 주면 신하가 임금을 억누르고 결국에는 임금을 치게 되고,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된다.

조선시대에 신하에 의해 세 왕이 쫓겨났으며, 다섯 차례(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일제 침략) 외침을 받았다.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빼앗기고 조선조는 막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풍수지리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학대사(無學大師)는 궁궐의 좌향을 동향(東向)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무학대사가 주장한대로 궁궐의 좌향이 동향이 되면 주산이 인왕산이 되고 좌청룡이 북악, 우백호가 목멱산, 안산이 낙산이 된다. 좌청룡 인왕산이 우백호 목멱산보다 80m 정도 더 높고, 안산인 낙산은 사사산 중에서 가장 낮은 산이므로 신하들에 의한 하극상과 다른 나라로부터의 침략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형국이다. 그러나 몰락한 왕조의 고승인 무학의 주장은 역성혁명의 주역이며 주자학의 신봉자인 삼봉 정도전에 의해 묵살되고 만다.

그러나 머지않아 신권정치(臣權政治)를 주창해 온 정도전은 그의 주자학 이념에 의한 새로운 정치를 펼 보지도 못하고 왕권강화(王權强化)를 주창하는 이방원(李芳遠)에 의해 척살되고 만다.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자연의 눈

산불감시초소가 있는 산정엔 '산불 조심'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감시초소 앞뒤로 두 개, 산 아래에서 초소가 보이는 곳에 또 한 개, 세 개의 깃발이 삼각형을 이루어 멈춤 없이 휘날리고 있었다. 붉은 깃발이 퍼덕이는 소리가 산정을 흔드는, 초소 앞에 서서 보니 옥동천 상류지역이 펼쳐졌다. 꾸물꾸물 기어가는 강줄기 따라 강변에 자리잡은, 논밭과 사람의 집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모습이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 같다.

"면사무소에서 귀찮게 굴진 않나?"

"일주일에 한 번 일지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거 빼곤 별다른 일은 없어."

다행이다. 자라나는 자식 둘만 아니라면 산불 감시원으로 나서진 않았을 사람이다. 산골짜기에 박혀 살면서 세상 흐름과는 거의 무관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짓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성싶다.

나이 오십이 말해주는 것인지, 상연이도 이젠 늙어가는 티가 얼굴에 묻어 있다. 잔주름이 드러나고 푸석푸석해진 얼굴을 보고 있으니, 윤기가 흐르고 탱탱하던 2,3년 전의 얼굴이 떠오르질 않는다.

자리에서 일어나 뒤편을 바라보니 단양으로 내려가는 남한강 줄기가 제법 품을 널따랗게 열며 흐르는 '맛밭'이란 곳이 보인다. 정선에서 내려온 떼꾼들이 뗏목을 멈추고 술 한 잔 마시며 쉬어가던 곳이라고 하나, 그날의 정경은 내가 선 곳과 맛밭 사이의 거리만큼이나 손에 잡히질 않는다. 그곳에서 가까운 작은 골짜기 속에 상연이의 집은 있다. 그러고 보니 내 집과 상연이의 집 중간쯤에 산불감시초소가 서 있는 셈이다. 내 집도 산에 가려 보이지 않긴 마찬가지이니 제대로 중간 지역에 있는 모양새다.

> 아귀다툼이야말로 인간들이
> 이 지구상에 혹은 우주에
> 끝없이 던지는 꽃송이들이
>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상연이가 차를 타주겠다며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감시초소로 올라간다. 사람 키만큼의 높이로 쇠기둥을 네 개 세운 뒤 그 위에 육각형의 집을 올렸다. 따라 올라가 보니 사람 하나 웅크리고 누울 정도의 크기다. 사방으로 유리창이 나있어 의자의 방향만 돌리면 사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지금은 휴대폰이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무전기가 한 쪽에 놓여 있고 책도 몇 권 쌓여있다. 때가 잔뜩 낀 가스레인지와 재떨이도 보였다.

초소 안에 들어서니 바람 하나 막아줄 뿐인데도 안온한 느낌이 번져온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이었을까? 안에서 밖을 보니 나가고 싶다.

커피가 담긴 잔을 들고 초소에서 내려와, 앉아있던 자리에 다시 앉았다. 한 달 전쯤에 샀다는 라디오에선 남녀의 수다스런 이야기들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와 바람소리에 섞여 날아간다. 라디오 옆의 망원경이 흔들리는 라디오의 말들을 바라보기라도 하는지 덩그러니 맞은 편 산을 향해 눈길을 주고 있다.

"몇 시까지지?"

"어, 이제 다 됐어. 다섯 시에 같이 내려가자."

도시락 가방을 챙기는 (15년 남짓, 가깝게 지내면서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상연이를 바라보면서 나는 산 아래 강변 마을을 다신 못 볼 것처럼 바라보았다. 언뜻, 평화롭고 포근하게 보였다. 다닥다닥 붙은 저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먼 거리인가를 그만 잊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비록 잠시일지라도 인간의 시선을 내려놓고 나무나 구름 혹은 바람의 시선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일렁였다.

한시도 멈추지 않는 전쟁과 이웃들 간의 다툼으로 피비린내가 깔린 인간세상도 자연의 눈으로 본다면 끔찍이 아름다운 세상이다. 칙칙한 세상을 하얗고 노랗고 붉게 물들이며 꽃이 피듯이, 피와 살이 튀는 이 세상의 아귀다툼이야말로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혹은 우주에 끝없이 던지는 꽃송이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병들고 늙고 죽음도 이 세상을 가득 채운 꽃송이들 중 하나임을 부정하고 싶지가 않다.

■ 유승도 (시인)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수공예양초
한봉밀납양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벌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법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 학 · 빙의 · 퇴마
스님이 쓰는 역학과 최면 영가와 명리를 실전위주로 확실한 비법을 개인지도함.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역학 : 귀신 빼는 명리(우주물상을 연상법으로 사주, 궁합, 택일, 작명)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귀신든 병
스님 : 염불, 사물, 사찰 운영법 지도
부산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역학 동영상 CD 판매
역학! 집에서 혼자 학습 할 수 있습니다
www.saju.or.kr
010-4800-2378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굿불교전통의식굿
불공, 49재(입제,회향)
범음범패
천도재, 산신기도, 방생기도,
점안식, 이운식, 작법, 바라
* 성심 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금해 스님
010-4720-6522

전 통 범 음 범 패
실전위주 교육
천도재, 49재, 점안식, 수륙재, 영산재, 화청, 바라나비무, 각종불공
천도전문도량
학인모집, 신행상담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범음대학)

역학 개인지도
(명리학, 신점)
- 조용한 도심사찰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하실 분
- 철저한 개인지도
- 숙식제공, 30일 완성

032)584-4684

혜봉스님 비법전수
- 빙의퇴치법, 무병장수, 죽비 타골법.
- 전수비 999천원
- 전수기간 9일

한국심령과학연구회
(www.jijang999.com)
070-4123-8553
011-9585-4908

범음 범패 교육도량
실전위주
학인모집
사찰 각종 행사 전문
효타암 (부산, 경남)
010-6569-1010

명리(사주) 명상(최면)
무료강의
대상 : 서울, 경기지역 스님
017-313-1232
010-3778-2257
불교명상연구회 회장
지장사 주지 오공 합장

정다원 결혼정보
초혼 재혼 전문
남여 대기자 각 500명
방배동 10년 경력
02)588-6118
010-2914-61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9854-9810

경북지역 천년고찰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527-063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평
010-8922-1168

비구니 스님이 계신 사찰로써 불심과 신심이 있는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50대 중반 환영, 숙식 제공
울산시 북구 연지암
052)298-9911
010-4030-8188

불사 함께 하실 참신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제천 서원사
043)644-4580
010-4543-458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금호동 관음사, 50세 이하
010-6260-3310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3517-1209

처사님(기사) 모십니다
▷숙식가능한 분,
50대, 경기도
011-264-8312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조용한 산사에서 비구, 비구니 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0-9421-0730

작은 절입니다.
적은 보시금으로 함께 생활하실 공양주 보살 연락 바랍니다
▷경남 의령군 소재
010-9787-0455

사람을 찾습니다
- 이름 : 허영림(여)
- 60세 전반, 스님이 되어서 결핵을 앓았고
- 외국으로 나간다고 서류를 한적이 있음.
- 어머니 성함 : 성기마(81세)

011-9189-1178

공양(조리원)보살님
아동복지시설 진여원
- 급여:지자체지원기준, 자격증:조리원,
- 연령:여50~55세,
- 지역:충북 충주시, 상근가능하신 분,
- 제출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이곳은 아동복지(생활)시설로 아이들과 직원 약40여명 정도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실 신심이 돈독한 분을 모십니다.
전화 043)851-6013
팩스 043)856-6013 담당 : 수경화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 진여원

포교원 맡아 운영하실 비구, 비구니스님 연락주세요
학인스님 가능
▷충북 진천
043)532-3271

여 사무장 구합니다
(PC 가능자)
40~50세, 출퇴근 가능
▷서울 강북소재 사찰
011-9087-6287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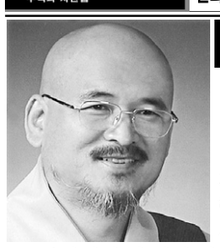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한옥 사찰건축 전문
- 완벽한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 및 사찰불사 자문일체 (토목, 건축공사 일체)
- 먼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안목
- 건축 전(全)공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찰불사(佛事)로서는 귀중한 돈만 낭비되고 결코, "절 다운 절이 되지 못하며 그러한 사찰은 도량의 기운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껏 보고 지적해왔습니다

고건축 전문 기능인 그룹 (人安)
031)581-2120 / 061-741-1624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모집
백고좌 대법회 봉행도량에서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을 함께 모십니다.
- 누구나 수행하는 열린도량!
- 개성존중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서 수행공부와 수계이후의 모든 지원
- 성 별 : 남자 (행자) ● 학 력 : 고졸이상
- 비구,비구니 : 각각 1명(기도&법사) ● 숙식가능 공양주 및 종무원모집 : 2명
-법왕불교대학수시모집 : 경전(법화경),기초교리

※매년 1회이상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하며 법납 30년 이상 비구,비구니 법사스님의 추천을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1길 2-9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www.bubwangsa.or.kr 053)766-3742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분야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경산,칠곡,구미,포항,서울,뉴욕,김포 4월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렵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동대문구 T : 2243-9598. H.P : 018-470-6314
지현역리학연구원 http://kr.blog.yahoo.com/han10305

대불교 조계종 입종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에 제방 스님 법사님들께서
대불교 조계종 입종에 관한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입종 절차를 안내합니다.

- 입종자격 : 사찰을 운영하시는 주지스님 사찰에서 수행 정진하시는 스님 , 포교당을 개설하실 분 , 부처님을 뫼시고 수행하시는 법사님, 보살님
- 입종서류 : 주민등본 1통, 사진(여권용) 3매, 이력서 1통, 종단서식 (총무원, 각 지역종무원비치)
- 각 종무원 : 부산 종무원장 로도 (010-6717-5108)
  경기남부 종무원장 청허 (010-3438-1280)
  충남서부 종무원장 혜안 (010-5342-1376)
  경북 종무원장 해능 (054-781-4054)
  전북 종무원장 진성 (063-546-0048)
  충북 종무원장 오봉 (043-297-0394)
  광주전남 종무원장 성산 (062-261-1515)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여권용사진 3매 (입종원서 등은 본종단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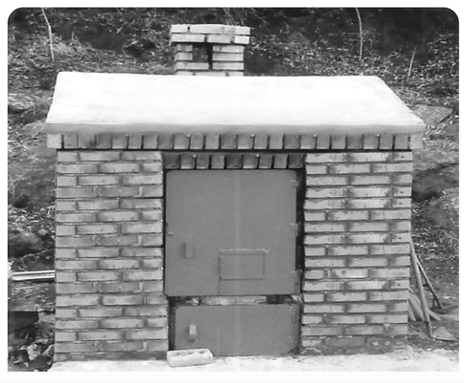
※ 본 종단은 사유재산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불교 조계종 총무원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학생회관 1길 29호
전 화 : 041) 551-5537 FAX : 041) 621-5537

그을음 없는 소각장과 구들장 없는 황토 온돌방 개발

소각장의 매연으로 불편하십니까?
항상 신경 쓰이는 그을음!!
그을음을 해소 하고 연소시켜 그을음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소각장!!

- 반 영구적인 화연대.
- 가로 1200㎜ × 세로 1300㎜의 부지만 있으면 설치가능.
- 내부에 황토로 마무리 작업을 하므로 불의 열기에 의하여 내부가 튀지(깨어지지) 않는다.
- 사찰 및 공장, 도심속의 포교원 및 일반 가정집의 필수 요건.
- 8년의 수행 생활 속에서 온돌 방의 단점을 보완한 구들장 없는 황토 온돌방!! 환경 오염과 에너지 절감을 생각하는 마음과 매연가스가 일체 없는 황토 온돌방 : 한번 지핀 불로 24시간 열 유지. (스님의 수행 및 선방에 꼭 필요한 온돌방)



산청군 시천면 공 덕 암
문의전화 055)972-0338, HP 011-895-2258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종 정 정 화
총무원장 혜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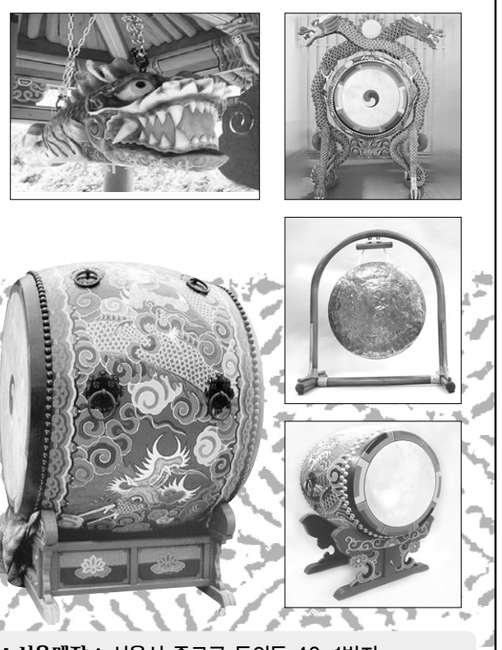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함께 하고자 하시는 비구, 비구니, 법사, 포교사님을 모십니다. 좋은 인연 되시길 바랍니다.

- 입종서류 : 본종단 소정양식,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사진 4장, 법당 내외사진 각1장, 주민등록 앞 뒤 복사본. (무속인 입종은 사양합니다)
- 입종하시는 즉시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하여 드립니다.
- 각 지역별 종무원장 또는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 보호법 중에서 --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문의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
- 법당 및 요사: 26평
- 부지: 82평
- 가액: 6,500만원
- 마을끝이며,앞에바다가 보이는최적의토굴

- 위치 : 경북
- 법당 : 50(외 44)
- 요사 : 117
- 부지 : 3,000평
- 가액 : 13억
- 불사금 30억 이상 소요 급매가임

- 위치 : 경북
- 법당 : 4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230평
- 가액 : 2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법당: 25평
- 요사: 60평
- 가액 : 15억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1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 5천

- 위치 : 춘천
- 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4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전국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위탁알선판매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및 토굴안내

무릉도원 토굴터

- 대지 평수 : 1만 3천평
- 관리지역 1천평(평지), 임야 1만 2천평
- 계곡 및 경관 아주 수려
- 좌우 청룡백호, 앞 안대, 전망 최고
- 가액 : 1억 6천

바다전망 아름다운 대사찰

- 총 대지 : 약 2,500평
- 법당 32평, 목조(3포5포)
  공양간 50평, 요사채, 대종각 외 건물 5동
- 주차장 300평, 텃밭 1,200평
- 총금액 : 15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동구 소재(팔공산)
- 부지 : 약 100평
- 법당: 35평(3층)
- 요사채: 70평(1층,2층)
- 공양간 : 20평
- 가액: 2억 4천만원
- 특징: 팔공산자락의 산중 사찰로 포교지로 좋음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시 신광면 소재
- 부지 : 200평(종교용지) ●법당: 30평(목조, 단청)
- 요사: 30평 ●가액 : 1억 3천만원

사찰안내(포교원)

- 위치 : 대구 광역시 ●법당: 40평(방2)
- 가액: 보증금 500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1500만원

사찰안내(전세)

- 위치: 경주시 산내면 ●부지: 2,000평(종교용지)
- 법당 35평, ●요사: 35평 ●가액: 전세 2억원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 40평
- 요사채(1,2층) :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3억 7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단독사찰안내

- 부산 영도 영선 1동
- 대지 36평
- 1층요사채 22평,2층법당 15평
- 시설완비
- 가액 : 3억 5천
  (융자 3억 안고, 5천입구)

010-4940-0195
010-8995-019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
-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 주차시설완비
- 가액: 1억 8천만원
  (답사 후 조절 가능)

011-297-9149
010-5483-7502

암자 · 토굴 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 대지 344㎡, 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 1, 인법당
- 가액: 1억 8천 5백만원

055)632-384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내
- 재래시장안에 있는 포교당
- 보살, 법사님, 스님에게 적합함
- 법당 45평
- 보증금 4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9367-2618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자연관광지
- 계곡물 철철,경관 수려함
- 법당, 요사채 산신각, 각 1동
- 부지 임야 10,000평
- 가액 : 4억

011-877-7677
010-4876-55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 140평
- 가액 :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조용한 토굴(급)안내

- 위치 : 공주시 정안면
- 평수 : 25평, 20평(등기필)
- 황금벽돌
- 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있음
- 가액 : 3천 5백만원정
- 중국 청도 이주로 급 양도

011-9405-81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율동리
- 대지 및 건물 : 8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책 약 50평
- 산신당 약 5평, 용왕당 약 2평
- 가액 : 평당 40만원

016-9711-8309
011-9570-830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천면
- 총 1309평 중 종교용지 220여평
- 법당 1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42평
- 부곡온천 차로 7분거리 논리보건소 인근
- 가액 : 1억 5천만원

010-8675-4088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역세권
- 대지 23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각 40평
- 은행융자 3억원, 노인요양병원 적합
- 가액: 7억 9천만원(절충가능)

011-584-129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 주택빌라 아파트 밀집지역 4거리 코너
- 평수 : 30평 (3층 중 2층)
- 탱화10점, 소불100분, 인등 270등
-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천만원 답사 후 절충가능 (새롭게 완벽 시설)

010-2446-2626

사찰터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 전기시설 완벽, 단독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 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시골한옥안내

- 위치: 경북 고령군
- 시골 한옥 평생사실 스님
- 시설비 300만원

010-8839-1890

사 찰 안 내

- 250년의 도심지 최고의 포교지 고찰
- 위치: 부산시 중심가
- 평수: 200평, 법당 목조 30평,
- 산신각 목조단청완료
- 요사채 및 방사 7개
- 250년 된 소나무 두주
- 가액: 7억 5천만원

011-590-2878

사찰터안내

- 위치: 울산 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 바로 뒤 산
- 1급 주거지역
- 가액: 평당 90만원 (절충가능)

017-855-6717
017-856-2344
052)247-734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목조) : 약 20평, 산신각,요사채,2동중황토방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011-816-9104
011-815-9104

주택토굴안내

- 위치: 밀양시 부북면 덕곡리
- 밀양 자동차학원 북측 500m거리
- 대지 200평
- 건물 3동(총평수 109평)
- 3동 중 2층 건물 1동
- 심야보일러, 지하수 시설완벽
- 가액: 2억 1천만원

011-836-1829
010-3351-182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접
-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약 50평
- 큰대로변,건물내주차장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 오존불
- 보증금 1,500만원,월 11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70-8805-1233
010-4740-3001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주안
- 대지 50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25평,
- 2층 법당 25평
- 3층 옥상 삼성각
- 아파트, 재래시장,
- 여성복지관 인접
- 교통편리. 법단 원목시설
- 가액 : 4억 1천만원

010-8941-1484

농가주택(급)안내

- 사찰암자적지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덕산리 23번지
- 장안산 덕산 계곡 상류
- 면적 1792㎡, 목조 79㎡× 목조66㎡ = 2동
- 상담후 가격절충가능

011-644-2563

포교원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 지하철 3분거리
- 3층 65평, 방 3, 공양간, 법당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400만원
- 계산시장 입구
- 해외유학관계로 급 양도

010-6478-7750

암자나 포교원 구 합 니 다

- 창원이나 마산쪽을 원합니다
- 전세나 양도 원합니다
- 가격대는 저렴한것으로 (오천만원 정도선)

010-4605 -0145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남대로,논현역 7호선 신논현역 9호선 중간 영동시장 대로변
- 위치 A급● 법당시설완비
- 사무실, 방 1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150만원

- 시설비는 절충

010-4031-664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7평, 2층건물
- 1층 요사채 34평
- 2층 법당 24평
- 특징: 안강읍 시장, 대형마트 각각 5분거리
- 1,2층 모두 도시가스 설치
- 가액 2억 3천만원 은행융자 6천가능

054)763-66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구미, 김천 중간
- 대지 : 532평
- 법당 20평, 식당 20평, 요사채 20평
- 통나무집 1채, 총 7채
- 가액: 1억 7천만원 대출 5천만원 가능함

011-540-331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언양, 독채
- 대지 440평, 건물 대략 50평
- 큰방 3, 거실 大, 주방大
- 법당은 거실과 함께 꾸며져있음
- 마당, 버스 4~5대가량 들어올 수 있는 넓이
- 보증금 2000만원, 월 30만원

010-2291-5558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역 2분)
- 평수 약 42평 (3층중 2층)
- 법당 약 20평
- 방 2개 주방겸 거실
- 포교활동 최적지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별도

010-4626-2258

사찰암자전세안내

- 위치: 경북 영주시 소백산(내)
- 경관이 수려함
- 평수: 2층건물(1층 15평, 2층 15평) 지하암반수 1일 50톤 수량 풍부함
- 가액: 1평당 25만원 전세 가능함 (가액절충)
- 연락주시면 사찰전경 및 세부안내 e-mail로 발송해드림

010-5385-8553
011-481-096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5층 건물중 2층 전체
- 평수 약 60평, 법당원목마루
- 삼존불, 탱화, 소불 300불, 인등
- 방2,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 보증금 2,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700만원(절충가능)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

010-4520-5473
010-8335-13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대지 총 8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2채, 방 4
- 큰 창고, 주차시설완비, 관상용 양어장
- 깨끗한 약수가 있는 곳, 현재 관광지 목적으로, 립도(林道)산림욕을 공사하고 있는 곳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

010-3138-48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 옆
- 평수 30평
- 원불 300분 모심
- 10년된 안정된 곳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 45만원

010-3723-0777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군
- 평수: 480평
- 임법당, 교통편리
- 포교와 수행하기 좋은 도량
- 가액: 1억
- 통화가능시간 : 정오 12시~ 오후 18시까지

010-5226-153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팔달동 마을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차고, 창고, 법당 뒤 대나무,
- 옆 계곡, 깨끗한 우물
- 계절마다 꽃이 피고 산세수려
- 즉시 법회 가능 몸만 오시면 됨
- 평수 대략 250평
- 문중땅. 건물 시설비 6,900만원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4504-7809

포교원(급)안내

- 서울 화곡역1분거리 번화가
- 버스정류장앞 시장입구
- 3층건물 중 3층 옥상사용 ●법당 20평
- 후불탱화, 백의관음불, 후불,산신탱화
- 현 성업중, 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2300만원 . 확장불사관계로 급 임대함

010-3552-3351

사 찰 안 내

- 최고의 명당 사찰 터
- 위치: 경북 청송 주왕산 사계절이 펼쳐지는 곳
- 총 대지 : 4,000평
- 대웅전, 30평, 관음전, 지장전,삼성각 단청완료
- 석등 大 4개, 中 4개, 석탑 3,●요사채 및 방사 4개
- 일급수약수물자연식수,복지시설,약초재배도가능
- 종단 본산 수련장, 교육도량으로 적합
- 도로 사정 아주 좋음 ●가액: 5억

011-590-2878

포교원 (급)안내

- 수원시 세류동 주택가 지하 45평 수원 시외 버스터미널. 밀레오레 300m
- 법당1, 방사2, 샤워실1, 세탁실1, 창고1
- 칸막이 시설 되어 있음 (시설비 의논 가능) 가액: 1억 1천 5백 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1-279-3538
010-3391-3538

단독건물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
- 평수 : 약 100평
- 법당, 방2, 화장실, 거실, 부엌
- 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보증금 4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약 1,1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마당 텃밭 주차장 완비

010-4450-2858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평당 18,000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포교원(임법당)적합 안내

- 경북 칠곡군 왜관읍
- 대지 232평 , ●건물 60평 (신축4년)
- 스님거주 방 2개 ,거실 15평 ,부엌
-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낙동강 주변 경관이 좋아 포교당운영에 적합할 위치로 여겨 인연있는 스님, 뜻있는 불자분 환영합니다.
- 주차시설, 심야전기 시설완비
- 현 시세에 맞지않는 3억 2천만원

054)973-3899
011-803-7448

전통찻집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교현동 ●평수: 35평
- 봄, 여름, 가을, 겨울 물 흘러가듯 이의 전통 사주차 마실에 도영입니다
- 작은 손길의 때가 묻은 아름다운 마실을 이어갈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 가액: 보증금 +시설비 2,000만원 월 15만원 (시설일체)

010-4046-66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IC부근)
- 대지: 220평
- 건물 1층: 요사채 47평, 방6, 주방, 거실, 화장실
- 건물 2층: 법당 23평,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산신각 4평 별도)
- 기타: 심야전기, 옥외주차장 약 80평, 옥외화장실 남녀 각 1개
- 집기일체, 당일법화 가함, 몸만 오시면 됨
- 노령으로 양도코자 함
- 가액: 2억 8천만원(절충가)

011-9114-9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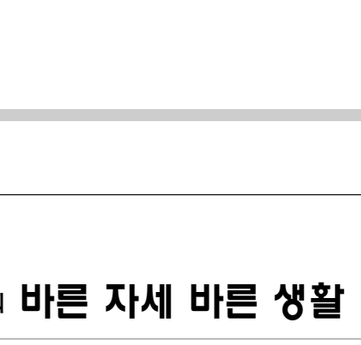


Dr.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⑭ 강직성 척추염

통증을 줄이려면 운동을 해라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나타나는 염증성 관절염의 한 형태입니다. 척추와 골반 사이의 천장관절로부터 시작해 척추의 여러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며 척추 외에 고관절이나 슬관절 같은 다른 부위의 관절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관절염이 척추를 침범하면 척추의 여러 마디가 하나의 뼈로 유합돼 각 마디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에서 '척추염'이란 척추에 염증이 생긴 것을 의미하며 '강직'은 뼈의 여러 마디가 하나로 뭉쳐 움직일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인구 1000명 당 1명 꼴로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드문 질환입니다. 유전적인 성향이 강해 가족 중에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젊은 남성에게 잘 발병하며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률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발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40세 사이에 발병하지만 드물게 어린이들에게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증상에 걸린 사람의 측면 모습.

강직성 척추염은 심하게 표현하면 에이즈 보다 무섭다고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에이즈는 잠복기를 거쳐 병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목숨을 잃지만, 이 병은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뼈가 굳어지면서 손쓸 새도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대나무처럼 허리가 굳어버리는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생기면서 척추를 타고 장기간에 걸쳐 뼈가 굳어가는 질환으로, 관절염 증상과 비슷해 척추 관절염이라고 불립니다.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다가 중후기로 진행되면서 관절 근처에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이 발생합니다. 주로 발꿈치 아래, 발가락, 무릎 주위에서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증상 말기에 이르러서는 척추와 골반, 목뼈까지 굳어지게 되면서 결국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가 뻣뻣하면서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통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관절이 강직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절운동을 원활히 해주기 때문에 약물치료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의 비틀린 체형과 관절을 바르고 균형 잡힌 자세로 생활하도록 만드는 체형 교정 치료와 체형교정 운동을 꾸준히 받으면 관절의 강직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체형교정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방문한 여 의사가 있었습니다. 여 의사는 아침에 허리가 뻣뻣하면서 통증이 있고 심할 경우 잠을 자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깨어나기도 하다 전문적인 약물치료를 통해서도 차도가 없어 체형 교정 처방을 받기 위해 내원한 분입니다. 체형 교정 관리 후 그 분은 이전의 뻣뻣하게 굳어있던 근육이 서서히 호전되어 가는 것을 느끼신다고 말했고, 허리 통증이 상당히 완화됐다며 만족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매일같이 맞춤 체형 교정 운동을 열심히 하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이 분의 사례와 같이 강직성 척추염 환자분들 사이에서 자신의 몸에 맞는 맞춤 운동 처방의 중요성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의 수동적인 약물치료에서 적극적인 운동 치료로 변해가는 추세입니다.

바쁜 일상생활과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허리 통증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불길을 초기에 잡으면 산을 태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자가 진단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허리나 뒷목이 뻣뻣하고 움직이면 좋아진다.
2. 목이 뻣뻣해서 좌우로 돌리거나 뒤를 돌아보기가 어렵다.
3. 무릎 · 발목 · 발뒤꿈치 · 어깨 등이 꼭 한두 군데 씩 자주 붓고 아프다.
4. 가끔 한쪽 눈이 심하게 충혈 되면서 통증이 반복된다.
5.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염증성 요통.
6. 허리의 굴곡 운동 제한.
7. 흡기 시 흉곽 팽창의 제한.

위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포스츄어앤파트너스 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김경현 원장의 몸 · 마음 이야기 ❷ 심신의 조화

삼독심이 몸의 조화로움 흩트린다

〈貪嗔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다(天圓地方). 하늘은 탁 트이고 무한하여 만상을 안고 있고, 땅에는 사방의 방위와 상하의 질서가 있다. 걸림 없는 하늘의 이치는 걸림 있는 땅의 질서로 나타난다.

사람은 하늘에 치우쳐 날아다니지도 않지만 땅에 치우쳐 기어다니지도 않는다.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오롯이 서있다. 사람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며 서로 소통하고 있다. 사람의 머리는 하늘을 닮아 둥글고 사지와 몸통은 땅을 닮아 제 역할을 수행한다.

반산보적 선사는 "마음 달이 홀로 오롯하니 빛이 만상을 삼킨다(心月孤圓 光呑萬象)"고 말했다.

이는 둥근 머리에 둥근 마음만이 담겼을 때 거기서 밝고 맑은 삶의 향기가 나와 자신과 이웃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말이다. 조화를 이룬 삶은, 머리가 둥근 이치와 같다.

건강은 '몸과 마음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에 장애가 없는 상태'이다. 둥근 머리에 모난 생각이 가득하면 사지를 비롯한 몸통은 조화를 잃게 된다.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貪瞋痴) 삼독이 우리 마음에 퍼지면 몸은 조화로움을 잃는다. 모난 생각은 몸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 결국 전신의 부조화를 낳는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건강을 잃게 된다.

모난 생각이 몸에 일으키는 변화를 한방 생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솟구치는 성냄(怒)은 간을 상하게 하고, 지나친 화(火)는 심장으로 대표되는 순환기에 영향을 미친다. 우왕좌왕 헤매는 근심 걱정(慮)은 비장을 비롯한 소화기관, 슬픔과 우울(悲)은 폐, 두려움과 놀람(驚)은 생명의 원천 기운인 신장을 상하게 한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기에 오지(五志)는 오장에 병을 일으킨다.

반대로 몸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역(易)에 의하면, 하늘은 처음으로 물을 내고(天一生水), 그 물 속에서 불이 나와서 나머지 오행이 갖춰져서 만물이 이뤄졌다고 한다.

사람도 그와 같아서 인체의 원기는 물에 해당하는 신(腎)에서 비롯되고, 그 다음 심장의 불기운(火)에 의해 그 원기가 전신을 순환해 생명활동이 온전함을 갖추게 된다. 신의 수가 굳건할 때, 심장의 화가 적절히 제어돼 건강이 유지된다.

신수가 부족하게 되면 심화는 아래로 순환하지 못하고 위로 치솟는다. 물과 불의 부조화(水火未濟)가 만병의 근원인 셈이다. 부조화 상태에서는 아래는 차고 위는 뜨거우며, 심장은 무리하게 가동되는 데도 전신의 순환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맑은 정신과 평상심을 유지할 수도 없게 된다. 이런 부조화는 결국 온갖 화병과 순환기 장애를 불러오고 각종 대사 이상과 기능성 장애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생명의 본래 모습인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생리의 조화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신수와 심화의 상태를 살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

약으로만 천수가 보장되지 않는다. 건전한 생활과 열린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되어 버린다. 역대의 제왕들이 천수를 누리지 못했음이 이를 반증한다.

생활이 목표와 리듬을 잃고,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면 심신의 부조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바른 호흡, 균형 잡힌 음식, 적당한 운동, 쾌적한 정신 상태가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다.

태산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고, 흘러가는 인연에 머무르지 않는 자유자재한 마음, 이것이 둥근 머리에 담긴 둥근 마음이다. 경계에 흔들리고 오욕에 머물렀다고 느낄 때 둥근 머리를 만져볼 일이다.

모난 생각들을 바로 보아 그 바탕을 다스림, 스스로의 부처를 회복하는 길이자 건강을 다스리는 기본이다. 세상의 소리를 바르게 보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은 둥근 머리에 둥근 마음을 담은 사람이다.

선재한의원 (02)518-0845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⑭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음양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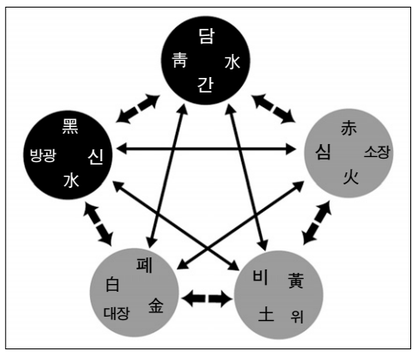
도교의 무술은 음양오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음양오행은 무술뿐만 아니라 역학이나 의학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음양오행만 정확히 구분하려면 이 연재가 다 끝날 때까지 설명하여 드려도 다 쓰지 못할 것이므로, 우리 삶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음과 양의 본뜻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언덕 위로 해가 떠오르면 응달과 양달이 생긴다는 데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경(內經)>의 음양응상대론(陰陽應象大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음양(陰陽)이란 천지(天地)의 길(道)이고, 삼라만상을 통제하는 기틀이다. 모든 변화를 주재하고, 살리고 죽이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또한, 신령한 기운이 가득 차 있어, 모든 생물체의 병(病)은 음양의 조절을 통해서 고쳐질 수 있다."

또 <주역>에서는 "우주 삼라만상에는 음과 양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기운이 있어, 이들 간의 대립되는 작용으로 인해 온 세상의 무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는 음은 땅이고 양은 하늘입니다.



음양오행 상생 상극도.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여 만물을 생성하고 키워내며 순환하여 만물이 무궁히 발전하는 것이 음양의 조화입니다. 그리고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의 오행의 특수한 기는 우주 만물의 원천을 이루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의 근본이 기(氣)에 있는 것입니다.

한문(木, 火, 土, 金, 水)을 보니 친숙한 단어들이지요? 중국 학문은 이 음양오행에서 시작하고, 이를 기본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중국 학문은 이 오행의 성질을 이용해, 서로 상생 · 상극하는 것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무는 불을 살린다(木生火), 불은 흙을 살린다(火生土), 흙은 금을 살린다(土生金), 금은 물을 살린다(金生水), 물은 나무를 살린다(水生木)'는 말처럼 자신이 타고난 사주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해 나가며 자신을 키워나갑니다.

음양오행은 인간사를 설명하는데 있어 인간을 소우주로 파악했습니다. 하늘이 만물을 낳지만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360개의 뼈마디가 있는데 이는 하늘의 둘레인 360도에 해당합니다. 사람의 형체와 뼈와 살은 땅의 두터움에 해당하고, 몸의 구멍과 혈맥은 내와 골짜기에 해당합니다. 마음의 희로애락은 사계절의 기후와 상응하고, 자연의 오행은 인체의 오장에 해당합니다. 바람은 사람의 호흡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행을 상생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면 목, 화, 토, 금, 수가 됩니다. 이를 사계절에 빗대어 말하면 봄은 낳아주고, 여름은 자라게 하고, 늦여름은 길러주고, 가을은 거두며, 겨울은 저장합니다.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경우 인은 목과 동쪽, 의는 금과 서쪽, 예는 화와 남쪽, 지는 수와 북쪽, 신은 토와 중앙에 해당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 음양오행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본이 되니 의미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 37수도장

불자정보

779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안내
- 위치: 대구 팔공산 5천평 도량터
- 반값에 드립니다 (불사 골조 공사 완료)
- 사찰부지 허가 필
- 전기, 지하수 개발완료
- 진입로 포장
- 주인직통

010-4512-0813

토굴안내
- 위치: 전남 장성군 서산면 금계리 축령산 휴양림 인접
- 대지 132평, 건평 17평
- 석간수, 공기, 물, 청정지역
- 비구니 스님 10년 공부한 토굴
- 아궁이황토방 1칸, 편백나무 방 2칸
- 가액: 4천만원

010-4915-8181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부전동 부전시장 근처
- 최고위치, 최고시설
- 법당, 방2, 식당, 식당방1
- 2층 55평
- 가액: 전세 1천만원에 월 30만원 가액은 답사 후 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0-6374-4446

암자안내
- 위치: 경북 영천
- 대지: 350㎡, 건평: 60평
- 구조: 법당 1, 거실 1, 방 3, 공양간 1, 창고 1
- 주변여건: 앞에는 큰 저수지가 바라보이고 뒤에는 낮은산 위치하고 있는 아담한 수행도량
- 가액: 8천 8백만원

010-4504-1246

임법당안내
- 위치: 충북 단양군 매포읍 부곡리 179번지
- 대지 80평
- 단독 슬라브집(적벽돌) 30평
- 임법당, 심야보일러
- 가액 : 6천만원

010-6315-1158
043)423-3134

단독사찰안내
- 위치: 부산 영도 영선1동
- 대지 36평
- 1층 요사채 22평
- 2층 법당 15평
- 시설완비
- 가액: 2억 9천 5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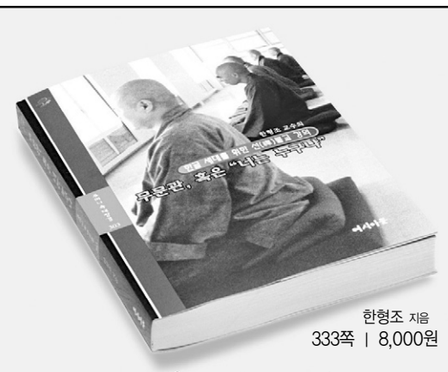
010-4940-0195
010-8995-0192

사찰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좌천동
- 대지: 300평
- 건평: 법당 (60평), 요사채(20평), (15평)
- 가액: 7억 8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18-4901

포교원안내
서울에서 포교원 꼭 하실분만
- 위치: 서울 서대문구
- 넓은 법당, 주지실, 주방, 화장실 시설 훌륭함
- 집기 일체 양도. 즉시 법회가능
- 소임관계로 양도코저 함
- 가액 : 시설비 포함 4,500만원(조정가능)

011-274-3853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사찰대출안내

30년 전통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사찰 전문 은행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웠습니다만 저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사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또한 도와 드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만족한 결과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 62만원입니다 !**
2. **출장비,대출수수료,꺽기등이 일체없습니다 !**
3. **위약금없이 마음대로 갚고 다시 빌릴 수 있습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대출안내
지 역 ☞ 전 국
형 식 ☞ 담보대출
금 액 ☞ 3천만 이상
금 리 ☞ 연7.2%~7.6%
기 간 ☞ 5년 (연장가능)

☎ **상무** 이강욱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016-9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다구를 찾아서

9 차맷돌

찻가루가 연기처럼 피어난다

모든 문화와 문물이 그러하듯이 당대에서 송대로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구도 한꺼번에 바뀐 것은 아니다. 단차를 갈아서 가루차를 만드는 다연(茶碾)을 봐도 그러하다. 휘종과 유송년, 심안 노인의 글 · 그림은 다연에서 다마(茶磨)-차맷돌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휘종(1082~1135)은 <대관다론>에서 다연의 재질과 모양새를 이렇게 설명했다.

"연은 은으로 만든 것이 제일 좋고 숙철로 만든 것이 그 다음으로 좋다. 생철로 만든 것은 두드려 제련한 것이 아니면 쇳가루가 (찻가루의) 틈에 끼게 돼 차의 색을 해치는 것이 더욱 심하다. 연을 만들 때는 몸통이 깊고 커야 하며 둥근 바퀴는 예리하고 좁아야 한다. 몸통이 깊고 크면 바닥이 평평해 끼지 않고 차가 항상 모이게 된다. 둥근 바퀴가 예리하고 좁으면 몸통 안에서 움직이되 몸통이 흔들리지 않는다. (중략) 연을 갈 때는 반드시 힘을 주어 빨리하고 오래하지 않아야 한다. 철이 차색을 해칠까 두렵기 때문이다(碾以銀爲上熟鐵次之生鐵者非掏揀搥磨所成間有黑屑藏于隙穴害茶之色尤甚凡碾爲製槽欲深而峻輪欲銳而薄槽深而峻則底有準而茶常聚輪銳而薄則運邊中而槽不受(中略)碾必力而速不欲久恐鐵之害色)."



전송 유송년 연다도 부분(傳宋 劉松年 攆茶圖 部分). 대만고궁박물관 소장. 높이 25cm, 다구상단 지름 19.3cm, 다구하단 지름 35.7cm.

이 글에서의 다연(茶碾)은 당대(唐代) 법문사에서 출토된 다연자(茶碾子)를 보면서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차를 가루 낼 때 차색이 변하는 것을 염려해 짧은 시간 안에 마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연의 재질 또한 차의 변색에 영향이 적은 것을 택했다. 휘종이 얼마나 흰색의 차색에 집착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휘종보다 약 50년 후의 인물, 유송년(劉松年)이 그린 '연다도(攆茶圖)'를 보면 다연이 아닌 돌로 만든 커다란 맷돌로 차를 갈고 있다. 이는 다연이라기보다 다마(茶磨)-차맷돌로 부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연다도에서는 두 사람이 차를 준비하고 있다. 한 사람은 차맷돌에 단차를 갈아서 찻가루를 내고 있다. 차맷돌의 아래쪽으로 찻가루가 떨어지면서 뭉게뭉게 연기처럼 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뒤로는 또 한사람이 탁자 위에서 주자(注子)를 들고 차를 달이고 있다. 탁자 위에는 격불할 때 필요한 다선(茶筅), 청자찻잔, 주칠(朱漆)한 다탁(茶托), 가루 낸 차를 보관하는 합(盒), 수우(水盂), 개완(蓋碗) 등의 다기(茶器)가 놓여 있다. 탁자 앞의 풍로 위에는 손잡이가 있는 물 끓이는 솥이 얹혀 있어 금방이라도 뜨거운 차 한잔을 마실 수 있을 듯 한 분위기다.

유송년의 생몰연대는 확실하지 않고 다만 남송의 효종 순희(孝宗 淳熙)에서 영종 가정년간(寧宗 嘉定年間, 1174~1224)에 활동한 화가로 알려져 있다.

남송대의 심안 노인(審安老人)이 지은 <다구도찬(茶具圖贊)>을 살펴보면, 차를 가는 다구는 유송년의 그림에서 보이는 차맷돌과 같은 모습이다. 심안 노인은 실제 이름과 생몰연대 등이 알려진 것이 없다. <다구도찬>은 육우 <다경> 속 차를 달이는 24가지 다구(茶具) 중에서 12가지를 12 선생으로 의인화해 글과 그림을 함께 실어놓은 책이다. 여기에서 심안 노인은 다마를 '석전운(石轉運)'이라 부르면서 이름은 착치(鑿齒), 자는 천행(遄行), 아호는 향옥은군(香屋隱君)이라 칭했다. 이름에서 보듯이 차맷돌은 돌로 만들었고 곡식을 찧을 때 쓰이는 것처럼 이가 딱 들어맞아서 차를 잘 갈고 손잡이를 잡아서 돌리면 빠르게 갈 수도 있었던 듯하다.

은이나 쇠로 만든 다연에서 돌로 만든 차맷돌로 점차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 손으로 둥근 바퀴의 축을 힘주어 앞뒤로 움직여서 가루내는 다연보다 손잡이를 잡고 돌의 무게를 이용해 한 방향으로만 돌리는 차맷돌이 사용하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둥근 바퀴의 모서리만을 이용하는 다연보다 넓은 면적을 고루 사용하는 차맷돌이 단차를 곱고 균일하게 가루로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 고지현 지정문화재(高知縣指定文化財)인 차맷돌이다. 일본에서는 다구(茶臼)로 부르는데, 흡강사(吸江寺)에 소장돼 있다. 다구 상단의 재질은 돌인데, 측면에 '토우국에서 시주한 오대산 흡강암의 다구이다. 정화오년 기축년 십일월 오일(於施入 土佑國五臺山 吸江庵臼也 貞和五年己丑十一月廿五日)'이라고 새겨져 있다. 정화오년 기축년은 서기 1349년이다. 유송년의 연다도와 심안노인의 <다구도찬> 속 차맷돌의 실제 유물이다.

백기란 ·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30 다비(茶毘) 하던 날



마지막 인사는 사흘만 했고, 남기고갈 말은 오래전에 써두었다. 남은 것은 빈 법구뿐. 법구는 관을 쓰지 않았다. 꽃상여도 없었다. 쓰던 평상 위에, 가사 한 벌 덮고 다비하러 간다. 만장도 없이 간다. 고갯길은 슬펐고 정근 소리는 무겁게 돌아왔다. 슬픔에 젖은 불이 법구를 태웠다.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닌 빈 몸이건만 한 때의 인연이 그 이름을 끝내 잊지 못했다. 수천의 눈이 하나의 이름으로 불길을 바라보고, 수천의 귀는 마지막 설법을 기다렸다. 생각이 끊어진 자리, 생사가 끊어진 자리에 설법은 따로 없었다. 흰 연기만이 피어올랐다.

달빛 속에서 법구는 식어갔고, 스님의 흔적은 더 이상 없었다. 하지만 스님이 사랑했던 것들이 남아 있었다. 사랑했던 책들, 사랑했던 인연들, 사랑했던 부처님이 남아 있었다. 스님을 사랑했던 이들이 간직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었다.

옛 판화의 세계

문수보살을 만나다 (草衣文殊)

삽화는 송나라 때 태위 여혜경(呂惠卿)이 오대산에 유람 갔다가 동자를 만나 문답을 나누는 장면을 판각하고 있다. 동자가 문수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 사자 등에 걸터 앉아 은은하게 구름 속에 나타난 모습이 아름답게 표현돼 있다.

여혜경은 초의 동자에게 문수보살을 만나고자하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일찍이 <화엄경>을 봤더니 대교의 뜻이 깊고 내용이 넓더라. 보살이 이 뜻을 열고 밝혀 핵심을 풀고, 이것을 전석(轉席)해 세간에 유행하게 되면 어두운 밤의 세계가 갑자기 광명을 얻게 되고 큰마음을 지닌 사람은 곧 깨달음이 열릴 것이다."

"모든 부처님의 묘하신 뜻은 사물의 이치에 잘 순응하는 것으로 간단하고 쉬우며 명백합니다. 선대의 큰스님들이 주석한 내용을 보면 해득(解得)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지품' 한 품의 해석문은 몇 장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은 거기에서 가지가 생기고 넝쿨이 생겨, 주석된 책만 100권에 가깝습니다. 성인의 뜻과는 더욱 멀어졌으니 이는 대도를 파쇄하는 행위입니다."

"동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히 전대 선배들을 꾸짖을 수 있겠는가?"

"관인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곳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도 문수보살의 경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대들에게 있어서는 가는 곳마다 일용생활에 헷갈리지 않게 하니 이것이 진실로 문수보살일 따름입니다. 어찌 범인의 정으로 어지럽게 간여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태위는 앞서 말한 것의 잘못을 뉘우치고 곧 머리를 조아리며 동자 앞에 예배를 들였다. 절을 하고 일어서 보니, 동자는 보살의 형체로 나타나 사자의 등에 걸터앉아 구름 속으로 숨어 버렸다.

태위는 그 일을 안타까워했다. 집안사람들이 까닭을 물으니 태위는 "나는 정성을 다해 허물을 뉘우치고 문수보살을 다시 만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 후 동자가 홀연히 나타나 "어찌 상에 주착하는가?"라고 꾸짖었다. 이때 태위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문수보살의 진실한 얼굴을 보게 하고자 했을 따름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초의문수(草衣文殊).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최고의 선 물

특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진회색,검정

특 무 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지압 · 동 깔창
쪼극/세사
실 리 콘
동 99%
가격 20,000원
• 사이즈 : 230-280

조각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회색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3-1 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0mm
• 색상 : 검정,회색

지압동 깔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검정

3-1 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50mm
• 색상 : 검정,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 (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 를 검색해 보세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다라니수저 사찰공양실 불자용수저 "다라니" 시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수저 불자가정에서도 사용하게 품질은 최고! 디자인은 세련!



"다라니수저" 출시기념 공장도가 시판

■ 사찰에는보시 · 불자가정에는 선물!

사찰 공양간에서 공양을 하다보면 처음 만나는 것이 수저다. 공양실의 첫 번째 얼굴이 수저인데 대부분 공양실 수저를 보면 모양도 제각각으로 공양일체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수저가 오래되 긁히고 달아 보기도 깔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코팅이 벗겨지면 스탠을 만들 때에 합금을 해서 제작하므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있어 유럽 선진국에서는 장기간 사용하면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교체를 한다. 수저 상단에는 건강장수를 기원하는 "길상문양"과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옴"자를 넣었다.

■ 사찰명과 스님법명을 넣고도 제작!

300set 이상 주문시 사찰명 또는 스님 법명을 새겨 제작해 드릴 수 있으며(실비), 선물 포교에 활용하게 수저 set마다 고급 비닐로 포장 되어 있다. 다라니수저는 set당 4,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출시기념으로 공장도가격 set당 1,500원씩 사찰과 불자가정에 보급하고 있다. 포장단위는 가정용 20set, 사찰용50set, 100set 단위로 전화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793-0023
농협 : 793-0023-1234-08 고기영

믿음과 신뢰의 기업 고영산업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이 공부 하는 데는 팡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문 저는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서 가정생활이 힘듭니다.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시니 자꾸 눈물만 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자기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알지 못하고 받게 되고, 자기가 알면서 지은 죄는 알면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기 때문에 모르고 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과거를 못 보시걸랑 지금 현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저께도 과거니까요. 그러니 내가 해 놓은 거 내가 받게 마련이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뺏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에서도 자기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자기가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대방에서 나오는 것을 증오를 한다거나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건 왜? 이건 내가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호소해야 합니다. 이름해서 그것도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내가, 자기 주인공에 호소함으로써 거기서 녹아져 버립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부터 모든 단속을 해야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벌레가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하는 거지, 안에서 단속을 안 하고 집을 비워 둔다면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인공에게 내가 몰락 일임하고 믿는다면, 안의 생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기 부하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자기 마음의 부하가 돼 있듯이, 먹고 싶다면 손이 가서 먹게 해 주듯이 말입니다. 이것도 부하입니다. 자기의 종이에요. 종이라고 할 수도 없죠, 자기의 분신이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 자기가 모든 것을 '여기서 한 거니까 여기서 해결해야지.' 하고서 자기 한테 호소하고 일임하고 놔 버린다면, 진정코 믿고 놔 버린다면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더러 자기가 나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가 착해지는 겁니다. 나의 대상들이 다 나를 도와주게 되고 착하게 되고요, 내 몸 내가 챙기듯이.

우리가 이 뱃속에, 육신 속에 있는 이 벌레를 다 끄집어 내놓는다면 구역질이 나서 못 견딥니다. 내가 가래침을 안에 뒀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뱉어 놓고 보십시오. 되집어 먹겠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부 어느 벌레를 봐도 아이구, 징그럽고 더럽고 그렇죠. 그 더러운 벌레, 징그러운 그 모습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남을 원망하지 마시고 자기 주인공에게 모든 걸 일임시키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 됩니다. 누구든지 도와드리고요. 아이구, 딴 사람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림 · 최주현

그럼으로써 내 마음의 사랑이 그렇게 그 상대방에게도 충전이 돼서 그 사람네들도 마음이 밝아지고 그 사람들네도 착해질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무주상 보시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불을 당기니까 거기서도 불이 들어오는 거죠. 충전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한 것이 없으면서도 아주 행복하죠.

그런 도리를 아시고 다시는 울지 마십시오. 울더라도 이 마음에, 그게 내가 참 고마워서 우는 거하고 그냥 남을 증오하고 우는 거하고 다릅니다. 또 남을 원망하고 우는 거 다르고 사랑해서 우는 거 다르고, 여러 가지가지죠, 눈물도.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서 그렇게 마음을 잘 돌리면서 운행을 한다면, 운전수가 몸을 끌고 다니는 데도 잘 끌고 다닐 것이요, 바로 기름도, 내가 항상 무한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아량이 풍부하고 사랑, 자비가 풍부함으로써 어느 걸 보더라도 부처 아님이 없이 보게 되고, 어느 걸 보더라도 나 아님이 없이 보게 되고, 내 자리 아님이 없이 생각이 들게 하고, 내 아픔 아님이 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아무리 파탄이 생긴다 할지라도 파탄을 없애고 살리게 되고 건지게 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 해도 그것도 또 이렇게 보살필 수 있고 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에 맡겨 놓는 공부를 배워서 실천해 보신다면 잘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대해서

문 아직까지도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 어린애를 금방 낳아 놓고서는 어른이 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어린애를 금방 낳아 놓고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라 그런다면 못하죠. 그런 거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도랑 없는 도랑이라 할 수 있죠. 말하자면 들어갔던 구멍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그 구멍으로 나왔을 때 돈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돈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오와 점수는 둘이 아닙니다. 탑을 쌓을 때 쌓는 과정과 한 찰나에 봉우리 올리는 그거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봉우리가 없다면 탑이 없고 탑이 없다면 봉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둘 다 따로따로 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둘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돈오가 마음이고 점수가 몸이라면 어떻게 그걸 둘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싸움을 하기 이전에, 그렇게 남들이 그러더라도 "야, 돈오와 점수가 어찌 둘이겠느냐? 어떻게 얼음과 물과 둘이겠느냐? 그러지 말라. 똥물이나 구정물이나 핏물이나 모두 한데 모여서 바닷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젖는 것이니라. 똥물에도 젖고 구정물에도 젖고 다 젖는, 말을 하자면 이름해서 그것도 젖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 줘야지 아, 돈오가 옳으니 점수가 옳으니 이러고 싸움을 해야만 옳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학술적으로 그런다면 싸움이 그렇게 벌어질 수도 있지만 뜻으로서, 선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언어도 붙지 않는 자립니다, 이게. 아니, 얼음입니까 물입니까? 물이 옳습니까, 얼음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 뜻이라는 거는 그렇게 무궁무진하다 이겁니다. 글쎄, 우리가 어린애를 금방 낳아 놓고선 기르는 거나 마찬가지로 견성이라는 거는 어린애를 금방 낳아 놓은 거와 같고 또 우리가 학업을 마치고 또는 교양이라든가 상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배우려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회에 딱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딱 나설 때는 돈오지마는 그것을 배울 때는 점수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점수와 돈오가 둘이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죠.

이런 예도 있었죠. 잘들 아시겠지만 경허 스님도 아주 대강백으로서 유명하게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경전이라는 경전은 무불통지하고요. 그랬는데 괴질이 도는 어느 마을에 들어섰다가 하룻밤 자고 가자니까, 죽으니깐 빨리 달아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집 가도 그러고 저 집 가도 그러고. 그러니까 인심이 고약한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괴질이 돌아서 사람이 전부 쓰러

☞26면으로 계속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운주사 www.unjusa.com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와 지혜의 눈 출판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사를 비유하여 진리를 전하는 궁극의 말씀
『궁지 백유경 1』



◎ 불도 수행 중에 무심코 빠져들게 되는 착각과 교만함으로 인해 깨달음의 문 앞에서 좌절을 겪게 되는 이들에게 오류를 지적하고, 그를 타파해주는 법장을 담고 있다.

◎ 지금까지 교훈적인 동화로만 알려져 번역·출판되어 온 백유경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이각큰스님의 날카로운 해석으로 각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불법의 요체를 낱낱이 밝혔다.

이각큰스님 역해 / 금적 • 혜명 엮음 / 정가 20,000원 / 2010. 1. 5. 초판발행 / 양장 348.p
도서출판 지혜의눈 Tel. 054-541-2057 / Fax. 054-541-9030

YES24.COM 검색창에서 궁지 백유경1 을 쳐보세요

읽고 따라가기만 해도 모든 고통과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의 결정체 『불멸』



◎ 『불멸』은 모든 인지현상의 주체인 "나"에 대한 영역을 간과하는 과학의 한계성을 자신 있게 역설하고, 생(生)과 사(死), 나와 남, 정신과 물질이라는 이질적인 두 우주를 어떤 방법으로 통합시키고 다시 초월하는지 그 이치와 과정을 완벽하게 파헤친다.

◎ 『불멸』은 현재까지의 과학과 종교에 대한 과감한 비판이 담겨있다. 특히 불가(佛家)에 몸담은 승려로서 오늘날 불교의 모순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것을 다시 불교의 교리로 복구, 승화시키는 탁월한 논리를 보여준다.

이각큰스님 서술 / 보만 • 화현 엮음 / 정가 25,000원 / 2006. 12. 26 초판발행 / 524.p
도서출판 지혜의눈 Tel. 054-541-2057 / Fax. 054-541-9030

YES24.COM 검색창에서 지혜의 결정 을 쳐보세요

남을 원망 말고 주인공에게 모든걸 일임시켜버리세요

☞25면에서 계속

졌다는 얘깁니다. 그랬는데도 자기가 살자고 그냥 그 고을 안을 벗어나서 어느 나무 밑에가 앉아서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더라는 얘기죠. 세상에, 자기도 죽을까 봐 뛰어나와 보니 그 사람네들 하나도 어떻게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는 게 많아도 꼼짝을 못했단 얘깁니다. 그러니 여직껏 배우고 여직껏 강의한 게 무슨 소용 있느냐 이래서, 그냥 다시 돌아와서 강당을 다 해체를 시켰단 얘기죠. 그리고 책도 다 태우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선에서는 견성이 내면세계를 발견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견성을 해 가지고도 거기다 다시 뭉쳐 놓지 않는다면 다시 미해진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미해지느냐? 흩어지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가 견성했다고 온통 자기라고 내세웠을 때 벌써 착이 붙고 욕심이 붙고 아만이 생기고 이런다면 삼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견성을 했어도. 그래서 다시 뭉쳐 놔야 둘이 아닌 도리를 그때 홀연히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견성을 하고 성불을 해야 고 다음에 열반경지에 들어서서 자유인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둘이 아니게 나툴 줄 알게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은 그 원 하나 탁 놓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봉우리 하나 탁 올려놓는, 그 돈오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돈오라고 이름을 해서 돈오지 그걸 어떻게 돈오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 경지에.

그러니 이 죽은 세상 즉, 보이지 않는 세상을 접하는 때라 견성을 하고 나면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때 대의정이 생기고 그때에 시공이 초월된 것도 거기서 배우게 되고 찰나찰나도 거기서 배우게 됩니다, 둘이 아닌 도리 배울 때.

그러니깐 나 하나의 마음이 수천수만의 입자로 인해서 분자가 돼 가지고 화신으로 화해서 이 털구멍을 통해 들고 나면서 그냥 전부 그 응신이 돼 주는 그런 보살이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모두가 보살 아닌 게 없고 또 나 아님이 없고 이 도리가 나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이 도리를 거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은 세상의 죽은 사람도, 보이지 않는 영혼도 보이는 영혼도, 또는 생각이 없는 영혼도 생각이 있는 영혼도 모두가 그냥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광대한, 뭐라고 말을 해야 옳을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찰나찰나 아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 한마음이 이 우주를 전체 덮고 전체 굴리고 전체 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갈라서 뭐 말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할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이름 붙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무슨 돈오가 옳으니 점수가 옳으니 이런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 성격이 잘잘못을 잘 따지는 편인데…

문 저는 본래 성격이 잘잘못과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편이라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두루뭉실하게 살고 싶은데 제 뜻대로 잘되지 않습니다.

답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이런 걸 따진다면 벌써 이거는 이 공부 하는 데 팡입니다. 내가 항상 그럽니다. 남편과 또는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래요. 공부를 안 하고 온통 나쁜 짓은 있는 대로 하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이런다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썩겠습니까. 배우는 시기에 배워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래도 그거를 나무라지 말고 주인공에다 맡겨라 이겁니다. 그건 당신의 입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부드럽게 해 주고 나가서 안 들어오더라도 들어오면 "얘! 너 어디로 그렇게 다녔니? 배고프지 않았니? 잠은 어떻게, 춥게나 자지 않았니?" 요렇게 부드러운 말로, "배고픈데 어서 밥 먹어라! 내 차려 줄게." 하고선 이렇게 좋고 부드러운 말을 따뜻하게 해 줘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안되는 거, 잘못되게 한 거는 주인공에 다 맡기시고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너 잘못하고 이런 거 몰라? 몰라?" 그러면요, 반발심이 생겨서 더 말을 안 듣습니다. 번연히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잘 안 들어요. 그것이 인간의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이끌어 가지고 가는 데는 그 자비성이 거기에 깃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속이 상하는데 무슨 자비야?' 이러겠죠. 그러나 주인공에다 다 맡기시고 그냥 부드럽게 말을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고쳐지는 방법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신랑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아주 나쁘고 두들겨패기만 하고 술 먹고 주정을 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다 술도 안 먹고 그냥 "내가 당신을 왜 그렇게 들볶았지?" 이러고 나중에 착한 사람이 되니까 "아이고, 스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스님…." 이러고는 말을 잇지 못해요. 그것이 그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즐겁죠. 그렇게 즐겁게 살지 왜 그렇게 그냥 볶이고 삽니까? 그러니 이 공부 하는 데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옳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팡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내가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죽어서 천당엘 가려고 내가 믿습니까? 죽어지면 이 몸뚱이가 없으니까 부딪칠 게 없어서 공부도 못 합니다. 그걸 아셔야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해 보세요. 그렇게 경우를 따지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그렇게 볶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셔야죠. 안 그런가요?

지구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려면

문 예전에 아틀란티스문명이란 것이 있었는데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물질로만 치달았다가 모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얘기를 책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때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안도시와 섬들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가 빈번하게 나오니 말입니다. 스님,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지구의 주인으로서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살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요?

답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과 들로 배를 타고 다녀야 하고, 물속으로 수레 마차를 타고 다녀야 할 지경에 도달할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지금 이 땅 속에서 파먹을 걸 다 파먹고, 곶감꼬치처럼 쌓아 놓은 거를 다 빼먹고 나면 나중에 먹고 살게 없을 때 어떡해야 할까요? 하기야 뒤집어서 물속이 만약에 산이 되고 들이 된다면 또 파먹을 게 있겠지만 말입니다.

> **이 안에서부터 모든 단속을 해야**
> **바람이나 벌레나 도둑이 들지 않지**
> **안에서 단속을 안 하고 집을 비워 둔다면**
>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이 마음으로부터 만 가지 법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만 가지 법을 들일 수도 있고, 둘째 내가 만 가지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만 가지의 모습을 거둘 수도 있고, 또 셋째 내가 만 가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만 가지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뜻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지금 시대가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알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한 시루의 콩나물에 대가리 하나 낀 것밖에는 안 되는 나라, 지구 안에서도 그런데 대천세계를 한데 합친다면 그게 먼지 알갱이만이나 할까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먼지 알갱이 같은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서로가 옳지 않다고 싸움을 하고 화목지 못하고 이런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다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사대 오온이 다 공(空)해서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있다 한다면, 바로 우리 이 지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혹성들, 은하계, 태양계도 거기대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양계도 수억 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혹성들이 이 오온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말하고 지나가면 벌써 백 년이 흘렀다는 둥, 십 년이 흘렀다는 둥, 삼 년이 흘렀다는 둥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요렇게 말하고 돌아서면 벌써 일 년이 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똑똑히 따지고 보면 일 년 반이 지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서면 말입니다. 그렇게 시공이 없이 빠른 그 진리 속에서 우리는 지금 허덕거리고 일일이 걸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은하계를 따지고 보면 우리는 지금 은하계의 별성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별 속에 별이 있습니다. 별에서 별을 낳듯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혹성이, 혹성 안에 별이, 우리는 혹성이면서도 별입니다. 별이면서도 그 속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그 생명체들이 너무도 질서정연하게 동맥 정맥을 오르고 내리는 반면에, 모든 일체 생명들은 자기 부서를 맡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은하계도 조금도 틈이 없이 운행을 잘하고 있고, 혹성 이 지구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 지구가 어디로 돌아서 어떻게 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히 말하자면 그 많은 혹성 중에, 그 많은 별성 중에, 그 많은 태양계 중에, 우리 인간이 마음 자체를 발견한다면 대우주 대천세계의 섭리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 속에, 티끌 속에 있듯이. 마음으로서, '만법' 하면 대천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까지 다 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모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알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소릴 하는 것은 우리들이 좌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낮아서 눈도 멀고 귀도 뜨지 못했다면 모습을 바꿔서 짐승 속에 들어가서 짐승 모습을 타고 날 수도 있으니 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 모습을 타고 났으니 그 모습의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행동을 하고, 남자는 남자기 때문에 남자의 행동을 하듯이 돼지로 태어났다면 돼지의 행을 해야 하겠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좌천보다는 승천이 된다면 마음의 세계로 우리가 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세계에서 그 모두를 보고 듣고, 숙명을 알고, 타심을 알고, 천안을 알고, 천이를 알고, 신족을 알고 법바퀴를 굴려서 이 세상에 공덕이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보면 볼수록 광명이 비치고 전력 에너지가 다 그 사람의 능력을 또 이끌어 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이 말로만, 학술적으로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말을 하더라도 주인공 자체로서 둘이 아니게끔 해야죠. 그래야만 말을 해도 한 사이 없이 하는 게 됩니다. 한 사이가 없다 하는 것은 주인공 자체는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많지만 주인공은 다 똑같아서 한데 합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두드러지게 '내가 말을 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하고 다 같은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묘법의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옛날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과거는 이렇게 지나갔으니깐 그만이지. 꿈이나 같아." 이러지 마십시오. 과거도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해 놓은 것이 영원한 오늘에 다가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여러분은 늙어서 몸 벗으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 모습을 바꿔서 또 나오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깐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 늙었다 젊었다 하는 것은, 사람이 늙는 것은 익어 가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늙어 가면서, 젊어서부터 늙어질 때까지 그 경험과 체험과, 그 사람이 삶의 모든 것을 익히고 늙어질 때에, 그것은 바로 벼이삭이 다 익어서 고개가 숙여지듯이 다 익은 걸 말합니다.

살면서 어떠한 게 불편했고, 어떠한 게 좋고 싫고 이런 생각으로 살다 보면 자기가 모습을 바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꼭 가지고 나옵니다. 짐승들도, 자기가 어떤 게 부족하면 꼭 다리를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꼭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오니깐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사람이 짧게 하고 길게 하고 간에 사람의 씨는 사람을 낳는다.

그런데 그 사람의 씨로 사람을 낳는 것이 얼마 동안 가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또 새가 알을 낳다가 말입니다, 새가 알을 낳고 알이 새가 되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 하다가 천 년 만에 그 새의 모습을 바꾼다. 오백 년 만에도 바꿀 수 있고 삼 년 만에도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자기 차원대로에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다섯 가지의 그 눈을 다 떠서 수레바퀴 굴리듯 다 굴릴 수 있어야, 바로 마음으로부터 골수로 인해서 그것을 굴리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이현진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 입 학 식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 개 강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 → 32,300원 (염주,염주 주머니)
· 증정품 : 희담석합장주 1개 (시중가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천안함 침몰과 국가의 위기관리

위대한 영웅 46명의 전사들은 왜 아직도 차디찬 바다 속에서 침묵하는가. 지금 침몰한 천안함에는 시신으로 발견된 남기훈 상사 외 아직도 실종자가 45명이 실려 있다. 엄청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애국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던 해군. 연평해전에서 멋진 승리를 거둔 우리 해군이 의문의 천안함 침몰로 인해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최근 군 당국은 천안함 침몰 10일째를 맞아 가라앉은 선체에 들어가 실종자를 찾아내는 수색작업은 중단하고 대신 선체를 인양하는 작업으로 들어갔다. 이는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故 한주호 준위의 순직과 98금양호 침몰 등 잇따를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실종자 수색중단과 선체 인양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남상사가 주검으로 귀환하게 됐다는 소식은 다른 실종장병 가족들에겐 남의 일 같지 않았을 것이다. 가족들로선 구조작업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군을 더 원망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시련 앞에서 더욱 의연했다. 이들의 숭고한 애국심에 존경을 보낸다.

그러나 실제로 인양여건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인으로 함체를 묶기까지는 고압 물대포로 펄을 파내고 그 속에 밧줄을 넣어 배의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침몰지역의 바닥이 단단하고 가는 모래로 덮여있어 배 밑에 터널을 뚫기가 쉽지 않다. 또 두동강이 난 함미는 내구성이 많이 떨어져 무게중심을 잡기도 어렵고, 체인으로 감아서 올리다가 자칫 배가 부서질 수도 있다고 한다. 함체를 인양하고 배수하는 과정에서 실종자들이 다치거나 인체가 훼손되거나 유실될 우려도 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천안함 침몰원인이 외부 충격으로 점차 굳어져가고 있다. 지진파의 크기로 볼 때 어뢰나 기뢰, 폭뢰 등 강력한 폭발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군 당국은 어뢰공격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한다. 은밀히 침투해 증거를 남기지 않고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아직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여러 정황에 의할 때 가능성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천안함의 사고 시각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의 사고원인 은폐론 까지 번지기도 했다. 사고 당시 함장과 승조원들은 전투 또는 비상사태여야 한다. 그러나 사고당시 함장은 함장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있었고 생존자 중 일부는 내복이나 체육복 등 평상복 차림이었다. 샤워를 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

과학적 증거를 찾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할 군이 이처럼 불신에 시달리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고 초기 어수선한 대응이 불신을 키운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 의혹이 나오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군의 대응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순식간에 일어난 엄청난 사건도 문제지만 위기관리 대응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모든 사고는 다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의연히 대처해야 하기 위해 안전 훈련이 필요하고 위기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사고 시간의 보고가 무려 수차례 정정되었고, 초기부터 사고 수습 과정의 보고가 합참과 국방장관과 대변인의 말이 서로 달랐다. 이러한 세세한 구체적 문제점은 군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천안함 사건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자료부터 정확해야 한다. 그렇다고 군의 기밀자료를 전부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발표 하나하나에 머리를 갸웃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천안함 침몰과 같은 사고는 기뢰든, 어뢰든 아니면 자체 폭발이든 어떤 원인으로든 일어날 소지는 있다. 이미 일어난 천안함의 침몰 앞에서 그간 군이 맡은바 책임을 다 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의 위기관리이다.

어떤 사고이든 간에 거기에 맞는 위기의 대응 능력은 절대적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위기 대응 능력의 취약점을 드러내었고 그것은 곧 우리 안보의 구멍이 될 수 있음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 막강 해군의 방위 능력을 이번 사고를 교훈으로 다시 한 번 다잡아야 될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혜정 스님
의정부 광동고 교법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등

3월인가 싶더니 어느덧 4월이다. 이제 슬슬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우리학교 법당은 자비원이다. 한 노사께서 자비를 배우고 실천하는 거룩한 전당이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이다. 그 곳에서 우리는 매일 종교수업을 하고 1주일에 한번 씩 선생님 · 학부모 대상의 법회를 열기도 한다. 최근 108배 참회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아침마다 아이들이 헐떡거리며 뛰어와 예불을 올린다. 그런 자비원도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면 바빠진다. 그 날을 봉축하는 각종 행사들을 준비 · 진행하기 때문이다.

자비원에 일반 신도는 없지만 매년 연등을 만들어 달고, 수계식을 한다. <반야심경> 암송대회, 연등 만들기 대회 등 각종 축제 행사도 진행한다. 그래서 여느 사찰 못지않게 긴 시간동안의 봉축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천정에 매달린 채 먼지를 흠뻑 뒤집어 쓴 빛바랜 연등을 하나씩 떼어내는 것이다.

오늘 드디어 그 작업을 하게 됐다. 등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문득 아이들의 짓궂은 등살을 힘겹게 견뎌낸 흔적 같은 기분이 들어 죄스럽다. 사실 학교 법당은 고요하고 경건한 수행 공간이라기보다는 체험하고 활동하는 교실 분위기에 더 가깝다. 그러다보니 녀석들은 법당을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는다. 고함치고 뛰고 나뒹구는 것은 기본이다. 부임 초기에는 그런 아이들을 지도해 보려고 시도도 해봤지만 지금은 모른척한다. 설사 어찌 해보려고 한다 하더라도 고이 듣지 않을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기력이 왕성한 그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긴장이 해소되고 편안해 질수 있다면 그 또한 의미 있는 것이리라. 또, 그런 아이들을 부처님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굽어보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불자 학생은 물론,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무교인 아이들이 부담 없이 드나들며 법당과 친숙해진다는 사실은 내게 있어서 무엇보다 더 소중한 부분이다.

시절이 수상하고 또 수상하다. 글로벌 경제난으로 청년 실업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안함 침몰로 인해 생떼 같은 목숨들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다. 이런저런 어수선한 세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이러한 때 신통술 이라도 부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난국을 해결했으면 싶다. 그러나 우리네 삶 속에서 그것이 딱히 따로 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되어 서로 보듬어 주고 이해하고 갈무리 하는 것밖엔. 넓고 깊고 온화한 그분의 마음이 된다면 모든 것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것이 어렵다면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자주 거론 되고 있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정성을 배울 일이다.

올해도 우리는 예년처럼 해묵은 먼지를 씻어낸 등살에 하얀 속지를 바른 후 예쁜 꽃잎을 붙일 것이다. 어른들이라면 10분이면 족히 완성할 등을 1주일 내내 붙들고 앉아 등을 만드는 시간 보다 수다를 떨고 장난을 친 시간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또 그들 사이를 바삐 오가며 이렇게 외칠 것이다.

'자, 떠들지 말고 이렇게 등을 만들어 봐요! 꽃잎 하나에 부모님, 꽃잎 하나에 형제, 꽃잎 하나에 친구, 꽃잎 하나에 이웃을 위해 간절하게 발원 하며 붙여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자비로운 등이 될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여전히 시끌벅적 하겠지만 나는 진심으로 바란다. 연등이 나 자신을 비롯하여 온 우주의 중생들의 안녕과 평화를 비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묵은 먼지를 털어내어 깨끗하고 예쁘게 피어나는 연등처럼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바르고 고운 것으로 재생하기를. 그래서 아픈 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기를.

그것은 가난한 노파의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는 것밖엔 없다. 그것이 자비광명의 등불이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이다.

사 설

안상수 원내대표 물러나야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외압 발언은 불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중대 사건임에 분명하다. 봉은사 주지 명진스님이 지난 일 일요법회에서 "지난해 11월 13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 '현 정권에 비판적인 강남의 부자 절 주지를 그냥 두면 되겠느냐' 고 말했다"라며 외압설을 제기했다. 안 원내대표가 발언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진실게임으로 이어지는 듯했으나, 당시 안 원내대표와 자승 총무원장이 만나는 자리에 함께했던 김영국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명진 스님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후 안 원대표는 침묵하고 있다.

8일 불교자주실천운동본부 발기인 171명이 발기 선언문을 통해 "불교계 내부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며 종단의 자주성을 침해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정계를 떠나는 것만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나아가 이명박 정권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도 9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원내대표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주성을 침해한 것은 물론 헌법에서 명백히 천명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안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막강하다.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불교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칠 수도 있다. 책임이 크고 권한이 큰 만큼 행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해야 하며 들고남이 분명해야 한다. 남의 일인 양 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도 떳떳치 못하다.

종회의원 특보 위촉 적절치 않다

조계종 종헌은 권력분립을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종단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에 편중되는 것을 막아 원융화합을 이루려는 의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집행부인 총무원장 · 총무원 · 포교원, 입법 · 대의기관인 중앙종회,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히 구획짓고 있으며, 특히 중앙종회에는 집행부에 대한 통제 기능을 중요한 역할로 요청하고 있다.

지난 5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해외특별교구, 불교연구소 설립,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종단 전산화를 당당할 특보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특보를 두어야 할 만큼 위의 사업들은 불교발전을 위한 중대사이다.

그런데 중앙종회의원을 특보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총무원과 중앙종회가 서로 화합해 종단 발전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종단 내 각 기관의 화합은 집행부와 중앙종회가 지닌 고유의 권한과 책임을 넘어서지 않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종헌이 겸직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앙종회는 대의기관 · 입법기관 · 종정통제기관 ·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집행부의 종무행정을 감시 · 비판 · 견제해야 할 종회의원이 총무원의 종책을 보좌하는 업무를 맞는 것은 아무래도 적절치 않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자기를 다시리고 병을 고치는 법

1. 자기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도 중요하고 자기의 돈이 100원이 중요하면 남의 돈 100원도 중요하다.
2.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로 인해 자기가 피해를 본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진실하게 하라.
3. 나이가 60살이면 60%는 순환되지 않고, 40%만 순환된다. 60%를 순환시켜야 병이 없어진다.
4.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은 멀어 진다. 상대와 협조하며 맞는 것을 찾아야 된다.
5. 자연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말을 못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줄 것도 없지만은 가져갈 것도 없다.
6. 참다운 길로 가는 길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바로 이것이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다.
7. 몸에 어혈을 제거하고 약을 먹고 1년 치료를 하면은 10년은 젊어진다.
8. 인체의 모든 병은 피가 통하지 않아온다. 혈압, 당뇨, 암, 심장병, 저승꽃, 중풍 어떤 병이라도 피가 통하면 회춘한다.
9.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러면 몸과 건강과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얻을 것이다.
10. 마음을 닦고, 공부하는 자는 자기 몸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삼시구층을 없어야 마음과 정신이 맑아진다.
11. 죽은 성인들도 하늘과 땅을 보고 공부를 하였는데, 죽은 성인들보고 애원하는가 하늘과 땅이 인간과 동물과 식물, 광물을 살려주지 않는가 하늘과 땅을 믿으면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얻을 것이다.
12. 하심을 하라. 말과 행동과 생각을 상대방 입장에 서서 하면 마음과 정신이 맑아지고, 병도 없어지며, 지식을 알고 있는 것도 순리적으로 잘 풀리고 지혜가 생긴다.

유황법제를 전수합니다

전화 011-413-0155 차 석 용 저자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성 명 서

거룩한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과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하옵니다.

존경하는 전국 원로 대덕 비구 비구니스님 여러분, 그리고 불자님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수행과 포교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대구 대가회와 대구사원주지연합회 회원들은 최근 종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승려 사유재산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따른 '유언장' 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매우 깊은 우려를 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이러한 비 불교적인 법령이 강행되고 있는 것을 좌시 할 수 없어 지난 2554(2010)년 3월 29일자로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스님과 총무원장스님 그리고 중앙종회 의장스님께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 성명서는 종단에 올린 그 건의서의 내용중 주요 골자만을 간추려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려는 이 조그마한 목소리가 종단의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사부대중에게 바르게 전달되어 종단에서 시행코자 하는 비 불교적인 법령들을 개정하게 하는 천둥소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세상 어디에도 유언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국 비구 비구니 승가에게 유언장을 제출하라는 종령은 부처님의 정법이 아닙니다. 시행을 즉각 중지하고 해당 종령은 폐기하여야 합니다.

종단에서는 승려 사후 사유재산의 속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 승려에게 유언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언장의 강제 요구는 부처님의 율장과 선종의 청규는 물론 국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율장과 청규의 위반이며 인권 침해이다. 목적은 이해가 가지만 그 수단은 납득할 수 없다. 승가는 수준을 갖춘 수행자들의 모임이다. 승려 개인이 선택할 사항이다. 인권과 승려의 기본권한을 침해하지 말았으면 한다.

2. 승려 사유재산을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재산이라고 확인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이 아닙니다. 전국 승려의 사유재산은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승려의 사유재산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개인재산의 소유와 같이 가람을 수호하고 불법홍포를 위한 엄연한 승려의 소유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부처님의 불법을 전승하기 위한 부처님의 제자가 소유하는 재산입니다. 승려는 이 재산으로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하며 가람을 수호하고 대중을 애호하며 그리고 도제를 양성합니다.

종단은 율장에도 청규에도 없는 법령을 만들어 강행코자 하는데 전국 승가대중은 승려의 소유재산이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재산이라고 확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려의 소유재산은 엄연한 현전승가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재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단의 이러한 소유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절대로 수용될 수 없는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3. '승려 사유재산의 종단 출연'의 령에는 승려의 자유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정법이 아닙니다. 전국 비구 비구니 승가가 자유의사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후 승려 개인재산의 속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제도는 반드시 유언장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스님들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예방책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스님들은 자기 생애의 뒷 마무리를 깨끗이 정리를 하고 있다. 즉, 수행자의 수행여하에 따라 사유재산의 처리가 분별된다고 할 수 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은 재단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승려 노후복지와 교육재원을 위한 재단인 것인지, 아니면 전국 승려 사유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는 재단인지 그 실체가 불분명 합니다.

4. 승려분한신고는 유언장과 관계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종령에 권리제한을 두는 것은 재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종단에서 시행코자 하는 승려분한신고는 유언장 제출요구로 인하여 그 명분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승적은 국민의 호적과도 같습니다. 구비서류 제출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부로 하여 요구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 되어 마치 승려분한신고 보다 유언장 제출이 더 큰 목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중요서류 제출 시에 조건으로 제시하는 사항(권리 제한)이 그 안건과 성격이 다른 것을 요구 하는 것은 행정상의 월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유언장은 일생을 마감하는 임종의 엄숙한 순간에 행해지는 의례로 누구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종의 순간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인바, 유언장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5. 진정한 소통과 화합은 전국 비구 비구니 승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화합을 깨트리는 비불교적인 종령은 그 시행을 중지하고 폐기 하여야 합니다.

율장에서의 '화합'이란 의미는 결계의 현전승가(교구승가)가 '다 함께 계를 설하고(同一說戒), 다함께 갈마(同一羯磨,대중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종단은 물론 전국의 승가가 부처님의 계율을 존중하고 그리고 결계 현전승가가 대중의 갈마(결의)에 의하여 수행을 할 때 진정한 승가의 화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법령을 강행 하려 하지 말고 승가의 고견을 청취하고 받들어 시행을 한다면 지혜와 덕망을 갖춘 지도자의 행정이라고 존경을 할 것입니다.

6. 전국 비구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종단에서 요구하는 유언장을 세 번만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순수한 유언장이 아닙니다. 승려 소유재산이 종단 재산이라고 확인하고 유증하는 계약서입니다.

스님들은 너무 순수하여 문제의 핵심인 유언장과 계약서를 읽어보지 않고 그냥 소문만 듣고 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속을 막론하고 법률관계 서류나 계약서에 함부로 날인을 하면 소송에 연루 되거나 파산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일부 스님들은 최근 종단에서 '스님들의 사후재산 기증의 폭을 넓혀 본사나 재단이나 소속 사찰에 기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님이 어떤 곳에 기증을 선택했다 하여도 그 재산은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에서 관리하도록 인정하여 주는데 불과합니다. 즉, 유언장에 날인을 하는 그 순간 스님 소유의 재산은 유지재단의 재산으로 변경되어 일체 스님의 소유인 것은 존재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종래 신도들로부터 사사공양의 시주를 받고 선원으로부터 해제비를 받아 생활 하던 시절은 옛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개인 소유재산이 없는 세상, 모든 것은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의 재산이라는 차압을 부친 집에서 산다고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열반하시기 전까지입니다.

많은 스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만일 이러한 제도대로 살아간다면 제자들은 무슨 돈으로 가르치고 돌보아 주며 스승이 열반 하신 후에는 무슨 돈으로 장례를 치루며 제사를 지내야 하는가? 그리고 본인은 무슨 돈으로 남은 생을 살아 갈수 있는가? 라고 합니다.

끝까지 이러한 법령을 만들고 또한 시행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조계종의 승려라고 인정 할 수가 없습니다.

7. 유언장 작성요구 진원지는 "승려법 제30조의 2항"입니다. 종회는 이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승려법 제30조 2항 (사유재산의 종단귀속)에 보면 "① 승려는 종단의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재산은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② 승려가 생전에 취득한 개인명의의 재산은 당 승려가 환속, 제적, 사망하였을 경우에 종단에 귀속된다"라고 하고 이하 ③④⑤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단은 이 법에 근거하여 "승려 사유재산 종단출연에 관한 령"을 만들고 그리고 그 령에 의하여 유언장과 계약서 작성을 동시에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④에는 종단은 승려법 제 30조 2항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승려 노후 복지와 승려 교육기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재단을 설립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내용에는 승려 사유재산의 정의에 대하여 문제가 많습니다. 종회에서는 반드시 개정 보완을 해야 할 것입니다.

8. 종단은 입법 사법 행정의 절차와 시행에 부처님의 율장과 선종의 청규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벗어난 법령들은 조계종의 법령이 아닙니다.

종단은 정화 이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법난과 내분을 겪어 왔었다. 사건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언제나 불법에서 벗어나고 장기집권이나 이권 개입에 의한 싸움이었다.

다행히 정법을 수호하려는 호법신장의 대중들이 있어 그나마 종단은 안정되었다. 앞으로 종단의 책임자들은 이판과 사판에 능통한 수행자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원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종단의 소임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고 당번의 자리이다. 그리고 종단의 행정은 수직이 아니고 수평의 관계이다. 정부나 군대와 같이 수직으로 명령 복종을 요구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대중을 존경하고 중의에 귀 기우리는 자세가 요구된다.

9. 부처님께서는 불교의 정법이 이 세상에 오래토록 실현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계율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승가의 발전과 유지존속이 정법구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중국 종색선사는 '승가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면 불법도 존중하게 되며, 승가가 세상으로부터 가벼이 여김을 받으면 불법도 가볍게 된다.'라고 하였다.

승단에 분쟁이 발생하면 지혜를 모아 그 분쟁을 없애야만 한다. 여기 멸쟁법에는 다수가결법이 아니다. 먼저 분쟁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처님이 설하신 법(교리)인가? 아닌가? 또는 율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법자(如法者)가 많을 때 이 사안을 가결한다. 여기에 전제되는 조건은 이 분쟁의 종결로 인하여 분쟁의 당사자가 양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 친애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재가대중 여러분!

이번 우리들의 주장에 대하여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단의 율법과 청규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 '승려의 사유재산' 이라고 하니 스님들이 무슨 재산 싸움을 하는가 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한 스님들이라면 무소유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왜 재산에 집착을 하는가? 라고 하여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단에는 승가가 공동으로 지켜야 하는 계율과 청규(규약)가 있습니다. 사찰에서는 사찰의 재산이 있고 그리고 스님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개인 소유 재산이 있습니다. 이번 종단의 법령은 개인 소유 재산을 종단의 재산이라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불교 역사상에 찾아 볼 수 없는 비 불교적인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승단의 재산과 개인 재산(소유물)은 구분하여 인정 되었으며, 대승불교에 와서도 승가 개인의 소유 재산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소욕지족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불기 2554(2010)년 4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대구 대가회
대한불교조계종 대구 사원주지연합회 회원 일동